

연구보고 2014-21

유아기 행복감 증진 방안

도남희 배윤진 김지예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머 리 말

행복은 전 세계적으로 연구의 주요 주제가 되어왔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이슈로 발전해 오고 있으며 인간의 물질적 수준뿐만 아니라 정신적 수준을 높여려는 노력으로서 지속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UN은 2013년에 ‘세계 행복 보고서(World happiness report)’를 발표했고 최근 정부는 제 2차 중장기 보육계획(2015~2019)에서 ‘아이사랑플랜’을 ‘아이행복플랜’으로 바꾸어 계획 중에 있다. 이렇게 행복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은 연구 및 정책의 주제로 발전해오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아동의 행복에 대한 직접적인 관심을 가지고 아동기 사회적 투자 역량을 국제적 수준으로 증진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행복감은 행동과 사회적 성취에 있어서 최적의 기능을 발휘하도록 하며 이러한 감정의 경험은 지속적이라고 한다. 생애 초기에 경험하는 행복감은 이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크므로 유아기의 행복감은 이후의 발달과 사회적 관계 등과 관련되어 정신건강과 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관점에서 유아기 행복감에 대한 연구가 의미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아기 행복감의 개념과 구성요인에 대한 연구와 논의는 그리 많지 않다.

본 연구는 기존의 행복감과 관련된 지표와 연구를 검토하여 유아기 행복감에 대한 개념 정의와 구성요소를 밝히고자 한다. 또한 유아들의 행복감 정도 및 이와 관련한 전반적인 환경을 조사·분석하여 유아기 행복감 증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 결과가 우리나라의 유아기 아이들의 행복감 증진에 있어서 기초자료가 되기를 바란다. 또한 연구 결과가 유아기 행복감 증진을 위한 부모, 기관과 사회적 노력에 이바지 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조사와 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성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린다.

2014년 12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우 남 희**

차 례

요약	1
I. 서론	9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9
2. 연구내용	11
3. 연구방법	11
4. 연구의 제한점	19
II. 연구의 배경	21
1. 행복감	21
2. 유아기 행복감	27
III. 행복감 관련 지표와 정책 현황	36
1. 행복감 관련 지표	36
2. 행복감 관련 지표의 공통 영역	48
3. 지표로 보는 국내 아동의 삶의 질 수준	50
4. 행복감 관련 정책 현황	59
IV. 지표로 보는 유아기 행복감 수준	73
1. 물질적 수준	73
2. 건강	81
3. 안전	91
4. 주거 환경	94
5. 보육·교육 경험	102
6. 대인 관계	111
7. 자기 자신	125
V. 유아기 행복감 관련 요소	133
1. 유아기 행복감 수준 및 관련 요소와의 관계	133
2. 유아기 행복감 증진을 위한 요소	140

VI. 유아기 행복감 증진 방안	161
1. 기본 방향	161
2. 행복감 증진 방안	162
참고문헌	167
Abstract	174
부록	177
부록 1. 유아기 행복감 조사(유아용)	179
부록 2. 유아기 행복감 조사(부모용)	184
부록 3. 유아기 행복감 조사(교사와 현장전문가)	200

표 차례

〈표 I-3-1〉 조사대상 표집	12
〈표 I-3-2〉 응답자 특성 I	13
〈표 I-3-3〉 응답자 특성 II	14
〈표 I-3-4〉 설문지 구성	14
〈표 I-3-5〉 자문회의 개최 현황	18
〈표 I-3-6〉 간담회 개최 현황	19
〈표 I-3-7〉 심층면담 실시 현황	19
〈표 II-1-1〉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아동 웰빙 지표를 만드는 기준	26
〈표 II-2-1〉 유아행복 척도의 구성요소 비교	28
〈표 II-2-2〉 김세희와 강순미(2008)의 행복의 개념 분류표	29
〈표 II-2-3〉 김성숙(2013)의 행복의 의미에 대한 분석 범주	30
〈표 II-2-4〉 황해익 외(2013)의 행복한 상황에 대한 분석범주	30
〈표 III-1-1〉 UNICEF 아동 웰빙 지표	37
〈표 III-1-2〉 유니세프 아동 웰빙 지수 국제비교 순위	38
〈표 III-1-3〉 UNICEF 주관적 웰빙의 구성요소	39
〈표 III-1-4〉 아동의 주관적 행복감(전반적인 생활 만족도)의 영역 및 구성요소 ..	41
〈표 III-1-5〉 아동의 주관적 행복감(전반적인 생활 만족도)의 국가별 순위 및 결과 ..	41
〈표 III-1-6〉 행복한 아동기 지표 영역	43
〈표 III-1-7〉 OECD 아동 웰빙 지표	44
〈표 III-1-8〉 OECD 아동 웰빙 지수 국제비교	45
〈표 III-1-9〉 유럽의 아동웰빙 지수	46
〈표 III-2-1〉 국내·외 웰빙과 행복 관련 지표의 공통 영역	49
〈표 III-2-2〉 국내·외 유아기 행복감 평가 척도의 공통 영역	50
〈표 III-3-1〉 아동 가구 월평균 총 소득	51
〈표 III-3-2〉 아동(0~9세) 사망률	52
〈표 III-3-3〉 영아 사망률	52
〈표 III-3-4〉 0~11세 아동의 예방접종 여부	53
〈표 III-3-5〉 아동의 모유 수유 기간	54

〈표 III-3- 6〉 아침 식사 여부	54
〈표 III-3- 7〉 매일 과일 및 채소 섭취 여부	55
〈표 III-3- 8〉 일주일동안 30분 이상 운동한 날	55
〈표 III-3- 9〉 14세 이하 아동안전사고 사망자 수	55
〈표 III-3-10〉 2012년도 저소득 한부모 가족 현황	58
〈표 III-3-11〉 아동학대 발생현황	58
〈표 III-4 1〉 드림스타트 분야별 서비스	63
〈표 III-4 2〉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 내용	64
〈표 III-4 3〉 주요 후원현황	67
〈표 III-4 4〉 유아 웰빙 관련 ACF프로그램	71
〈표 III-4 5〉 유아 웰빙 지원 프로그램 및 서비스 내용	71
〈표 IV-1- 1〉 한 달 평균 소득	73
〈표 IV-1- 2〉 최근 1년간 가정 소득 변화 여부	74
〈표 IV-1- 3〉 아버지 경제활동 여부	75
〈표 IV-1- 4〉 어머니 경제활동 여부	75
〈표 IV-1- 5〉 유아의 개인 소유물	77
〈표 IV-1- 6〉 가정의 공용물 소유 여부	78
〈표 IV-1- 7〉 최근 6개월 동안의 활동 평균	79
〈표 IV-1- 8〉 경제적 상황에 대한 걱정	80
〈표 IV-1- 9〉 유아자신의 소유물에 대한 만족(주양육자 응답)	80
〈표 IV-2- 1〉 출생 시 저체중 여부	82
〈표 IV-2- 2〉 수유 방법	82
〈표 IV-2- 3〉 필수예방접종 정도	83
〈표 IV-2- 4〉 3개월 이상 치료 요하는 질병 유무	84
〈표 IV-2- 5〉 기관 병결 횟수	85
〈표 IV-2- 6〉 유아의 체중, 신장 및 BMI	86
〈표 IV-2- 7〉 하루 평균 수면시간	88
〈표 IV-2- 8〉 신체활동과 식생활 여부	89
〈표 IV-2- 9〉 편식 정도	89
〈표 IV-2-10〉 전반적인 건강상태	90
〈표 IV-3- 1〉 돌봐주는 어른 없이 집에 있는 한 달 평균 빈도	91

〈표 IV-3- 2〉 돌봐주는 어른 없이 집에 있는 한 달 평균 빈도(5일 이상) ……	92
〈표 IV-3- 3〉 돌봐주는 어른 없이 집에 있는 하루 평균 시간 ……	92
〈표 IV-3- 4〉 돌봐주는 어른 없이 집에 있는 하루 평균 시간(4시간 이상) ……	93
〈표 IV-3- 5〉 지역사회 안전 ……	93
〈표 IV-4 1〉 거주하고 있는 집의 방 개수 ……	95
〈표 IV-4 2〉 거주지의 상태 ……	96
〈표 IV-4 3〉 주거형태 ……	97
〈표 IV-4 4〉 지역시설 이용 편리성 ……	98
〈표 IV-4 5〉 동네에 대한 만족도 ……	99
〈표 IV-4 6〉 이웃과의 관계 ……	101
〈표 IV-4 7〉 유아의 거주지에 대한 만족(주양육자 응답) ……	102
〈표 IV-5- 1〉 현재 다니는 기관(중복) ……	103
〈표 IV-5- 2〉 최근 1년간 기관 변경 여부 ……	105
〈표 IV-5- 3〉 기관 외에서의 경험-책읽기 참여 일수 ……	105
〈표 IV-5- 4〉 기관 외에서의 경험-학습활동 참여 일수 ……	106
〈표 IV-5- 5〉 기관 외에서의 경험-특별활동 참여 일수 ……	106
〈표 IV-5- 6〉 학습 경험에 대한 스트레스 ……	107
〈표 IV-5- 7〉 기관에 대한 만족(주양육자 응답) ……	109
〈표 IV-5- 8〉 기관에 대한 만족(유아 응답) ……	110
〈표 IV-6- 1〉 부모-자녀 상호작용 ……	112
〈표 IV-6- 2〉 가족과의 긍정적인 관계 ……	113
〈표 IV-6- 3〉 어른들의 귀 기울여줌 ……	115
〈표 IV-6- 4〉 가족 의사결정에 참여 ……	116
〈표 IV-6- 5〉 화목한 가족관계-즐거움과 어울림 ……	117
〈표 IV-6- 6〉 화목한 가족관계-부모 싸움 정도 ……	118
〈표 IV-6- 7〉 주양육자의 행복감 ……	119
〈표 IV-6- 8〉 또래 놀이 참여 일수 ……	121
〈표 IV-6- 9〉 대인관계 대한 만족(주양육자 응답) ……	122
〈표 IV-6-10〉 대인관계에 대한 만족(유아 응답) ……	125
〈표 IV-7- 1〉 자율성 및 선택권-부모의 통제 및 자유 허용 행동 ……	126
〈표 IV-7- 2〉 자율성 및 선택권 ……	127

〈표 IV-7- 3〉 자신감 및 집중력	128
〈표 IV-7- 4〉 외모 및 자기자신에 대한 만족(주양육자 응답)	130
〈표 IV-7- 5〉 유아의 시간사용에 대한 만족(유아 응답)	132
〈표 V-1- 1〉 물질적 수준과 행복감 간의 관계	134
〈표 V-1- 2〉 유아의 경험과 행복감 간의 관계	135
〈표 V-1- 3〉 재화 보유 여부에 따른 유아의 행복감	135
〈표 V-1- 4〉 가정 소득의 변화에 따른 유아의 행복감	136
〈표 V-1- 5〉 유아의 건강 수준과 행복감 간의 관계	136
〈표 V-1- 6〉 가정 및 지역사회 안전과 행복감 간의 관계	137
〈표 V-1- 7〉 주택환경에 따른 유아의 행복감	137
〈표 V-1- 8〉 지역사회 환경과 행복감 간의 관계	138
〈표 V-1- 9〉 보육·교육 경험과 행복감 간의 관계	138
〈표 V-1-10〉 가족관계와 행복감 간의 관계	139
〈표 V-1-11〉 대인관계에 대한 주관적 만족과 행복감 간의 관계	139
〈표 V-1-12〉 시간/선택 및 성취요인과 행복감 간의 관계	140
〈표 V-1-13〉 시간 사용에 대한 만족과 행복감 간의 관계	140
〈표 V-2- 1〉 가장 행복 했던 때-행동분류(중복)	141
〈표 V-2- 2〉 가장 행복 했던 때-동반인(중복)	141
〈표 V-2- 3〉 가정에서 더 행복해 지기 위해 필요한 것-행동분류(중복)	142
〈표 V-2- 4〉 가정에서 더 행복해 지기 위해 필요한 것-동반인(중복)	142
〈표 V-2- 5〉 기관에서 더 행복해 지기 위해 필요한 것(중복)	143
〈표 V-2- 6〉 기관에서 더 행복해 지기 위해 필요한 것-동반인(중복)	143
〈표 V-2- 7〉 행복감 증진을 위한 부모 노력(1순위)	144
〈표 V-2- 8〉 행복감 증진을 위한 부모 노력(1+2순위)	145
〈표 V-2- 9〉 행복감 증진을 위한 기관 노력(1순위)	146
〈표 V-2-10〉 행복감 증진을 위한 기관 노력(1+2순위)	147
〈표 V-2-11〉 행복감 증진을 위한 정책적 노력(1순위)	148
〈표 V-2-12〉 행복감 증진을 위한 정책적 노력(1+2순위)	149
〈표 V-2-13〉 유아의 물질적 환경	150
〈표 V-2-14〉 유아의 식생활과 신체활동	150
〈표 V-2-15〉 유아의 또래와의 따돌림과 성인학대 여부	151

〈표 V-2-16〉 유아와 가족을 위한 충분한 장소와 동네 안전	152
〈표 V-2-17〉 충분한 보육/교육 서비스와 과도한 조기교육	153
〈표 V-2-18〉 유아의 부모나 또래와의 충분한 시간	154
〈표 V-2-19〉 성인으로부터 존중 정도	155
〈표 V-2-20〉 유아 행복한 정도	155
〈표 V-2-21〉 정책의 유아 행복 증진에 적절성	156
〈표 V-2-22〉 유아 행복감 증진 방안: 부모 측면	157
〈표 V-2-23〉 유아 행복감 증진 방안: 기관 측면	158
〈표 V-2-24〉 유아 행복감 증진 방안: 정책적 측면	158
〈표 V-2-25〉 취약 계층의 유아 행복감 증진 방안: 정책적 측면	159

그림 차례

[그림 II-1-1] 한국인의 행복 지수 구성	24
[그림 III-1-1] 아동의 삶의 질 국제 비교	42
[그림 III-3-1] 아동 빈곤율(%)	51
[그림 III-3-2] OECD 국가 영아사망률 비교	53
[그림 III-3-3] 거주 주택의 방수	56
[그림 III-3-4] 주택의 구조, 성능, 환경	57
[그림 III-4-1] We Start 마을 (지역사회 기관과의 네트워크 사업)	61
[그림 III-4-2] 취약계층 아동 건강과일바구니 사업	65
[그림 III-4-3] 서울시 꿈나무카드	66
[그림 IV-1-1] 부모의 경제활동 참여 시간	76
[그림 IV-5-1] 기관 이용 개수: 교습학원, 문화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주민센터 ...	104
[그림 IV-6-1] 부모-자녀 상호작용 문항별 응답	112
[그림 IV-6-2] 대인관계에 대한 만족	122
[그림 V-1-1] 유아의 행복감(유아 응답)	133
[그림 V-1-2] 유아의 행복감(주양육자 응답)	134

요약

1. 서론

가.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행복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으로 연구 및 정책의 주제로 발전해오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아동의 행복도 및 아동기 사회적 투자 역량을 국제적 수준으로 증진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음.
- 생애 초기에 경험하는 행복감은 이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유아기 행복감에 대한 연구가 의미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아기 행복감의 개념과 구성요인에 대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임.
- 본 연구는 기존의 행복감에 대한 지표와 연구를 검토하여 유아기 행복감에 대한 개념 정의와 핵심요소를 밝히하고자 하며, 유아들의 행복감 정도 및 이와 관련한 전반적인 환경을 조사·분석하여 유아기 행복감 증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나. 연구내용

-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행복감의 개념 및 유아기 행복감을 이해함.
- 국내·외 행복 관련 지표를 분석하여 공통 요소를 파악하고, 이러한 지표에 근거하여 국내 아동(유아)의 삶의 질 수준과 정책 현황을 알아봄.
-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유아의 행복감 및 행복감 관련 요소들의 수준을 알아보고, 행복감과 관련 요소들과의 관계를 파악함.
- 분석 결과를 토대로 유아기 행복감 증진 방안을 제시함.

다. 연구방법

- 국내·외 유아기 행복 관련 선행연구를 고찰하여 행복감의 개념과 행복 관련 지표에 대해 분석함.

- 전국의 16개 시도에서 만 4·5세 유아 1,000명과 부모 1,000명 및 어린이집·유치원 교사와 현장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 유아기 행복감의 개념 및 요소를 파악하고 연구 방향 및 정책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회의 및 저소득층 아동복지사업 관련 전문가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함.
- 유아기 행복감과 관련 요소를 파악하기 위해 만 4·5세 유아, 부모 및 어린이집·유치원 교사와의 심층면담을 개최함.

라. 연구의 제한점

- 본 연구는 취약계층 영유아 통합적 육아지원방안 연구의 6차년도 사업으로 저소득층에 중점을 두기 위해 이들을 과대표집하였으며 전국 221개 드림스타트 사업지역을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2. 연구의 배경

가. 행복감

- 선행연구를 종합하면, 행복감(Happiness)은 객관적 삶의 질에 대한 만족감과 주관적 정서를 함께 반영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런 의미에서 행복감은 주관적 웰빙(Subjective well-being)과 가까운 의미임.
- 다양한 접근 방식 중 어느 한 가지를 택하는 것 보다는 행복감 증진에 초점을 둔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정책적 방향을 찾는 것이 중요함.

나. 유아기 행복감

- 유아를 대상으로 선행되어온 국내 연구를 분석한 결과, 유아기 행복감은 주관적 웰빙 혹은 만족감과 유사한 개념이며 유아가 일상생활의 경험이나 생활 전반에서 느끼는 만족감이나 긍정적 정서의 상태를 포함하고 있음.
- 국내 선행연구에서는 유아기 행복감의 내용이나 측정에서 물질적 수준, 대인관계, 성취, 자기 자신(인지·정서적 측면) 및 신체 건강 등을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음.

- 유아기 행복감(혹은 삶의 질)과 관련 있는 요인으로는 유아의 연령, 성별, 부정적 정서성 및 자아 탄력성 등의 개인 특성뿐만 아니라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부모의 양육행동, 양육 효능감, 행복감 및 우울 등의 부모 특성과 유아의 기관 및 생활 전반의 경험과 같은 환경 특성이 있음.

3. 행복감 관련 지표와 정책 현황

가. 행복감 관련 지표

- UNICEF는 아동웰빙지표를 구성하여 대표적인 경제 선진국을 대상으로 아동 복지를 비교·분석함으로써 세계 아동의 복지증진의 기준마련과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함.
- 웰빙과 행복감은 다르다는 인식하에 주관적 행복감 국제 비교 지수 연구가 시작되었으며, 물질적 재화, 건강, 학교, 생활 지역, 가족과 집, 대인관계, 시간사용 및 인생에 대한 만족으로 지표를 구성하고 있음.
- 영국의 The Children's Society와 요크대학은 행복한 아동기 지표를 아동 개인의 종합적인 생활만족감과 구체적인 10가지(가족, 집, 물질적 소유, 또래관계, 학교, 건강, 외모, 시간사용, 선택과 자율성, 미래, 지역사회) 영역에서의 개인의 행복감을 묻는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함.
- OECD는 6개의 영역 즉, 물질적 웰빙, 주거와 환경, 교육적 웰빙, 건강과 안전, 위험 행동 및 학교생활의 결과 이에 해당하는 21개의 지표로 아동의 웰빙 지표를 구성하여 조사하였음.
- 유럽의 아동 웰빙 지수 연구팀은 UN의 아동권리협약 체결 이후 아동의 권리에 대한 관심 속에 오늘날 아동이 직면한 웰빙과 행복감 문제, 개발과제, 그리고 미래의 문제까지를 포괄적으로 보고자 하였음.

나. 지표로 보는 행복감

- 국내·외 웰빙 지표에서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주요 영역 중에서 물질적 수준, 건강과 안전, 주거와 환경, 가정환경 영역에 대해 국내 아동 특히 취약 계층 아동의 웰빙 수준을 포괄적으로 살펴봄.

- 빈곤율은 감소하는 추세이며, 빈곤층 가구는 전체 아동·청소년 가구 소득의 28%정도임.
- 우리나라 아동 사망률은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영아사망률은 2012년 기준 2.9명이며, 2011년도 기준 조산아는 57.9%, 저체중 출생아는 57.6%임.
- 농어촌 아동의 예방접종률은 낮은 편이며, 빈곤층에서 매일 과일을 먹지 않거나 운동을 하지 않는 비율이 높게 나타남.
- 빈곤층 및 차상위층이 전반적으로 양호하지 못한 주택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음.
- 2012년도 조이혼율은 2.3명, 빈곤선 미만 가정에서 양부모가 모두 있는 비율은 47% 수준이며, 2012년도에 아동학대가 6,403사례 발생하였음.

다. 행복감(웰빙) 관련 정책 현황

-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저소득층 아동에게 동등한 출발선을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하에 통합서비스 지원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We Start와 Dream Start가 있음.
- 중앙과 지방 정부에서도 취약계층의 아동을 대상으로 디딤씨앗통장, 지역아동센터, 건강과일바구니, 꿈나무 카드, 용기프로젝트, 아동 영양제 지원 및 아동 치과 주치의 음식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음.
- 국외에서도 취약계층의 아동에 대한 지원을 강조하며 이들의 웰빙 수준 향상을 위해 유아와 가족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이 진행됨.

4. 지표로 보는 유아기 행복감 수준

가. 물질적 수준

- 가정의 한 달 평균 소득은 200만원 미만이 39.1%로 가장 많았고(본 연구에서 저소득 계층을 과대표집하였음) 아버지가 취업한 경우는 93.0%, 어머니가 취업한 경우는 36.6%이며, 부모 모두 일주일에 41~50시간 근무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음.

- 재화 보유 여부 및 가족의 경제적 상황으로 인한 걱정 빈도에서 모취업여부 및 부모소득에 따른 차이가 있었으며, 주양육자는 대부분 유아가 자신의 소유물에 대해 만족하고 있다고 응답함.

나. 건강

- 출생 시 저체중 여부, 수유 방법, 예방접종 정도, 만성질환 및 건강문제로 인한 기관결석 여부, 수면시간, 체중·신장·비만도를 조사하여 객관적 건강상태를 알아봄.
- 유아의 건강 행동에 대해 신체활동은 주 3~4일 이상 한다는 응답이 81.8%, 하루에 세 끼 식사를 하는가는 주 5일 이상 한다는 응답이 77.8%, 과일/야채 섭취는 주 5일 이상 한다는 응답이 42.6% 등으로 나타남.
- 주양육자는 대부분 유아가 건강하다고 응답하였으나 성별과 소득수준에 따른 차이가 있음.

다. 안전

- 보호자 없이 유아 혼자 혹은 형제자매와 집에 있는 경우는 전혀 없다는 응답이 66.1%로 가장 많았으나, 한 달에 5일 이상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5.1%이었으며 이들은 한 달 평균 10.45일 동안 유아를 혼자 혹은 형제자매와 집에 둔다고 응답하였음.
- 지역사회 안전에 대해 전반적으로 안전하다고 인지하는 경향이 있으나 가구소득이 260만원 이하 집단의 경우 거주지역과 보육·교육기관의 안전 정도를 비교적 낮게 응답함.

라. 주거 환경

- 주거 환경 중 가정환경은 방 개수, 주택 환경, 거주지 불안정 상황 등을 조사하였으며 부모소득에 따른 차이가 나타남.
- 지역사회 환경에 있어 시설 이용에 대한 편리성, 지역사회 환경에 대한 만족 및 이웃 관계를 조사하였으며 지역규모 및 부모소득에 따른 차이가 있음.

마. 보육·교육 경험

- 유아들은 어린이집·유치원 외에도 교습학원(17.0%), 문화센터(7.0%) 등에 다니고 있으며, 60~80%이상의 유아가 주 1회 이상 학습활동이나 특별활동을 참여하고 있음.
- 남아가 여아보다 학습에 대한 지겨움이나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부모소득에 따른 차이도 나타남.

바. 대인 관계

- 가족관계는 부모-자녀 상호작용, 가족과의 긍정적인 관계, 어른들이 귀 기울여주는 정도, 가족 의사 결정에 참여, 화목한 가족관계 및 주양육자의 행복감을 조사하였으며, 전반적으로 모취업여부 및 부모소득과 같은 가족 변인에 의한 차이가 나타남.
- 기관에서의 시간을 제외한 또래와의 놀이 참여 일수는 주 1~2일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2.0%로 가장 많았음.
- 유아가 대인관계에 만족하는 정도는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으며, 그 중 엄마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이 가장 높게 나타남.

사. 자기 자신

- 유아의 자율성과 선택권 등의 시간/선택영역과 자신감과 집중력 등의 성취영역에서는 유아의 성별과 부모소득에 따른 차이가 나타남.
- 대부분의 주양육자는 유아가 자신의 외모에 대해 만족하고 있다고 보고함.
- 유아가 가족과의 시간, 친구와 함께하는 시간 및 놀이 시간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는지 조사하였으며, 친구와의 만남이나 놀이시간이 많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 유아의 1/3이상임.

5. 유아기 행복감 관련 요소

가. 유아기 행복감 수준 및 관련 요소와의 관계

- 유아는 대부분 자신이 아주 행복하다고 인식하고 있음(4점 척도에서 평균 3.60점).
- 유아의 행복감과 관련 요소들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음.
 - 가정의 소득수준, 활동 경험 및 재화보유 여부와 관련이 있으며, 특히 경제적 상황에 대한 가족의 걱정이 많을수록 유아의 행복감은 낮게 나타남.
 - 건강한 식생활, 안전한 환경, 지역사회 시설의 편리성 및 도움을 주고받는 이웃 관계와 유아의 행복감 간에 의미 있는 정적 상관이 있음.
 - 책 읽기 경험이나 현재 다니는 기관에 대한 만족은 행복감 수준과 정적 상관이 있으나 학습 스트레스 수준은 부적 상관이 있음.
 - 가족과의 긍정적인 관계, 주양육자의 행복감 및 대인관계에 대한 만족이 높을수록 유아의 행복감 수준 또한 높게 나타남.
 - 유아에게 자율성과 선택권이 보장되고 성취 관련 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유아가 자신의 시간사용에 대해 만족할수록 유아의 행복감 수준은 높았음.

나. 유아기 행복감 증진을 위한 요소

- 유아는 스포츠 및 레저 활동이나 놀이를 할 때 그리고 부모와 함께할 때 가장 행복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놀이가 필요하고 부모 혹은 친구와 함께 하고 싶다고 응답하였음.
- 주양육자들은 유아의 행복감 증진을 위해 가정에서는 부모가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보육·교육기관에서는 유아를 존중 및 수용하고, 정책적 측면에서는 보육·교육 기관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응답함.
- 어린이집·유치원 교사와 현장 전문가들에게 행복감 관련 요소에 대한 의견을 조사함.
 - 식생활로 인한 건강문제가 염려된다는 응답은 51.7%, 동네가 안전하지 않다는 응답은 63.4%로 절반이 넘으며, 유아들이 또래 따돌림을 경험한다는 의견은 36.5%, 성인으로부터 학대를 경험한다는 응답은 28.7%로 나타남.
 - 유아들이 과도한 조기교육을 경험하고 있으며, 부모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응답자의 68.7%는 현재 정책이 유아의 행복감 증진에 적절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도 유사하게 인식하고 있음.
- 교사 및 현장 전문가들도 유아의 행복감 증진을 위해 부모는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보육·교육기관에서는 유아를 존중 및 수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음.
- 한편 정책적 측면에서 유아의 행복감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점으로 자녀양육을 위한 걱정 근로시간 준수를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며, 취약계층을 위해서는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을 해소해주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음.

6. 유아기 행복감 증진 방안

가. 기본 방향

- 아이를 위한 균형적 양육이 필요함.
- 아이의 발달에 맞는 활동과 프로그램을 제공함.
- 다양한 가족의 요구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통해 가족의 행복감을 높임.
- 유아와 아동의 최적 발달을 위한 인프라와 지원체계를 사회적으로 형성함.
- 아이의 행복감을 위한 대국민 홍보와 캠페인 필요함.

나. 행복감 증진 방안

- 아이와의 질적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걱정근로시간 준수와 패밀리 데이 등을 통한 일하는 부모의 가족 시간의 확보가 요구됨.
- 아이들에게 스포츠 및 레저 활동, 놀이, 교제활동 등을 선택하도록 함.
- 가구 특성에 따른 요구 파악을 통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함.
- 정부사업과 민간사업 간의 연계 강화와 인력 지원과 처우개선이 요구됨.
- 아이의 행복한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줌으로써 부모들의 인식을 변화시킴.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행복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은 연구의 주요 주제가 되어왔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주제로 발전해 오고 있으며 인간의 행복을 위한 물질적 수준과 정신적 수준을 높이려는 노력으로서 지속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UN은 2013년에 ‘세계 행복 보고서(World happiness report 2013: Halliwell, Layard, & Sachs, 2013: 3)’의 발표를 통해 이제는 경제적 발전을 넘어 삶의 질과 행복이 인류의 중요한 화두임을 강조하고 삶의 질과 행복이 세계의 지속발전적인 목표로서 영향력을 가지며 정치적으로도 시사점을 갖는다고 제시하였다.

정부는 최근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아이행복플랜(안)을 수립·추진할 계획을 논의하였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4). 중앙보육정책위원회는 “아이의 행복한 미래를 키우는 보육”을 중장기 비전으로 삼고 정책추진 전략과 추진계획을 바탕으로 관련 전문가, 현장 어린이집, 관계부처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아이행복플랜”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는 기존의 “아이사랑플랜”보다 아이 중심의 정책으로 한발자국 더 다가가고자 하는 노력으로 이해된다.

또한 정부는 국민행복이라는 기조 아래 2014년의 업무계획(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3)을 통해서 제 1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15~2019)을 수립하여 “아동이 행복한 나라 플랜”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러한 기본계획 수립의 배경은 한국아동행복지수가 OECD 최하위이며(72.5점/100점), 한국의 아동복지지출은 OECD 34개국 중 32위(GDP대비 0.8%)이라는 오명을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로 해석할 수 있다. 이것은 아동의 행복도 및 아동기 사회적 투자 역량을 국제적 수준으로 증진하고자 하는 계획으로서 약 100만 명의 빈곤 아동과 약 3만 명의 가정해체 가족의 아동 등에 대한 사회적 보호체계를 강화하여 우리 사회의 아동들의 행복감을 높이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정부의 의지는 세계적인 아동정책의 흐름과도 그 궤를 같이 할 뿐만 아니라 생애 초기에 경험하는 행복감은 이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크며 인간의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가를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행복감

은 행동과 사회적 성취에 있어서 최적의 기능을 발휘하도록 하며 이러한 감정의 경험은 지속적이라는 연구 결과(De Neve, Diener, Tay, & Xuereb, 2013)를 볼 때, 유아기의 행복감은 이후의 발달과 사회적 관계 등과 관련된 정신건강과 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 구체적으로 폭력, 공격성, 폭력행동, 속임수 가능성, 위험 행동, 식이장애, 우울, 외로움과 자살생각 등을 비롯한 아동 삶에서의 여러 문제들이 낮은 안녕감과 관련 있다는 연구결과(The Children's Society, 2012)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핵가족화, 이혼 가족의 증가, 조기 영어교육 열풍과 사교육의 증가와 같은 가정 및 교육 환경의 부정적인 요인들의 증가로 인해 어린 시기부터 행복감도 침해당할 가능성이 크고, 생애 초기에 경험하는 행복감은 이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유아기부터 지속적으로 행복감을 측정하여 변화하는 양상을 볼 수 있다면 이후의 삶의 만족도의 측정과 연관이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한편 무상보육의 확대로 영아의 보육시설 이용률이 높아지고, 오래 기관에 머무르는 영유아들이 많아지고 있다. 또한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사회 곳곳의 각종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며 아동의 건강한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급식 위생 관리 부실, 아동학대 등의 사건이 끊이지 않는 현실에서 생애 초기부터 유아의 행복감은 어느 정도인지, 어떤 행동을 하거나 누구와 함께 있을 때 행복감을 느끼는지 알아보는 것은 흥미 있는 작업이다.

최근 행복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나 대부분 성인, 청소년, 초등학교 아동, 특히 학령기 이후 아동을 대상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유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많지 않으며 유아의 다른 발달 영역에 비해 행복감을 주제로 수행된 연구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 또한 유아의 응답에 의해 유아의 행복감을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고 행복감을 구성하는 요인도 매우 다양하여 밝히기가 쉽지 않다. 또한 진행된 몇몇 연구들에서도 유아의 행복감의 개념과 구성 요인에 대한 논의를 공유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기존의 행복감에 대한 지표와 연구를 검토하여 유아기 행복감에 대한 공통 요소를 찾고자 한다. 그리하여 유아를 대상으로 유아기의 행복감 수준 정도를 파악하고 부모, 교사와 현장 전문가를 통한 유아기의 행복감 관련 요소와의 관련성을 분석하여 유아기 행복감 증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내용

첫째, 행복감의 개념에 대해 알아본다. 기존의 행복감에 대한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유아, 아동과 청소년기의 행복감의 차이를 이해한다.

둘째, 국내·외 행복지표와 행복지수를 분석하여 행복감에 대한 공통요소를 파악하며 이러한 지표에 근거한 한국 아동의 삶의 질 수준과 유아와 아동의 행복감 증진을 위한 정책 현황을 알아본다.

셋째, 선행 지표를 근거로 하여 유아의 행복감 관련 요소들을 알아본다. 즉, 유아와 부모의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유아의 행복을 위한 기본 조건들이 될 수 있는 요소들을 파악한다.

넷째, 유아기 행복감의 수준을 파악하고 관련 요소들과의 관계를 알아본다. 또한 유아, 부모 및 교사와 현장 전문가의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유아기 행복감 증진을 위한 요소를 파악한다.

다섯째, 유아기 행복감의 개념과 관련 요인들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유아기 행복감 증진 방안을 제시한다.

3. 연구방법

가. 자료 검색 및 문헌연구

국내·외 유아기 행복 관련 선행 연구를 고찰하여 행복감의 개념 정의를 파악한다. 구체적으로 OECD와 UNICEF 웰빙 지표, 행복한 아동지표, 아동의 삶의 질 국제 비교 등의 지표 분석을 통한 개념 정의와 구성요인들을 살펴보고 국내 연구와 지표와의 유사성과 차이점 등을 파악한다.

나. 설문조사

1) 조사대상

전국의 16개 시도별로 만 4세와 5세 유아를 대상으로 1,000명을 목표 사례로 하여 드림스타트 사업 221개 지역을 중심으로 드림스타트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유아 현황과 저소득층 가구를 파악하여 일반 가구와 저소득층 가구를 임의 표집하였다.

〈표 1-3-1〉 조사대상 표집

단위: 명

행정구역	목표 사례	4세	5세	저소득층 가구	일반 가구	표집 사례
전 국	1,000	500	500	592	405	1,000
서 울	172	86	86	106	66	172
부 산	58	29	29	27	32	59
대 구	46	23	23	29	17	46
인 천	60	30	30	39	21	60
광 주	32	16	16	21	21	42
대 전	32	16	16	17	15	32
울 산	26	13	13	16	10	26
경 기	276	138	138	169	105	276
강 원	28	14	14	20	7	28
충 북	32	16	16	18	14	32
충 남	44	22	22	25	19	44
전 북	36	18	18	13	13	26
전 남	34	17	17	22	12	34
경 북	50	25	25	32	18	50
경 남	70	35	35	36	33	69
세 종	4	2	2	2	2	4

설문조사에 응한 응답자 I 은 학부모 1,000명과 유아 1,000명이었다. 응답한 학부모는 어머니가 94.1%, 아버지가 2.6%이며 조부모는 3.0%였다. 지역규모별로는 대도시에 사는 경우는 43.5%, 중소도시는 52.5%, 읍면 지역은 4.0%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취업여부를 알아본 결과, 취업한 경우는 35.8%, 미취업인 경우는 62.1%였다. 부모 소득은 260만원 이하인 경우는 58.5%, 261만원~350만원은 18.9%, 351~450만원은 14.1%, 451만원 이상인 경우는 8.2%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유아의 경우는 남아는 51.2%, 여아는 48.8%이고, 연령은 만 4세 50%, 만 5세 50%가 조사되었다. 유아의 아버지는 30대가 45.1%, 40대가 46.2%였으며, 어머니의 연령대는 30대가 과반수를 넘는 68.3%, 40대가 28.4%로 두 번째로 많았다. 한편 유아들이 주로 이용하는 기관 유형은 유치원이 50.9%, 어린이집이 47.9%이고 그 외 기관이 28.8%로 나타났다.

〈표 1-3-2〉 응답자 특성 1

단위: %

구분	부모	(수)	구분	유아	(수)
전체	100.0	(1,000)		100.0	(1,000)
응답자			성별		
어머니	94.1	(941)	남아	51.2	(512)
아버지	2.6	(26)	여아	48.8	(488)
조부모	3.0	(30)			
기타	0.3	(3)			
자녀연령			연령		
만4세	50.0	(500)	만4세	50.0	(500)
만5세	50.0	(500)	만5세	50.0	(500)
지역규모			부연령		
대도시	43.5	(435)	20대	.7	(7)
중소도시	52.5	(525)	30대	45.1	(451)
읍면지역	4.0	(40)	40대	46.2	(462)
			50대이상	2.0	(20)
			모름	6.0	(60)
모취업여부			모연령		
취업	35.8	(358)	20대	1.8	(18)
미취업	62.1	(621)	30대	68.3	(683)
해당없음 ¹⁾	2.1	(21)	40대	28.4	(284)
			50대이상	.3	(3)
			모름	1.2	(12)
부모소득 ²⁾			기관유형(중복)		
260만원이하	58.5	(585)	어린이집	47.9	(479)
261~350만원	18.9	(189)	유치원	50.9	(509)
351~450만원	14.1	(141)	반일제이상학원	.5	(5)
451만원이상	8.2	(82)	기타	28.8	(288)
			해당없음	.4	(4)

주: 1) 해당없음은 어머니와 아버지가 부재한 경우, 조부모와 형제자매가 보호자인 경우
 2) 월 가구소득의 분류는 가계동향조사(통계청, 2012)의 소득 10분위별 가구당 가계수를 활용하여 아래와 같이 상·하 30% 및 50%의 기준금액을 적용하였음.
 260만원 이하: 차상위 계층 포함~소득 3분위 이하
 261~350만원 이하: 소득 3분위 초과~소득 5분위 이하
 351만원~450만원 이하: 소득 5분위 초과~소득 7분위 이하
 451만원 이상: 소득 7분위 초과

설문에 응답한 응답자 II는 교사는 28.4%, 원장 및 원감은 23.0%, 그리고 현장 전문가들 48.6%였다. 이들의 전공은 유아교육 43.9%, 아동복지/사회복지 33.9% 등이며 종사하는 기관은 어린이집 29.8%, 유치원 21.6%, 취약계층 지원단체 17.2%,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4.7% 등이었다.

〈표 1-3-3〉 응답자 특성 II

구분		계(수)	
전체		100.0(941)	
직업		기관유형	
교사	28.4(267)	유치원	21.6(203)
원장 및 원감	23.0(216)	어린이집	29.8(280)
현장 전문가	48.6(458)	취약계층 지원단체	17.2(162)
전공		건강가정지원센터	11.6(109)
아동/아동가족	8.8(83)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4.7(138)
유아교육	43.9(413)	육아종합지원센터	5.2(49)
아동복지/사회복지	33.9(319)		
교육/심리	3.9(36)		
기타	9.6(90)		

2) 조사도구

유아, 부모 및 교사들의 심층면담 및 예비조사, 선행연구 그리고 전문가 간담회 결과를 토대로 유아기 행복감과 관련 요인에 대한 부모 및 유아 대상 설문지를 구성하였으며 그 내용은 <표 1-3-4>와 같다.

〈표 1-3-4〉 설문지 구성

영역	하위 영역	조사내용 (설문지 문항번호)
I 물질적 수준	가정환경	가정의 평균 소득 (부I9) 1년간 가정 소득의 변화 (부I10) 부모의 경제활동 여부/참여 정도 (부I7,8) 재화 보유 및 경험 여부 (부F6,7) 가족의 경제적 상황으로 인한 걱정 빈도 (부F5)
	주관적 만족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만족 (부F8)

(표 I-3-4 계속)

영역	하위 영역	조사내용 (설문지 문항번호)
II 건강	객관적 건강	출생 시 저체중 여부 (부A2) 모유수유 여부 (부A3) 예방접종 (부A4) 만성질환 (부A5) 건강문제로 인한 기관 결석 (부A6) 과체중: 체중, 신장 (부A1) 수면시간 (부A7)
		건강 행동 신체활동 (부A8:1) 식생활: 세끼의 식사, 신선한 과일, 인스턴트식품, 편식 (부A8:2~4,A9)
	건강 상태	건강상태 (부A10)
III 안전	가정환경	방과 후 방치 여부/정도 (부E1)
	지역사회	사는 동네의 안전에 대한 만족 (부E2)
IV 주거 환경	가정환경	가구원 1인당 방수 (부F3) 주택환경 (부F2) 거주지 불안정 상황 (부F1,F4,I11)
	지역사회 환경	지역 사회의 시설 (부G1,G2:1~3) 이웃 (부G2:4~5)
	주관적 만족	자신이 사는 집에 대한 만족 (부F8)
V 보육·교 육경험	참여경험	보육·교육기관 참여 (부B1) 보육·교육기관 옮김 (부B2) 기관 내·외에서 특별활동 참여 (부B3)
		스트레스 학습 경험에 대한 스트레스 (부B4)
	주관적 만족	자신이 다니는 기관에 대한 만족 (부B5 / 유1:5)
VI 대인 관계	가족관계	부모와의 상호작용 (부C1) 가족과의 긍정적인 관계 (부C2:1~5) 어른들이 자신의 말에 귀기울여주는 정도 (부C2:6~7) 가족 의사 결정에 참여 (부C2:8) 화목한 가족관계 (부C2:9~10,C3) 가족 구성원의 변화 (부I5) 주양육자의 전반적인 행복감 (부D5)
		또래관계 또래와의 놀이 참여 (부C4)
	주관적 만족	가족에 대한 만족 (부C5 / 유1:1~2) 친구에 대한 만족 (부C5 / 유1:3) 타인(교사·이웃)에 대한 만족 (부C5 / 유1:4)
		시간/선택 성취
VII 자기 자신	주관적 만족	외모에 대한 만족 (부D3:1) 자기 자신에 대한 만족 (부D3:2) 시간 사용에 대한 만족 (유2:1~3)

(표 I-3-4 계속)

영역	하위 영역	조사내용 (설문지 문항번호)
행복감	행복감	행복감 (부D4 / 유1:6) 행복 요소 (유3)
기타	정책 방안	유아기 행복감을 위한 부모/기관/사회의 노력 (부H1~3)
	일반적 특성	유아의 연령 (부I1), 성별 (부I2) 형제자매수 (출생순위) (부I3) 부모의 연령 (부I6)
	취약계층 관련	집 소유형태 (부I11) 가구/유아가 받고 있는 지원 사업 (부I11,12)

주: 부=부모용 설문지, 유=유아용 설문지를 의미함.

질문 구성을 위해 먼저 국내·외 행복 관련 지표들 즉, OECD(2009b)와 UNICEF(2013a; 2013b)에서 제시한 아동 웰빙 지표, 행복한 아동기 지표(The children's society, 2012; 2013), 아동 삶의 질 종합 지표 및 주관적 행복감 국제 비교 지수(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세이브더칠드런, 2013)에서 7개의 공통 영역을 추출하였으며, 이는 물질적 수준, 건강, 안전, 주거환경, 보육·교육경험, 대인관계 및 자기 자신 영역을 포함한다. 또한 세부적인 질문 문항은 이 지표들에서뿐만 아니라 각 항목을 가장 잘 평가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몇 가지 척도를 포함하여 구성된 후 유아기 행복 관련 선행연구(김도란·김정원, 2008; 김성숙, 2013; 김세희·강순미, 2008; 이은주, 2010; Cummins & Lau, 2005)와의 비교를 통한 검토, 전문가 간담회, 연구대상자와의 심층면담 및 예비조사를 통해 유아 및 부모용 설문지를 확정하였다. 뿐만 아니라 교사와 현장전문가에게 유아기 행복감 관련 요인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 설문지를 추가 구성하였다.

가) 유아용 설문지

유아들은 조사원이 1:1 면담을 통해 질문에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응답 시 척도에 해당하는 얼굴 표정이 그려진 그림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먼저 오늘의 기분이 어떠한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하는 것을 연습문항으로 실시한 후 대인관계에 대한 주관적 만족(4문항), 자신이 다니는 기관에 대한 만족(1문항), 전반적인 행복감(1문항) 및 시간 사용에 대한 만족(3문항)을 조사하였다. 다음으로는 유아가 가장 행복했던 때는 언제인지 그리고 더 행복해지려면 무엇이 필요한지(어떤 것을 해야 하는지)를 자유롭게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이 때 응답 내용에 '누구와, 어디서, 무엇을(어떻게)'의 요소가 포함되도록 하여 그 내용을 영유아 행동

분류 기준표(도남희·김정숙·하민경, 2013)에 따라 분류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Cummins와 Lau(2005)의 Personal Wellbeing Index: Pre-School(PWI-PS)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PWI-PS는 전반적인 행복감을 묻는 문항과 물질적 수준, 건강, 성취, 공동체감 등의 7가지 영역에 대해 각각 얼마나 행복한지를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총 8문항).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전문가 검토와 예비조사를 통해 유아가 가장 쉽게 응답할 수 있으며, 부모에게 설문문을 통해 얻기 힘든 문항만으로 구성하기 위해 질문을 간소화하고 내용을 수정하였다. 즉, 본 연구에서는 엄마, 아빠, 친구 및 선생님과의 관계에 대한 만족, 자신이 다니는 기관에 대한 만족 및 전반적인 행복감을 4점 척도로 조사하였다.

시간 사용에 대한 만족은 행복한 아동기 지표(The children's society, 2012)에서 아동기를 대상으로 사용한 문항을 유아기에 적절하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즉, 가족과 보내는 시간, 친구들과 만나는 시간 및 놀이 시간이 어떠한지를 질문한 후 2점 척도(시간이 적다/많다)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나) 부모용 설문지

본 연구에서는 유아를 둘러싼 여러 가지 환경 요인을 파악하고, 유아의 평소 행복감 정도를 알기 위해 부모용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대부분의 문항은 본 연구의 조사내용을 구성하는데 기준으로 삼았던 국내·외 행복 관련 지표에서 사용한 질문 문항을 본 연구에 적절하게 연구진이 재구성한 후 전문가 검토와 예비조사를 통해 확정된 것이다.

또한 부모-자녀 상호작용과 어머니의 행복감 문항은 다음의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유아의 대인관계 영역에서 부모와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Early Childhood Longitudinal Study Kindergarten Cohort(ECLS-K; n.d.)의 Home Environment, Activities, And Cognitive Stimulation(HEQ)의 문항을 사용하여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 간에 상호작용이 얼마나 일어나는지를 조사하였다. 4점 척도의 총 9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와 자녀가 더 많이 상호작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 α 는 .87이었다.

유아 어머니(주양육자)의 행복감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Lyubomirsky와 Lepper(1999)의 Subjective Happiness Scale(SHS)을 사용하였다. SHS는 총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응답 범위는 '아주 불행한 사람이다(1점)'에서 '아주 행복한 사람이다(7점)'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행복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 α 는 .89이었다.

다) 교사와 현장 전문가 설문지

본 연구에서는 유아 및 부모 조사 외에도 교사와 현장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유아기 행복감 정도와 관련 요소들에 대해 조사하였다. 이를 위해 물질적 수준, 신체적 건강, 또래 따돌림, 성인으로부터 학대, 물리적 환경의 안전, 보육·교육 서비스 제공 정도, 과도한 조기 교육, 부모·또래와의 시간, 행복감 정도, 행복감 증진을 위한 정책의 실현 정도 등에 대한 문항으로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또한 부모용 설문지와 동일하게 유아기 행복감 증진을 위해 부모, 기관 및 사회에서 노력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구성하였다. 최종 설문지는 전문가 검토와 연구대상자와의 심층면담 및 예비조사를 통해 확정하였다.

다. 자문회의 및 간담회

유아기 행복감의 연구 방향, 연구 내용과 정책 방안 등을 도출하기 위해 기존에 행복감 연구를 진행했던 전문가를 대상으로 자문회의를 실시하였다. 또한 취약계층 대상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현장 전문가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그들의 사업에 대해 이해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표 1-3-5〉 자문회의 개최 현황

구분	일시	참석자	안건
1회	4월	아동복지학과 교수 영유아보육학과 교수 아동학과 교수	유아기 행복감의 개념과 연구방법
2회	7월	아동가족학과 교수	행복감의 정의와 측정방안 행복감 영향 요인 탐색방법
3회	7월	소아정신과 교수 아동가정복지학 교수 유아교육과 교수	행복지표에서의 행복감 정의 지표영역과 조사내용 구성
4회	8월	사회복지학과 교수	행복감의 정의와 유아에게 적합한 조사방법 취약계층 조사방법
5회	8월	가족복지학과 교수	유아기 행복감의 정의와 조사내용 취약계층 조사방법
6회	12월	사회복지학과 교수 2명 아동학과 교수 2명	유아기 행복감 증진을 위한 정책방안

〈표 1-3-6〉 간담회 개최 현황

구분	일시	참석자	안건
1회	9월	드림스타트 사업 전문가	드림스타트 사업 개요
2회	10월	시소와 그네 관련 전문가	시소와 그네 사업 개요 취약계층의 필요와 지원 방안
3회	10월	대구 SOS 마을	취약계층의 필요와 유아의 행복감
4회	10월	대구시 남구 드림스타트	취약계층에 대한 제도적 지원 방안

라. 심층면담

유아들의 행복감을 이해하고 연령과 발달 단계에 따른 행복감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유아들과 그들의 부모, 육아지원기관의 교사들을 면담하였다. 유아들은 개인 면담과 집단 면담을 병행하여 그들의 개별적인 행복감과 집단적으로 공유하는 행복감 등을 살펴보았다. 또한 유아들의 부모들을 통해서도 유아가 행복감을 느낀 상황을 통해 행복감 관련 요인들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교사들을 통해서도 유아들의 행복감과 관련된 상황과 환경적 요인들을 파악하고자 면담을 실시하였다.

〈표 1-3-7〉 심층면담 실시 현황

구분	일시	참석자	안건
1회	6월	유아 7명, 부모 7명	행복감에 대한 유아와 부모 의견
2회	7월	유아 6명, 교사 4명	행복감에 대한 유아와 교사 의견
3회	9월	교사 2명, 원장 1명	행복감에 대한 교사 의견
4회	10월	드림스타트 이용 부모 1명	취약계층의 행복감에 대한 부모 의견
5회	12월	교사 3명	유아의 행복감 증진방안
6회	12월	부모 3명	유아의 행복감 증진방안

4. 연구의 제한점

가. 연구의 범위

본 연구는 취약계층 영유아 통합적 육아지원방안 연구의 6차년도 사업으로 기존에 진행되어 왔던 일반 취약계층 가정을 대상으로 하되 저소득층에 중점을 두었다. 기존의 취약계층 영유아 통합적 육아지원방안 연구는 1차년도에 탈북가

정 지원 정책의 필요성으로 시작되어 모형 개발 및 시범 적용을 시도하였고, 2차년도에는 개발한 모형의 효과 분석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3차년도에는 모형 매뉴얼을 개발하였다. 4차년도에는 유아기 인성교육 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을 연구하였고, 5차년도는 다문화 가족을 중심으로 한 취약가족의 자녀양육 지원 방안을 연구하였다. 올해는 취약계층 중 구체적으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드림스타트 사업 지역을 중점으로 저소득층 가정을 일반가정에 비해 과대표집하였으며 기관에 다니는 유아를 많이 표집 하였다.

나. 용어의 정의

본 연구에서 행복감(Happiness)은 유아가 전반적인 자신의 생활을 어떻게 인식하느냐는 주관적 인식을 포함한다. 또한 아동의 웰빙(Children's wellbeing)은 국제 지표나 국내 연구에서 사용된 지표들에서 의미하는 아동의 객관적인 삶의 질을 포괄한다.

한편, 본 연구의 저소득층은 최저 생계비 200%미만에 해당하는 가구로 정의하여 한 달 평균소득 270만원을 경계로 저소득층을 구분하였다. 하지만 분석에서는 가계동향조사(통계청, 2012)의 소득 10분위별 가구당 가계수를 활용한 기준금액을 적용하였으므로 한 달 평균 소득이 260만원 이하인 가구가 저소득층, 차상위층을 포함하는 소득 3분위 이하 집단에 해당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의 기준으로 상하 3분위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II. 연구의 배경

1. 행복감(Happiness)

가. 행복감의 정의

유아기 행복감을 정의하고 이해하기 전에 먼저 행복감 또는 행복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행복감은 최근 연구의 주제로서 관심을 받고 있지만, 오랜 시간 철학의 영역이었으며 과학적인 탐구 또는 연구 영역으로서 받아들이기에는 불편함이 있었다. 그러므로 행복감의 초기 연구는 삶의 만족도와 질에 대한 연구로서 경제학이나 사회학자들에 의해 개인의 경제적, 환경적, 또는 사회적 삶의 상황 같은 객관적 삶의 질을 측정하는 것이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심리학자들을 중심으로 객관적인 삶의 질을 측정하는 경제적 또는 사회적인 내용보다는 개인의 주관적이고 내적인 삶의 질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주관적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연구해 왔다. 이러한 연구들을 토대로 삶의 질에 대한 연구들은 주관적 삶의 질(Subjective quality of life), 주관적 안녕감(Subjective well-being), 삶의 만족도(Life satisfaction), 행복감(Happiness) 등의 다양한 용어로 표현되어 왔다(Diener, 1984).

그렇지만 주관적 삶의 질 또는 주관적 만족감 등을 연구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행복이라는 감정, 또는 경험에 대한 조작적 정의가 쉽지 않다는 점, 둘째는 행복을 잘 측정할 수 있는 타당도와 신뢰도를 갖춘 양호한 도구를 갖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서은국·구재선·이동귀·정태연·최인철, 2010). 하지만 최근 행복감에 대한 관심과 활발한 연구의 증가로 과거 어느 때보다 행복감에 대한 개념과 구성요인에 대한 합의가 진행되어 오고 있다.

행복은 모든 인간이 바라는 열망으로서 사전적(국립국어원, n.d.)으로는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어 흐뭇함 또는 그러한 상태'를 의미하고 행복감은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는 마음 또는 그런 느낌'을 의미한다. 하지만 행복감을 이러한 상태로 정의한다고 해도 실제로 행복감을 측정하거나 무엇인지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쉽지 않다.

최근 발표된 세계 행복 보고서 2013(Halliwell, Layard, & Sachs, 2013: 3)에

따르면, 행복은 두 가지로 사용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정서적(Emotion) 의미로, 두 번째는 평가(Evaluation)의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 다시 말해, ‘지금 행복한지’에 대한 감정으로서의 행복감과 ‘전반적인 생활이 행복한지’에 대한 삶의 만족으로서의 행복감으로 사용된다. 실제로 사회적 발전과 성취에 의해 느껴지는 행복감과 이와는 다른 정서상의 행복감은 서로를 반영하지 못할 수도 있다. 다시 말해, 자신의 생활이 나아져서 느끼는 행복감도 있지만 생활이 궁핍하여 힘들더라도 생활하면서 느끼는 정서상의 행복감도 있다. 그러므로 행복감은 삶에 대한 만족감(Life satisfaction)과 정서(Emotion)의 두 가지 요소를 함께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행복감은 주관적 웰빙(Subjective wellbeing)과 더 가까운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겠다(서은국 외, 2010; Halliwell, Layard, & Sachs(eds.), 2013: 113-114; OECD, 2013: 29).

나. 행복감의 내용과 측정

행복감은 앞서 논의했듯이 행복감을 어떻게 정의 하느냐에 따라 내용을 구성하는 요인도 달라진다. 행복감은 객관적 삶의 질에 대한 판단과 이에 대한 주관적 정서를 함께 반영한다고 하였는데, 그에 따라 자신의 행복감이 느껴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개념의 두 가지 의미에도 불구하고 행복감 또는 주관적 웰빙(안녕감)의 정의는 학자마다 다양하다.

Diener(1984)는 ‘자신의 삶에 대한 인지적, 정서적 평가로 순간적인 감정이나 기분이 아닌 상대적으로 지속적인 안녕감’이라고 하였다. Ryff와 Keyes(1995)는 기존의 연구들이 정서적인 안녕감에만 초점을 두어 다양한 측면의 기능을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심리적 안녕감(Psychological well-being)’이라는 개념을 제안하였다. 또한 심리적 안녕감이 여섯 가지 영역 즉 자아 수용, 타인과의 긍정적 관계, 자율성, 환경에 대한 지배감, 인생의 목표, 개인적 성장으로 구성되었다고 제시하고 이와 관련된 심리적 기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최근에 Keyes(2006)는 주관적 안녕감을 정서적 안녕감, 심리적 안정감, 사회적 안정감의 3요인으로 구성된 13차원으로 평가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행복감에 대한 요인을 정의하고 구성하는 일은 쉽지 않다. OECD 주관적 웰빙 측정에 대한 가이드라인(OECD, 2013: 125-128)에서는 주관적 웰빙 측정 시 방법론적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 있다.

첫째, 주관적 웰빙을 측정하는 문항이나 설문지를 개발할 때에는 문항에 사

용되는 단어 및 실제 경험에 대해 정확한 응답을 얻기 위한 조사 기간에 주의 를 기울여야 하고, 응답 형식의 다양성, 응답 범주, 정서를 평가하기 위한 단축 (연속) 척도 사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둘째, 질문 순서와 전후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 민감한 사항이 포함된 질문과 행복감 평가 질문이 함께 배치할 때 결과에 있어 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므로 서로 거리를 두어야 한다. 또한 질문 내에서도 문항의 순서는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일반적인 내용에서 구체적인 내용으로, 긍정적인 정서를 다루는 문항에서 부정적 정서 문항으로 전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조사 방법과 시기이다. 여러 가지 형태의 조사를 실시하면 그만큼 서로 다른 자료를 얻게 되므로 주의하여야 하며, 혼합된 조사 방식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자료들을 비교 가능하도록 정리하는 일이 중요하다. 또한 조사 시기에 어떤 사건이 생기느냐에 따라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넷째, 반응 양식은 국가 간에 혹은 한 국가 내에서도 집단 간에 서로 다를 수 있으며 이는 자료의 해석에 영향을 끼친다. 따라서 반응 양식의 차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조사 설계를 적용하여 해석에서의 오류를 예방하여야 한다.

또한 연구 대상 선정, 조사 및 질문지 설계 등 실제 주관적 웰빙을 측정함에 있어 다루어야 할 내용(OECD, 2013: 16-18)을 소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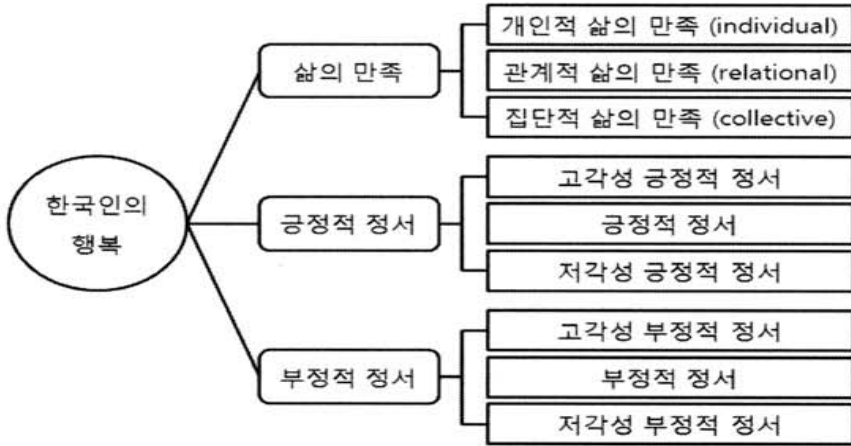
첫째, 조사 및 연구대상 설계에 있어서 먼저, 연구 대상을 분명히 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주관적 웰빙의 측정은 가족이나 가구 대상으로 실시할 수 없다. 한 개인의 주관적 웰빙은 자기 자신이 응답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표본의 크기는 비교적 많은 수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전화 면담, 컴퓨터를 이용한 면담 등 다양한 조사 방법 중 적절한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둘째, 질문지 설계에 있어서는 질문의 위치, 문항의 순서를 비롯하여 질문지 전체 내용, 문항 번역 및 선택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야 한다.

셋째, 조사를 실행 단계에서는 질 높은 응답을 얻기 위해 조사자 혹은 면담자의 훈련이 아주 중요하다.

최근 서은국 외(2010)는 한국심리학회에서 한국인의 행복지수를 파악하고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기 위해 행복지수를 발표한 바 있다. 이전에도 다른 연구자들이 행복지수를 구성하기도 하였지만, 서은국 외(2010)에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측정한 행복지수는 Diener와 Suh(2000)가 제시하는 행복 경험에 대한 본질을 바탕으로 삶의 만족,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 관련 9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고

삶의 만족에서는 개인적, 관계적과 집단적 삶의 만족감에 대해 물었다. 한국인의 행복감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그림 II-1-1 참조).



자료: 서은국 외(2010). 한국인의 행복 지수와 그 의미. p.215. 그림1.

[그림 II-1-1] 한국인의 행복 지수 구성

다. 아동의 행복감 측정

아동의 웰빙(Well-being)에서 아동의 삶의 질을 평가하는 지표와 개념상의 정의는 단순한 듯하지만, 아동의 웰빙을 측정하기 위한 고유하고 보편적인 측정방식이 없다. 기본적으로 아동의 웰빙(Well-being)을 정의하고 측정하는 두 가지 접근방식이 있는데, 첫째는 다차원적 개념의 복지로서 아동의 정신적·물리적·사회적 차원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접근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은 아동이 관계되어 있는 다양한 차원들을 종합적으로 포괄하려고 한다. 아동의 경제적인 조건, 또래관계, 정치적 권리, 발달을 위한 기회 등과 같은 사회문화적인 조건들을 비롯하여 아동의 가난과 물질적 박탈감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측정하고자 한다. 두 번째의 관점은 아동의 주관적 개념의 복지를 측정하려는 것으로 아동들이 그들의 복지를 어떤 관점으로 보는지 직접적으로 묻는 접근 방식이다. 아동 스스로가 지각하는 복지에 초점을 맞춘 접근 방식으로, 아동들이 스스로의 웰빙을 자유로이 표현하는 것과 판단을 회피하는 것 모두를 허용하고자 한다

(OECD, 2009b: 24; Land, Lamb, Meadows, & Taylor, 2007: 108-109).

그런데, 다차원적인 개념으로 웰빙을 다루는 몇몇 접근들은 아동의 주관적 관점의 웰빙을 전혀 다른 차원의 관점으로 분리하여 살피기보다는 포괄적으로 측정하려고 한다. 한편, 아동의 주관적인 관점으로 웰빙을 측정하는 것의 제한점은, 어린 아동들이 자신들의 견해와 답을 구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Halliwell, Layard, & Sachs(eds.), 2013: 24).

그러므로 두 가지 접근방식 중 어느 한 가지를 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동의 복지 증진에 초점을 둔 다양한 요소들이 고려된 지표를 통해, 아동의 웰빙 개념이 정립되고 국가 간 비교를 통해 정책적 방향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일반적으로 발달주의자들은 내일의 웰빙을 위해 인간자본과 사회적 기술을 축적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며 앞으로의 웰빙을 준비하는데 웰빙 연구의 목적을 둔다. 그러나 아동 권리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웰빙은 지금 이 순간 아동이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오늘날의 아동의 웰빙이 아동의 미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는데 아동기의 학대 경험은 현재의 웰빙을 저해할 뿐 아니라 성인이 되어서도 커다란 상처로 남게 되는 것이 그 단적인 예이다.

그러나 달리 보면, 오늘날의 웰빙과 미래의 웰빙은 하나를 얻으면 다른 하나는 잃게 되는 관계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친구와의 놀이를 선택한 아동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학교에서 교육받는 시간을 포기해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관점을 숙지하고 아동들의 웰빙을 논할 필요가 있다(OECD, 2009b: 25).

Ben-Arieh(2008)는 아동의 웰빙을 연구하기 위한 지표를 개발하는데 있어 연구자가 고려해야하는 기준과 실제로 지표를 통해 연구결과를 얻는데 영향을 주는 변인을 연구했다. 그리하여 정책으로 반영되는 의미 있는 지표를 개발하기 위해서 고려해야할 문제들을 제안했다(표 II-1-1 참조). 한편 이러한 지표를 만들고 이를 적용하는데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서는 데이터의 실현 가능성, 비판에 대한 취약성, 동의의 가능성, 전략적 의사소통의 능력, 중재자의 영향, 지속가능한 노력을 위한 준비도, 정치적 연합, 경제적 조건과 이데올로기적 분위기 등을 제시하고 있다. 즉, 실제로 지표가 측정할 내용들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영향요인들과 많이 부합될수록 정책과정에서 반영되어질 가능성이 증가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아동의 웰빙을 측정하는데 효과적인 지표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다섯 가지의 문제들을 생각하면서 지표를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Ben-Arieh, 2008: 44-47). 첫째, 가장 핵심적인 측정결과를 나타낼 지표이어야 한다. 둘째, 정책을 개발하는데 영향력을 나타낼 지표인가를 물어야 한다. 셋째, 어떻게 개발될 지표를 마케팅 할 것인가(실효성 관련)이다. 넷째, 어떻게 지표가 대중의 견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가를 알아본다. 다섯째, 아동의 웰빙을 정의하고 비교하는데 효과적이고 보편적인 매트릭스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표 II-1-1〉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아동 웰빙 지표를 만드는 기준

기준	설명
아동 웰빙의 중요도	지표는 아동의 웰빙을 위한 중요한 결과와 관련 있어야 하며 포괄적이어야 한다.
적용성	지표는 현재의 아동의 웰빙을 측정해야하며 미래를 모니터링하는데 기초가 되어야 한다. 또한 현존하는 정책 및 프로그램의 결과를 분석할 수 있어야한다.
명확성	복잡한 통계적 측정을 지양하며 신뢰성 있는 연구를 위해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어야 한다.
개념적 타당성과 정확성	웰빙 의미에 대한 의견 불일치와 아동웰빙연구의 기초체계의 부족은 모호하게 결론 나거나 지나치게 단순화되지 않은 이론 근거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공정성	전문연구단체와 정책결정자가 공정하고 정확하며 편견이 없는 지표로 인정할 수 있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개발된 지표가 지식을 얻는 도구로 사용되기 보다는 지표자체에 대해 논란이 일어날 수 있다.
출처자료들과 결과의 관계	지표는 아동의 현재 상태를 나타내는 정보와 현존하는 정책 및 프로그램의 결과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정책과의 관련성	지표는 정책변수들을 토대로 개발되어야 한다.
정책결정자에 대한 호소력	지표는 모든 레벨의 결정자들에게 호소력이 있어야 하며 이는 사회 정치적 기관을 아우르는 호소력이다.
미디어와 옹호집단에 대한 호소력	지표는 미디어와 옹호집단이 이해할 수 있을 만한 것이어야 하며, 이는 지표로 인해 얻어지는 데이터가 대중에게 알려질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접근성	지표는 공공이든 사적이든, 어떤 레벨이든 책임을 질 에이전시에 의해 자료가 모아져야하고 이들에게 이용가능 해야한다.
추정에 대한 어려움의 정도	지표는 합의되지 않은 신념과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이들의 삶을 돕는데 부정적인 고정관념에 반해야한다.

자료: Ben-Arieh(2008). Indicators and indices of children's well-being: towards a more policy-oriented perspective. pp.39-40 내용을 정리 재구성함.

2. 유아기 행복감

가. 유아기 행복감의 정의

앞서 서술했듯이 행복감의 정의와 측정에 대한 논의도 오랜 기간을 거쳐 합의에 이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최근 청소년 또는 아동 대상으로 웰빙이나 주관적 웰빙은 국제기구나 세계적인 조사를 통해 주로 진행되어 왔으며 주관적 행복감은 아동의 삶을 살펴보는 주요한 영역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리하여 행복감은 오히려 주관적 웰빙이나 주관적 만족감과 더 의미가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개인적인 평가를 수반한다고 한다.

최근 UNICEF(2013a)의 선진국에서의 아동 웰빙에서도 볼 수 있듯이 초기 지표의 6개 지표(물질적 풍요, 건강과 안전, 교육적 성취, 가족과 친구들의 관계, 위험행동, 주관적 행복감)의 하나였던 주관적 행복감을 따로 분리하여 조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영국의 요크대와 Children's Society에서는 아동의 주관적 행복감 자체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여 아동 본인(Self), 관계(Relationship), 환경(Environment)의 세 영역에서 만족도를 삶의 질로 측정하여 10개의 지표로 구성하였다.

그러나 이는 모두 아동이나 청소년 대상의 지표이거나 국외연구이므로 국내 선행연구를 통해 유아를 대상으로 한 행복감을 개념화할 수 있는 내용을 추출할 필요가 있다. 이에 국내에서 유아와 아동을 대상으로 진행된 행복감 연구를 중심으로 유아기 행복감에 대한 개념 접근을 하고자 한다.

먼저, 김도란과 김정원(2008: 312-313)에 따르면, 유아의 행복감은 “부모와 가족, 친구와 교사 등과의 관계나 취미활동이나 여가 생활 그리고 놀이와 같은 일상적인 생활경험을 통해 자신의 일과 행동에 대해 만족감과 뿌듯함을 느끼는 상태”로 정의할 수 있다. 또한 김연화와 강문희(2008: 3)는 “아동이 일상생활에서 주관적으로 지각하는 긍정적인 정서 상태 및 생활에 대한 만족감”을 행복으로 정의하였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전미경과 장재숙(2009: 105)은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환경과 아동의 내적 요인까지 포함시켜 행복감을 “생활환경, 자아특성, 대인관계, 생활 만족 등 삶의 전반에서 느끼는 긍정적이고 만족스러운 감정”으로 정의하였다.

장영욱(2009: 453)은 웰빙 또는 주관적 행복감의 여러 개념을 기반으로 행복감을 “일상생활에서 주관적으로 지각하는 긍정적인 정서의 상태 및 생활에 대

한 만족감”으로 정의하였으며, 이정화(2005)의 측정도구로 조작적 정의를 내려 유아의 행복감을 가정환경, 자아특성, 능력, 대인관계 등 유아가 일상생활에서 직접 경험하는 긍정적 정서 혹은 만족한 생활 감정으로 설명하였다.

나. 유아기 행복감의 내용과 측정

유아기 행복감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김도란(2008)은 이정화(2005)가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개발한 도구를 유아 수준에 적합한 내용으로 수정한 후 4개 영역으로 행복감을 정의하고 구분하여 총 30개의 문항을 유아가 응답하도록 제시하였다. 조사 실시의 경우, 한 유아 당 검사 시간은 10~20분 정도 소요되었고, 면접자가 유아에게 각 질문을 읽어주고, 그에 대해 ‘매우 그렇다’면 웃는 얼굴 4개, ‘그렇다’면 웃는 얼굴 1개, ‘그렇지 않다’면 찡그린 얼굴 1개, ‘전혀 그렇지 않다’면 찡그린 얼굴 4개를 선택하게 하는 4점 평정 방식을 사용하였다.

〈표 II-2-1〉 유아행복 척도의 구성요소 비교

구분	구성요소	조사 대상
이은주(2010)	몰입, 건강, 영성, 또래관계, 교사관계 인지 및 성취, 정서, 부모관계	교사
김도란(2008)	가정환경, 자아특성 능력, 대인관계	유아

한편 이은주(2010)는 유아행복의 구성요소에 관한 다수의 학자들의 이론적 근거에 의해 유치원 교육과정과 표준보육과정을 기초로 제작한 유아행복척도를 사용하였다. 구성요소로는 유아의 행복 정도를 몰입, 건강, 영성, 또래관계, 교사관계, 인지 및 성취, 정서, 부모관계, 생활만족으로 이루어진 9개 하위요인의 총 36문항으로 평정하는 교사용 질문지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항상 그렇다(5점)’의 5점 척도 점수가 높을수록 유아가 유아교육기관에서 긍정적으로 적응하고 조화를 이루는 등 행복한 것으로 여겨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세희와 장순미(2008)는 유아의 행복에 대한 개념 연구로서 그림책 읽기 및 관련활동(일상경험에 대한 토의)을 통해 유아의 행복에 대한 개념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표 II-2-2>와 같이 유아의 행복 개념을 분류하였다.

〈표 II-2-2〉 김세희와 강순미(2008)의 행복의 개념 분류표

범주	항목	유아들의 응답의 예
편안함	몸의 편안함	(따뜻한 곳에서) 맛있는 거 먹는거요, 잠자는 거요, 밥 먹고 운동하는 거요.
	마음의 편안함	좋은 생각하는 것, 마음이 기쁜 것, 음악을 듣는 것
긍정적 대인 관계	사랑(감정, 행동)을 주고 받는 것	좋아하는 것, (서로)사랑하는 것, 엄마가 안아주는 것 결혼하는 것
	물질을 주고 받는 것	발렌타인 때 초코렛 주는 것(받는 것), 사탕주는 것 엄마에게 목걸이를 만들어 주는 것, 맛있는 것을 나누어 먹는 것, 네 잎 크로바를 꺾어서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
	도움을 주는 것	물건을 옮겨 주는 것, 아픈 사람을 고쳐주는 거요.
	격려나 칭찬을 주고 받는 것	(엄마가) 사랑한다고 말할 때요., 다른 사람을 막 기쁘게 하는 것
개인적 성장 과 삶의 목적 추구	몰입경험	(머나먼 곳으로)여행을 다니는 것이 행복할 것 같아요. (베틀가) 큰 점 작은 점 막 그려보는 거요.
	자아실현 (과정)	축구선수(수학 선생님)가 되면 행복할 것 같아요.
	타인의 행복산출	영화를 멋지게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 주는 거요. (박태환 선수처럼)사람들을 행복하게 했을 때 행복할 것 같아요. 제가 화가가 되어 아름다움을 전해주는 거요.

김성숙(2013)은 유아들이 행복의 의미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각 질문들을 단계적으로 제시하여 유아가 인식하는 행복의 의미를 탐색하였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심상적인 이미지로 표현하는 그림 그리기가 적절한 방법이라 판단하여 유아로 하여금 충분한 시간을 주고 행복에 대한 이미지를 자유롭게 그림으로 표현하도록 하여 유아들의 행복에 대한 생각을 알아보았다.

〈표 II-2-3〉 김성숙(2013)의 행복의 의미에 대한 분석 범주

범주	하위 범주
물질이 주는 행복 (물질적 풍요 = 행복)	좋은 장난감과 예쁜 옷: 부 맛있는 음식: 포만감
기분이 주는 행복 (좋은 기분 = 행복)	하하하, 까르르: 유쾌함 살포시 짓는 미소: 즐거움 여유 있는 일상: 편안함
관계가 주는 행복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친밀한 관계 = 행복)	가족의 존재: 사랑 친구와의 관계: 우정 선생님의 관심: 친밀함
보람이 주는 행복 (일상에서 느끼는 보람 = 행복)	타인을 위한 마음: 뿌듯함 힘든 일: 성취감 재미있는 놀이: 몰입

마지막으로 황해익·김미진·탁정화(2013)는 만 5세 유아가 인식한 행복한 상황과 행복의 조건을 조사하였는데, 그림 그리기, 그림에 대한 묘사, 개별면담을 통해 유아가 인식한 행복한 상황과 행복의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다.

〈표 II-2-4〉 황해익 외(2013)의 행복한 상황에 대한 분석범주

범주	내용
놀면서 자라고 놀면서 즐거운 행복	무대에서 뛰어놀 때, 연 날리기를 할 때, 달리기를 할 때, 수영할 때, 축구와 농구를 할 때, 모래놀이를 할 때, 옷놀이를 할 때
행복한 상황	아빠가 목마를 태워줄 때, 엄마가 만든 떡국을 먹을 때, 엄마 아빠랑 같이 있을 때, 친구랑 있을 때, 동생을 돌볼 때, 친구 벅살을 만질 때
하고 싶은 일에 몰입하며 느끼는 행복	책보기를 할 때, 실뜨기를 할 때, 장기를 둘 때, 종이접기를 할 때, 수농기를 할 때
정해진 규율에서 벗어나 새로운 변이로 이끄는 행복	이불을 뺏 찼을 때, 방문 잘 때, 잠자면서 가족을 괴롭힐 때
힘들어도 참고 어려워도 건디면 찾아오는 행복	금메달 받았을 때, 받아쓰기 100점 받았을 때, 구구단 외울 때
행복 조건	가족, 건강, 돈, 교육
내적인 행복 조건	양보하기, 돕기, 감사하기

다. 유아기 행복감의 관련 요인들

유아기 행복감과 관련된 요인을 살펴본 연구는 많지 않지만, 유아기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초점을 두어 유아의 특성, 부모의 특성, 기타 경험 등으로 나누어 선행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유아 특성

유아기 행복감에 차이를 가져오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먼저 유아의 개인 특성을 들 수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유아의 행복감은 연령과 성별 뿐만 아니라 부정적 정서성, 자아탄력성 등과 관련이 있다.

먼저, 유아의 연령과 행복감 간의 관계를 다룬 연구들(강영욱, 2009; 권기남·성미영, 2010; 김도란·김정원, 2008)을 살펴보면 그 결과가 일관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권기남과 성미영(2010)은 초등학교의 경우 학년이 올라갈수록 행복감 수준이 계속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조성연·신혜영·최미숙·최혜영, 2009) 결과에 기초하여 연령별 발달의 차이가 이후의 다른 시기에 비해 빠르게 진행되는 유아기에도 행복감에 있어 연령차가 나타날 것이라 가정하고 이를 살펴보았으나 만 4세와 5세의 경우 연령에 따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 4, 5세 유아를 대상으로 한 김도란과 김정원(2008)의 연구에서도 연령에 따른 행복감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만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행복감을 살펴본 강영욱(2009)은 만 3세 유아의 행복감 평균 점수가 4, 5세 유아보다 낮다고 보고하였으며, 행복감과 유사한 개념인 생활만족도를 살펴본 남덕임(2004)의 연구에서는 4세 유아보다 5세 유아보다 생활만족도가 높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유아와 초등학교 아동의 행복상황 및 판단에 대해 조사한 정계숙·최은아·강인설(2008)의 연구에서는 유아들이 초등학교 아동에 비해 자신을 더 행복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유아의 성별에 따른 행복감의 차이를 분석한 연구들(강영욱, 2009; 권기남·성미영, 2010; 김도란·김정원, 2008)을 살펴보면 유아의 연령과 마찬가지로 그 결과들이 일치하지 않다. 권기남과 성미영(2010)에서는 행복감의 하위영역인 자아특성 영역에서 남아와 여아 간에 차이가 있었으며, 남아의 자아특성 행복감보다 여아의 자아특성 행복감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는 만 5세 여아의 행복감이 남아보다 높다고 보고한 전은옥과 최나야(2013)의 연구 및 초

등학교 5, 6학년 남녀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행복에서의 성차를 살펴본 강영하(2012)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이다. 하지만 다른 선행연구들(강영옥, 2009; 김도란·김정원, 2008; 조정서·남기원, 2011)에서는 유아의 성별에 따라서는 행복감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셋째, 유아의 행복과 관련된 요인으로 유아의 기질 중 정서성을 들 수 있다. 권연희(2013)는 만 4, 5세 유아를 대상으로 그들의 행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개인 내적 요인으로 기질적 특성인 부정적 정서성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기질적으로 잘 울고 화를 내는 등과 같은 부정적 정서 성향이 높은 유아일수록 유아교육기관에서 덜 행복한 것으로 평가되었다고 보고하였다. 한편 유아가 아닌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그들의 정서성과 행복감을 살펴본 연구들(안진, 2009; Hoder & Klassen, 2010)에서도 정서성과 행복감은 깊은 관련이 있음을 동일하게 보고하고 있다.

넷째, 조정서와 남기원(2011)의 연구에서는 행복감의 하위영역인 가정환경, 자아특성, 능력, 대인관계영역 모두에서 자아탄력성의 하위영역인 개인 유능감, 자신과 삶에 대한 수용성과 높은 수준의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유아의 행복감과 자아탄력성이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와 유사하게, 유아의 행복을 위한 유아교육과정의 방향을 제시한 마송희(2012)는 유아를 행복하게 기르기 위해서는 유아가 스트레스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 즉, 자아탄력성을 길러주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한편 유아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과 대인간 문제해결 전략이 부분적으로 유아의 행복감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결과(권기남·성미영, 2010)도 있으나 이러한 유아의 행동 특성들과 유아의 행복감 간의 명확한 관계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2) 부모 특성

유아기 행복감과 관련된 부모 특성으로는 부모의 학력과 소득, 어머니의 취업 여부, 부모의 행복감, 부모의 양육행동, 양육효능감, 우울 등과의 유아의 행복감 관계를 다룬 선행연구들이 있으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김경훈·김형재·이은림(2013)은 아버지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유아의 행복감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려고 하였다. 그 결과, 학력에 따라서는 대졸 학력의 아버지의 자녀가 고졸 학력의 아버지의 자녀보다 행복감이 더 높았으며, 소득수

준에 따라서는 소득이 높을수록 자녀의 행복감이 높았고, 직업에 따라서는 아버지의 직업이 전문직이거나 자영업인 경우 서비스직, 사무직, 관리직, 기술직보다 자녀의 행복감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아버지의 학력, 소득수준, 직업 간에 상호작용을 통해 자녀의 행복감에 차이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도란과 김정원(2008)의 연구에서도 이와 유사한 결과를 보고하고 있는데 아버지의 학력이 대졸 및 대학원 이상인 유아들이 지각하는 행복감은 고졸이하와 전문대졸 학력을 가진 아버지의 유아들보다 높았다. 어머니 학력의 경우 행복감의 하위영역인 대인관계에서만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다. 가정의 월 평균 소득에 따라서는 행복감의 하위영역 중 능력, 대인관계 영역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어머니의 취업 여부도 유아의 행복감 관련 요인으로 다루어지는데, 전은옥과 최나야(2013)의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취업 여부에 따라 유아의 행복감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록 유아가 아닌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지만 임미지와 문혁준(2011)의 연구와 동일한 결과이다. 하지만 정현정과 문혁준(2011)은 비취업모의 자녀(초등학교 5, 6학년)가 취업모의 자녀보다 행복감의 대부분 하위영역에서 더 높은 점수를 보인다고 보고한 바 있다.

발달지체유아의 행복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을 조사한 연구(박재국·서보순·최은실·박희경, 2012)에서는 어머니의 연령, 학력, 소득수준, 맞벌이 여부 등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소득수준이 높은 어머니 집단이 부모의 경제력, 사회·교육·문화, 여가와 같은 행복감의 외적 요인과 가족과의 원만한 관계, 대인관계와 같은 관계요인, 성취 및 자기수용, 긍정적 정서와 같은 심리적 요인에서 자녀의 행복감을 더 높게 인식하였다.

한편, 유아의 행복감과 부모의 행복감 간의 관계를 연구한 김도란과 김정원(2008)은 생태학적 모형에서 영유아 및 아동의 긍정적인 정신건강을 설명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들 중의 하나로 부모를 포함한 가정과의 관련성을 제시하는 것(안동현, 2008)을 강조하면서 유아의 행복감과 부모의 행복감 간에 정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혔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유아기의 행복감에 대한 보다 명확한 이해를 가능하게 하는 연구와 행복감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시킬 수 있는 방안 모색에 관한 사회적 차원에서의 논의가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뿐만 아니라 유아와 부모의 행복감 향상 방안을 개별적으로 모색하기보다는 가족이라는 보다 큰 틀 안에서 가족구성원 모두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

고 사회적 체계 내에서 조직적으로 구성되어 이루어지는 가족지원 방안을 모색해야함을 제언하였다.

전은옥과 최나야(2013)도 어머니의 행복감이 유아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으로 보았으며, 특히 이들 간의 관계에서 양육효능감의 매개효과를 밝히고자 하였다. 만 5세 유아들과 그들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조사하여 분석한 결과,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중 학습지도 능력과 건강관리 능력이, 어머니의 행복감 중 가족관계와 자립 및 성장에 대해 느끼는 행복감이 유아의 행복감과 깊은 관련이 있었으며, 양육효능감은 어머니와 유아의 행복감을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연희(2013)는 유아의 행복에 대한 어머니의 우울 및 양육행동의 영향을 살펴보았다. 특히 유아의 행복에 유아의 기질적 요인이나 어머니의 내적 요인인 우울이 영향을 미칠 때 양육행동이 조절 혹은 매개역할을 할 수 있음을 밝히고자 하였다. 그 결과, 유아의 행복에 대하여 정서성과 어머니의 거부-방임 양육행동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유아의 정서성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은 어머니의 거부-방임 양육행동의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어머니의 우울이 자녀의 행복감과 깊은 관련이 있지만 이들의 관계는 어머니의 온정-격려 및 거부-방임 양육행동에 의해 매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유아의 행복에 있어 유아 및 부모의 개인 내적 요인도 중요하지만 유아와 어머니의 관계적인 맥락의 영향을 반드시 고려해야함을 보여주는 바이다.

3) 환경 특성

유아나 아동이 경험한 기관의 관련 변인이 이들의 행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20~40개월의 가정과 기관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에 대한 행복감을 조사한 결과, 가정에서 하는 어린이집의 유아가 코티솔 수준이 낮고 행복감이 높았다고 한다. 또한 이러한 가정 어린이집의 양육자는 민감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Groeneveld, Vermeer, Van IJzendoorn, & Liting, 2010). 또한 그림책을 이용한 방과후 활동에 대해 실험집단과 통제 집단을 대상으로 사후검사를 통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 본 연구(김정원·이정아, 2010)에서 유아의 행복감의 각 하위영역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초등학교 저학년 방과 후 교실 아동의 행복감과 놀이성과 스트레스 하위요인들과의 관계를

알아본 결과 행복감이 높은 아동이 교사와 학교 관련 스트레스가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다(김정원·이정아·이인경, 2010).

아동이 어떤 생활경험을 했느냐에 따라 아동이 지각하는 행복감 역시 달라질 수 있는데, 정계숙 외(2008)에 따르면, 아동은 전반적으로 누군가와 관계하여 경험을 하는 관계적 경험보다 자신이 개인적으로 보상을 받거나 일상이나 비일상적 활동을 하는 것을 통해서 행복을 더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동은 성취, 물질적 보상, 휴식, 컴퓨터 게임, 상황변화, 의미 있는 날과 같은 상황에서는 개인적 경험을 통해 행복을 더 많이 경험하였고, 정서적 보상, 놀이, 여행상황에서는 개인적 경험보다 관계적 경험에서 행복을 더 빈번히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김연화와 강문희(2008)에 따르면, 아동은 개인취미 활동을 할 때, 부모와 함께 있을 때, 아동의 방과 거실이 있는 집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금까지 가장 행복했던 경험으로는 가족과의 활동경험을 꼽았다.

Ⅲ. 행복감 관련 지표와 정책 현황

1. 행복감 관련 지표

가. UNICEF 아동 웰빙(Well-being) 지표

UNICEF의 아동 웰빙 지표(Child well-being indicator)는 아동의 복지증진 필요성이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대표적인 경제 선진국들의 아동 복지를 비교 분석하여 아동 복지수준의 기준과 향후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된 연구이다.

국제적인 측정과 비교는 각 국가가 지니는 강점과 제한점의 지표가 되며 이러한 비교를 통해 국가별 아동복지의 차이는 모든 국가에 있어서 아동복지를 개선하기 위해 참고할 수 있는 광범위하고 현실적인 지침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각 국에 대한 복지점수 비교는 각 영역별로 측정된 순위들의 평균을 비교하는 것에 그쳤는데, 이는 자칫 광범위한 정책적 대응을 필요로 하는 다차원적 주체로서의 아동복지를 저해할 수 있고 전체는 부분의 합보다 적을 수 있다는 판단에 기인한다. 일부 선진 국가들의 경우 복지 영역에 따라 순위에 큰 차이를 보이기도 했는데, 이는 아동복지의 5가지 하위 영역 중 한 영역만으로는 전반적인 아동복지를 대표하거나 대체할 수 없다는 의미로 보여 진다. 아동 복지에 대한 이해, 모니터링, 그리고 정책의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복지에 대한 다각적인 접근이 필수적이다.

선진국 아동의 웰빙 지수를 비교하기 위해 총 6가지 차원에서 지표를 구성하였다. 여기에는 물질적 웰빙(Material well-being) 건강과 안전(Health and safety), 교육(Education), 행동과 위험(Behaviour and Risks), 주거와 환경(Housing and Environment), 주관적 웰빙(Subjective well-being)이 포함되며, 이를 구성하는 구체적인 지표는 <표 III-1-1>과 같다. <표 III-1-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러한 6가지 영역 및 세부지표는 초기 지표와 비교하면 일부 수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III-1-1〉 UNICEF 아동 웰빙 지표

차원	구성요소	지표(2013)	2007년
물질적 복지	화폐적 박탈	- 상대적 아동 빈곤율 - 아동빈곤차이	○
	물질적 박탈	- 아동 박탈률 - 가족의 풍요율	
건강과 안전	출생 시 건강	- 영아 사망률(0~1세) - 저체중아(2.5kg미만) 비율	○
	예방 의료서비스	- 전반적 예방접종 아동비율	
	아동사망률	- 아동사망률(1~19세)	
교육	교육 참여	- 영유아교육 참여율 - 15~19세 교육 참여율 - NEET 15~19세 아동비율	○
	교육 성취	- 읽기, 수학, 과학 평균 PISA - 성적	
행동과 위험	건강행동	- 과체중 아동비율 - 아침 식사하는 아동비율 - 매일 과일 먹는 아동비율 - 신체활동 아동비율 - 10대 출산율	○
	위험행동	- 흡연 비율 - 음주 아동비율 - 대마초 흡연비율	
	폭력 노출경험	- 12개월간 싸움을 한 아동비율 - 2개월간 왕따 당한 아동비율	
	주거와 환경	- 가구원 1인당 방수 - 주택문제	
주관적 웰빙	안전한 환경	- 살인 사건율 - 공해정도	(없음)
	삶의 만족도	- 삶의 만족정도	○
	인간관계	- 부모의 대화정도 - 반친구와의 관계	○ (관계 영역)
	주관적 교육	- 학업스트레스 - 학교생활 만족도	○
	주관적 건강	- 주관적 건강상태 - 건강관련 신체증상	○

자료: UNICEF(2013a). Child well-being in rich countries: A comparative overview.
 UNICEF(2013b). Children's subjective well-being in rich countries.
 UNICEF(2007). Child poverty in perspective: An overview of child well-being in rich countries.

2007년에는 물질적 웰빙, 건강과 안전, 교육적 복지, 관계, 행동과 위험, 주관적 웰빙으로 구성되어서 총 6가지 영역으로 구성되기는 하지만 현재와는 달리

관계 영역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UNICEF(2013b)에서는 이를 제외하여 주관적 웰빙을 단일 영역으로 다루고 있다. 이는 주관적 웰빙은 나머지 5가지 객관적인 차원이 나타내는 일반적인 복지 지표와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III-1-2〉 유니세프 아동 웰빙 지수 국제비교 순위

		전반적인 웰빙	물질적 웰빙	건강과 안전	교육	행동과 위험	주거와 환경
1	네덜란드	2.4	1	5	1	1	4
2	노르웨이	4.6	3	7	6	4	3
3	아이슬란드	5	4	1	10	3	7
4	핀란드	5.4	2	3	4	12	6
5	스웨덴	6.2	5	2	11	5	8
6	독일	9	11	12	3	6	13
7	룩셈부르크	9.2	6	4	22	9	5
8	스위스	9.6	9	11	16	11	1
9	벨기에	11.2	13	13	2	14	14
10	아일랜드	11.6	17	15	17	7	2
11	덴마크	11.8	12	23	7	2	15
12	슬로베니아	12	8	6	5	21	20
13	프랑스	12.8	10	10	15	13	16
14	체코 공화국	15.2	16	8	12	22	18
15	포르투갈	15.6	21	14	18	8	17
16	영국	15.8	14	16	24	15	10
17	캐나다	16.6	15	27	14	16	11
18	오스트리아	17	7	26	23	17	12
19	스페인	17.6	24	9	26	20	9
20	헝가리	18.4	18	20	8	24	22
21	폴란드	18.8	22	18	9	19	26
22	이탈리아	19.2	23	17	25	10	21
23	에스토니아	20.8	19	22	13	26	24
23	슬로바키아	20.8	25	21	21	18	19
25	그리스	23.4	20	19	28	25	25
26	미국	24.8	26	25	27	23	23
27	리투아니아	25.2	27	24	19	29	27
28	라트비아	26.4	28	28	20	28	28
29	루마니아	28.6	29	29	29	27	29

주: OECD 혹은 EU 가입국가임에도 자료 불충분으로 제외된 국가는 호주, 불가리아, 칠레, 키프로스, 이스라엘, 일본, 몰타, 멕시코, 뉴질랜드, 한국, 터키임.

자료: UNICEF(2013a). Child well-being in rich countries: A comparative overview.

아동복지를 측정하는 경우 아동이 기본적인 의식주를 적절하게 제공받으며 보호받고 있는지, 아동의 주변 환경이 아동에게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이다. 무엇보다도 아동이 가족과 공동체 안에서 사랑받고, 소중히 여겨지고, 특별한 존재로서 지지받고 있는지 여부와 이를 위해 사회의 자원과 정책이 아동이 속한 가족과 지역사회를 지원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이상의 지표 영역 중 주관적 웰빙을 제외한 객관적인 5가지 영역에 대해 OECD 혹은 EU 가입 국가들의 웰빙 지수를 비교한 결과는 <표 III-1-2>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결과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네덜란드, 노르웨이 등의 국가는 높은 수준을 보였고 미국, 루마니아 등의 국가는 낮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앞의 아동 웰빙의 초기 지표에서 분리된 주관적 웰빙 영역은 세계보건기구(WHO)의 협동비교연구인 학령기 아동의 건강행동(Health Behaviour in Schoolage Children: HBSC)의 몇 가지 요인을 모델로 하여 새로운 지표로 형성되었다. 주관적 웰빙을 구성하는 4가지 요인은 삶의 만족도, 인간(가족 및 친구) 관계, 학교 만족도, 주관적 건강이다(UNICEF, 2013b: 22-25).

<표 III-1-3> UNICEF 주관적 웰빙의 구성요소

구분	구성요소	지표
주관적 웰빙 Subjective Well-Being	주관적 웰빙	삶의 만족도
	인간관계	부모의 대화정도 반친구와의 관계
	주관적 교육	학업스트레스 학교생활 만족도
	주관적 건강	주관적 건강상태 건강관련 신체증상

자료: UNICEF(2013b). Children's subjective well-being in rich countries. p. 29표 재구성함.

기존의 아동 웰빙 지표는 아동의 보건·안전, 교육, 건강관련 행위, 그리고 주거환경과 같은 요소들을 통한 물질적(금전적) 빈곤이나 박탈감을 위주로 그들이 삶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생각하는지를 측정해 왔다. 또한 과거 유니세프의 연구(UNICEF, 2007)를 비롯하여 대다수의 아동 복지 지수 연구들은 아동의 주관적 차원의 복지를 다차원적인 복지의 구성 요소 중 하나로 보고 다른 요소들과 동일한 비중으로 다루어왔다.

하지만 박탈감의 정도로 평가되는 아동 복지의 개념과 아동 스스로가 지각하

는 복지의 개념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관점에 기인하여 UNICEF(2013b)에서는 아동의 주관적 복지를 기존의 전반적 복지 개념과 분리하여 단일 요소로 다루었다. 주관적 복지는 전반적 복지 지표 속에 포함되어야 마땅하지만 일반적인 박탈감으로서 수치화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즉, 주관적 복지 또는 주관적 복지의 부재는 아동의 물질적 박탈감과 밀접한 관련은 있지만 박탈감의 부분적 요소라고는 할 수 없다.

나. An International Survey of Children's Quality of life: Focusin g on the Children's Subjective Well-being¹⁾

주관적 웰빙(복지)은 전반적 복지와는 다르다는 인식 하에 아동 본인의 인식, 평가, 염원을 반영하는 새로운 아동 연구의 경향으로서 주관적 행복감에 관한 연구들이 시도되었는데, 그 중 하나가 아동의 주관적 웰빙을 살펴보는 국제 연구이다. 본 연구는 시범 연구의 일환으로 수행되어 스페인, 이스라엘, 영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브라질, 알제리, 우간다와 우리나라의 아동들의 주관적 삶의 질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만 12세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한국의 경우는 중학교 1학년으로 총 2,602명이 조사되었고, 8개국의 14,030명의 학생이 참여하였다. 각 국가 아동의 주관적 행복감은 8개 영역인 가족과 집, 물질적 재화, 대인관계, 생활지역, 건강, 시간사용, 학교, 자기 자신에 관한 만족도를 0~10점까지 평가하도록 하여 측정하였다. 측정 결과는 주관적 행복감 지수(GDSI: General Domain Satisfaction Index)의 8개 영역과 전체 GDSI점수 등의 9개 점수를 제시하였고 비교분석을 위해서 표준화점수(M=100, SD=10)로 전환 후 방사형 그래프로 표시하였다.

조사 결과를 보면 한국은 90.3점으로 OECD 평균보다 낮아 행복과 경제력이 일치하지 않음을 보였다. 옷이나 컴퓨터, 인터넷, 핸드폰 소유에 대한 평균은 전체 순위 8위인 우간다의 4배가 넘지만 경제여건의 만족도는 8개국 중 7위에 그쳤다. 특히 우리나라 아동은 학교만족도와 시간활용에 대한 만족도에서 8위, 가정과 대인관계 만족도에서 7위로 낮은 점수를 보였다.

1) 이 연구는 ISCWb(International survey of children's well-being)의 예비조사를 활용한 것임.

〈표 III-1-4〉 아동의 주관적 행복감(전반적인 생활 만족도)의 영역 및 구성요소

구분	영역	구성 요소
GDSI 1	가족과 집에 대한 만족	- 사는 집에 대한 만족, 함께 사는 사람에 대한 만족, 가족 모두에 대한 만족, 가족생활에 대한 만족
GDSI 2	물질적 재화에 대한 만족	-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한 만족
GDSI 3	대인 관계 만족	- 친구들에 대한 만족, 동네 사람들에 대한 만족, 타인과의 관계에 대한 만족
GDSI 4	생활 지역 만족	- 지역경찰에 대한 만족, 아이들이 밖에서 놀 수 있는 장소에 대한 만족, 사는 동네에 대한 만족
GDSI 5	건강 만족	- 자신의 건강에 대한 만족, 병원에서 만난 의사선생님에 대한 만족
GDSI 6	시간 사용 만족	- 시간 보내는 것에 대한 만족, 자유 시간에 하는 일에 대한 만족
GDSI 7	학교 만족	- 자신이 다니는 학교에 대한 만족, 같은 반 아이들에 대한 만족, 학교 성적에 대한 만족, 학교에서의 경험에 대한 만족
GDSI 8	내 인생에 대한 만족	- 자신이 가진 자유에 대한 만족, 삶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만족, 외모에 대한 만족, 자기 자신에 대한 만족, 자신감에 대한 만족, 안전하다고 느끼는 정도에 대한 만족, 자신이 잘하고 싶어하는 것들에 대한 만족, 미래 자신에게 일어날 일들에 대한 만족, 어른들이 자신의 말에 귀기울여주는 것에 대한 만족, 집밖에서 하는 일들에 대한 만족

자료: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세이브더칠드런(2013). 한국 아동의 삶의 질에 관한 종합지수 연구. p.184 표 11.

이러한 결과는 절대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려우나 8개국 중에서 우리나라 어린이 행복지수가 7위라는 점은 어려서부터 학업과 사교육을 강조하여 자신만의 시간 활용에 대한 만족도가 낮고 가족 간의 소통이나 감정적 공유가 낮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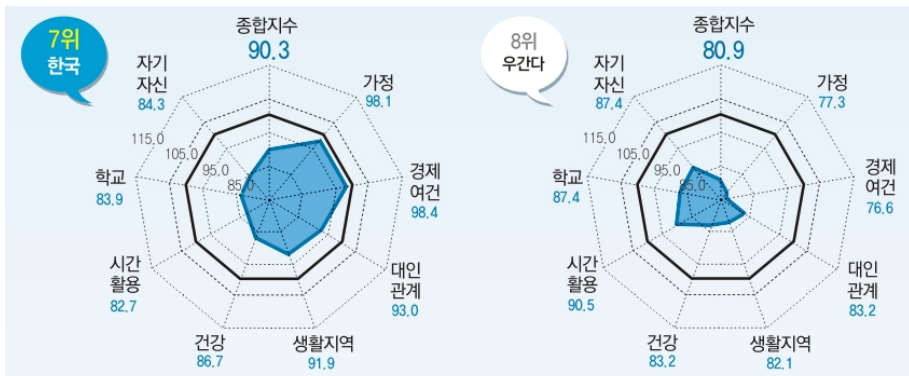
〈표 III-1-5〉 아동의 주관적 행복감(전반적인 생활 만족도)의 국가별 순위 및 결과

순위	국가	전체 만족도	가족과 집에 대한 만족	물질적 재화에 대한 만족	대인 관계 만족	생활 지역 만족	건강 만족	시간 사용 만족	학교 만족	인생 만족
1	스페인	8.88	9.23	9.3	8.86	8.03	9.32	8.89	8.68	8.75
2	이스라엘	8.57	8.99	9.26	8.51	7.51	9.08	8.8	7.67	8.87
3	브라질	8.35	8.83	9.02	8.17	7	8.96	8.38	8.24	8.26
4	영국	8.21	8.68	9	8.21	7.36	8.44	8.2	7.9	7.92

(표 III-1-5 계속)

순위	국가	전체 만족도	가족과 집에 대한 만족	물질적 재화에 대한 만족	대인 관계 만족	생활 지역 만족	건강 만족	시간 사용 만족	학교 만족	인생 만족
5	남아공	8.14	8.68	8.59	7.7	7.06	8.72	8.33	7.89	8.17
6	알제리	7.97	8.47	8.05	8.01	6.69	8.52	7.89	8.11	8.06
7	한국	7.31	8.41	7.98	7.64	6.36	7.37	7.09	6.71	6.95
8	우간다	6.64	7	4.6	7.11	5.64	7.09	7.56	6.94	7.16

자료: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세이브더칠드런(2013). 한국 아동의 삶의 질에 관한 종합지수 연구. p.193 표 14 재구성함.



자료: 동아일보(2013. 5. 8). 스마트폰 가진 어린이, 행복지수는 8개국 중 7위 그쳐 중 일부만 재구성

[그림 III-1-1] 아동의 삶의 질 국제 비교

다. The Children's Society의 행복한 아동기 지표

The Children's Society와 영국의 요크 대학(University of York)은 행복한 아동기 지표(The Good Childhood Index)를 보고하였다(The Children's Society, 2012). 행복한 아동기 지표는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개인의 종합적인 생활만족(웰빙)에 대한 평가와 구체적인 10가지 영역에서의 만족을 묻는 질문으로 나누어지며, 10가지 영역은 가족, 집, 물질적 소유, 또래관계, 학교, 건강, 외모, 시간 사용, 선택과 자율성, 미래이다. 또한 The Children's Society(2012)는 위의 10가지 영역 외에도 지역사회에 대한 만족을 포함하여 총 11개의 영역이 아동의 웰빙을 포괄하여 설명할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 각 영역의 구성은 아래 <표 III-1-6>와 같다.

<표 III-1-6> 행복한 아동기 지표 영역

영역(지표)	구성요소
가족	가족 관계의 전반적인 질, 가족 의사 결정에 참여, 가족 관계의 변화
집	집에서의 안전, 집에서의 사생활, 최근의 이사 경험
물질적 소유	가정 소득, 1년간 소득의 변화, 국가의 경제 상황이 가계에 미친 영향, 아동의 주관적 물질적 웰빙 수준
또래관계	또래관계의 질, 친구 수, 또래관계에서의 사건, 괴롭힘 당한 경험
학교	학교에서의 만족감 및 참여도, 학업 성취, 학교에서의 안전 학교 옮김, 학교에서의 사건, 주관적 학교 만족 수준
건강	주관적 건강 수준, 질병
외모	외모에 대한 걱정
시간 사용	가족과 보내는 시간, 또래와 보내는 시간, 자신을 위한 시간 활동, 숙제, 집안일 도움
선택과 자율성	선택에 대한 만족, 자율성
미래	미래에 대한 느낌, 졸업 후 미래희망
지역 사회	지역 사회에 대한 전반적 만족, 지역 사회 시설 안전/자유, 이웃(지역 사회 성인들)

자료: The Children's Society(2012). The good childhood report 2012. p.16-57의 주요지표를 정리하여 구성함.

라. OECD 아동 웰빙 지표

OECD의 아동 웰빙 지표는 6개 영역, 21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6개 영역에는 물질적 웰빙(Material well-being), 주거와 환경(Housing and environment), 교육적 웰빙(Educational well-being), 건강과 안전(Health and safety), 위험 행동(Risky behaviour), 학교생활의 질(Quality of school life)이 해당되며, 이 중 학교생활의 질은 아동의 주관적 평가이다. 각 영역에 포함되는 세부지표는 <표 III-1-7>과 같다. 즉, 물질적 웰빙은 평균 소득, 빈곤가정 아동, 교육의 박탈, 주거와 환경은 인구과잉, 가난, 교육적 웰빙은 평균 능력 점수, 능력의 불평등, 청소년 고용, 건강과 안전은 출생 시 저체중아, 영아 사망, 모유 수유, 예방접종(백일해, 홍역), 신체 활동, 사망, 자살, 위험 행동은 흡연, 음주, 십대 출산, 학교생활의 질은 괴롭힘, 학교 선호도이다.

〈표 III-1-7〉 OECD 아동 웰빙 지표

	지표	연령 범위	한국 순위
물질적 웰빙	평균 소득	0~17세	13
	빈곤 가정	0~17세	
	교육 박탈	15세	
주거와 환경	인구 과잉	0~17세	(자료 없음)
	열악한 주거 환경	0~17세	
교육적 웰빙	평균 능력 점수	15세	2
	능력의 불평등	15세	
	청소년 고용	15~19세	
건강과 안전	저 체중아	0세	10
	영아 사망	0~1세	
	모유 수유	0세	
	예방접종(백일해)	2세	
	예방접종(홍역)	2세	
	신체 활동	11~15세	
	사망	0~19세	
	자살	0~19세	
위험 행동	흡연	15세	2
	음주	13~15세	
	십대 출산	15~19세	
학교생활의 질	괴롭힘	11~15세	(자료 없음)
	학교 선호도	11~15세	

주: 한국 순위는 30개 OECD 국가 중 아동 웰빙 관련 정책 수행을 비교한 결과임.
 자료: OECD(2009b). Doing better for children.

하지만 이 영역들이 아동기 모든 연령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물질적 웰빙 및 주거와 환경은 0~17세, 교육적 웰빙은 15~19세, 건강과 안전은 0~19세, 위험 행동은 13~19세, 학교생활의 질은 11~15세 범위에 해당하므로, 영유아기에는 물질적 웰빙, 주거와 환경, 건강과 안전 영역이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영유아기가 포함되는 각 지표별 주요 국가의 웰빙 지수는 <표 III-1-8>과 같다.

〈표 III-1-8〉 OECD 아동 웰빙 지수 국제비교

		OECD 평균	한국	미국	일본	호주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물질적 웰빙	평균 소득	19.18	21.65	29.20	22.48	20.81	23.17	19.92	28.57
	빈곤 가정	12.37	10.75	20.59	13.69	11.79	2.74	3.97	4.6
	교육 박탈	2.67	1.8	4.8	5.6	2.2	0.7	1.6	1.3
주거와 환경	인구 과잉	31.95	-	26.2	22.54	19.7	17.55	20.01	15.11
	가난	25.22	-	25.4	32.38	10.5	20.15	15.75	11.99
건강과 안전	저 체중아	6.64	4.3	8.1	9.5	6.4	4.9	4.2	4.8
	영아 사망	5.45	5.3	6.8	2.8	5	4.4	2.4	3.1
	모유 수유	86.03	81.3	74.2	96.6	92	98	97.6	99
	예방접종 (백일해)	93.78	97	85.7	93	92.2	95	99	91
	예방접종 (홍역)	91.52	90.2	91.5	94	94	96	95	88
	사망	23.68	22.36	32.67	18.23	23.66	22.93	19.27	21.49
	자살	6.86	6.78	7.70	7.73	8.51	5.94	6.78	10.09

자료: OECD(2009a). Child well-being.

마. 유럽의 아동 웰빙 지수

UN의 아동권리협약(CRC)이 체결되면서 아동의 웰빙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전 세계적으로 가속화되면서 정책목표를 확인하고 성과를 점검하는 차원에서 아동의 웰빙 정도를 측정 하는 지표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 지표는 아동권리 협약의 토대를 이루는 4가지 일반 원칙 “무차별의 원칙(협약 제2조)”, “아동 최우선의 원칙(협약 제3조)”, “생존 및 발달권(협약 제6조)”, “아동 의사존중의 원칙(협약 제12조)”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Social Indicators Institute, 2011: 13).

정치적 관점으로 아동의 웰빙 문제를 다룰 때 아동의 미래나 교육적 측면에 만 중점을 두고 현재의 문제를 간과하기 쉬운데,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의 권리 속에서 오늘날 아동이 직면한 웰빙 문제와 개발과제, 그리고 미래의 문제까지를 포괄적 관점으로 살핀다.

경험적 연구를 토대로 아동의 주관적 관점(Subjective)의 웰빙에 기초하여 아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생활영역에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자신의 행복 추구하고 관련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협약 당사국에 권고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아동의 웰빙과 결핍은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관계로서 아동의 권리에 중점을 둔 관점에서 웰빙의 개념은 모든 아동들에게 실현가능한 기회의 평등이 주어지는 권리에 대한 인식으로 정의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의 웰빙은 결핍과 같은 부정적인 결과물들을 제외한 긍정적인 결과물들만을 환산한 수치로 측정될 수 있다.

그러나 아동에 대한 발달 결과는 어느 한 방향으로 고정되어 있을 수 없는데, 가족·친구 관계, 학교를 비롯한 사회적 환경과 같은 아동의 개인적 상황들과 관련하여 긍정적 자원과 위험 요소들이 끊임없이 상호작용하여 나온 결과이기 때문이다. 아동의 관점에서 긍정적 또는 부정적 요소들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아동들은 자신의 능력으로 부정적 요소들을 조절함으로써 능동적으로 그들의 웰빙을 창출해 낼 수 있는 존재라고 본다. 그리하여 아동들은 스스로 웰빙을 만들어가기 위한 능동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주관적 차원의 아동 스스로 지각하는 웰빙의 개념을 반영하여 유럽 25개 국가 간 비교를 위해 8개 영역의 23개 구성요소의 51개 지수를 만들었다. 각 구성요소(23개)별로 점수가 산출될 뿐만 아니라, 구성요소 간 그리고 구성요소에 해당하는 지표 간의 상관관계도 산출되도록 하였다.

〈표 III-1-9〉 유럽의 아동웰빙 지수

영역	구성요소	지표
물질적 상황	상대적 빈곤	1. 상대적 아동빈곤율
		2. 상대적 빈곤 차이
	결핍	3. 자기 집이 부유하지 않다고 보고한 비율
		4. 교육적 물건이 6개 이하라고 한 비율
		5. 집에 책이 10개 이하인 비율
실직	6. 직업이 없는 가구에 사는 0-17세 아동	
건강	출생 시 건강	7. 영아 사망율
		8. 저체중 출산아
	예방접종	9. 홍역 예방 접종율
		10. DPT3 예방 접종율
		11. Pol3 예방 접종율

(표 III-1-9 계속)

영역	구성요소	지표
건강	아동의 건강 행동	12. 하루 한 번 이상 양치질 하는 아동 13. 매일 과일을 먹는 아동 14. 매일 아침을 하는 아동 15. 평균적으로 한 주에 한 시간 이상 신체 활동하는 아동 16. 과체중 아동
	영아사망율	17. 19세 이하 사고/비사고 사망율
위험과 안전	위험 행동	18. 흡연 19. 음주 20. 대마초 경험 21. 흡입제 경험(본드, 가스 등) 22. 청소년 출산율 23. 성경험이 있는 15세 청소년 24. 성관계 시 콘돔을 사용한 청소년
	폭력 경험	25. 지난 1년 동안 신체적 싸움에 관련됨. 26. 한번이라도 왕따 경험
	가족 구조	27. 한부모 가족 28. 재혼 가족
아동과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29. 한 주에 2~3번은 식사하는 가족 30. 부모와 한 주에 2~3번은 대화하기
	또래 관계	31. 친절하고 도움을 주는 친구 있음.
교육	성취	32. 읽기 33. 수학 34. 과학
	교육 참여	35. 보육서비스를 받는 0-2세 영아 36. 교육을 받고 있는 15-19세
	노동시장에 있는 청소년	37. NEET 15-19세 38. 단순노무직에 있는 15세 학생 비율
시민적 참여	시민활동 참여	39. 시민활동에 2번 이상 참여한 청소년
	정치적 관심	40. 정치적 관심을 나타낸 청소년
주관적 웰빙	자가 진단 건강	41. 자신의 건강을 괜찮거나 나쁘다고 평가한 아동(11-15세)
	개인적 웰빙	42. 삶의 만족도에 높은 청소년 43. 자신이 소외되었다고 느끼는 아동 44. 자신을 어색하다고 느끼는 아동 45. 자신이 외롭다고 느끼는 아동
주관적 웰빙	학교에서의 웰빙	46. 학업으로 압박받는 청소년 47. 학교를 무척 좋아하는 청소년

(표 III-1-9 계속)

영역	구성요소	지표
주거와 환경 주거와 환경	과밀한 거주지	48. 가구의 인원 당 방의 개수 49. 지역에서 걷기가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는 가구의 비율
	지역의 공간과 환경	50. 환경문제가 있다고 보고한 15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국의 비율
	주거문제	51. 두 개 이상 주거문제를 보고한 15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구 비율

자료: Bradshaw & Richardson(2009). An index of child well-being in the European 중 P. 42-43 표 재구성함.

2. 행복감 관련 지표의 공통 영역

지금까지 앞서 2장에서 행복감의 정의와 선행연구들을 살펴보고 3장의 1절에서는 관련 지표들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선행연구와 지표들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유아들의 행복감과 관련한 주요 영역들을 추출하고자 하였다.

가. 국내·외 행복감 관련 지표의 공통 영역 추출

먼저 국내·외 행복감 관련 지표들에서 공통 영역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유아기 행복감 관련 요인에 대한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표 III-2-1>에서 볼 수 있듯이, 유니세프 아동 웰빙 지표와 OECD 웰빙 지표에서는 물질적 웰빙, 건강과 안전, 교육경험, 주거환경 등이 조사되었고, 행복한 아동기 지표 연구와 주관적 행복감 국제 지수 연구에서는 물질적 수준, 건강, 교육(학교생활), 주거환경, 대인관계, 자기 자신에 관한 내용들이 공통적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각 영역에서 포함하는 하위 요소들과 조사 문항들은 서로 일치하거나 유사한 내용이어서 동일 영역으로 간주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물질적 수준, 건강, 안전, 교육 경험, 주거 환경, 대인 관계 및 자기 자신을 공통 영역으로 선정하였다.

<표 III-2-1> 국내·외 웰빙과 행복 관련 지표의 공통 영역

구분	유니세프 아동 웰빙 지표 ¹⁾	OECD 아동 웰빙 지표 ²⁾	행복한 아동기 지표 ³⁾	주관적 행복감 국제 비교 지수 ⁴⁾	추출 영역
영역	물질적 웰빙	물질적 웰빙	물질적 소유	물질적 재화에 대한 만족	물질적 수준
	건강과 안전	건강과 안전	건강	건강 만족	건강
	행동과 위험	위험 행동			안전
		학교생활의 질			
	교육	교육적 웰빙	학교	학교 만족	교육 경험
	주거와 환경	주거와 환경	집	생활 지역 만족	주거 환경
			지역 사회	가족과 집에 대한	
	주관적 웰빙		가족	만족	대인 관계
			또래관계	대인관계 만족	
			외모		자기 자신
시간 사용			시간사용 만족		
선택과 자율성					
미래	내 인생에 대한 만족				

자료: 1) UNICEF(2013a). Child well-being in rich countries: A comparative overview.
 UNICEF(2013b). Children's subjective well-being in rich countries.
 2) OECD(2009b). Doing better for children.
 3) The Children's Society(2012). The good childhood report 2012.
 4)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세이브더칠드런(2013). 한국 아동의 삶의 질에 관한 종합지수 연구.

나. 국내·외 유아기 행복감 평가 척도의 공통 영역 추출

다음으로 국내·외에서 개발된 유아기 행복감 평가 척도 및 관련 연구에서 추출된 공통 영역은 무엇인지 분석하였다. 이는 지표를 통해 추출한 7가지 공통 영역과 유아기 행복감 평가 척도의 공통 영역을 비교하여서 7가지 공통 영역과 유아기 행복감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유아기 행복감 연구에서 추출된 공통 영역은 <표 III-2-2>에 있듯이, 물질적 수준, 대인관계, 성취, 자기 자신, 건강 및 만족감이었으며, 이는 앞서 지표에서 추출한 7가지 영역에 포함되는 내용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III-2-2〉 국내·외 유아기 행복감 평가 척도의 공통 영역

구분	김도란·김정원 (2008)	이은주 (2010)	Cummins & Lau(2005)	김세희·강순미 (2008)	김성숙 (2013)	추출 영역			
영역	가정환경		생활수준	몸의 편안함	물질이 주는 행복	물질적 수준			
		부모관계 또래관계 교사관계	대인관계	긍정적 대인관계	관계가 주는 행복	대인 관계			
	능력	인지 및 성취	성취	개인적 성장과 삶의 목적 추구	보람이 주는 행복	성취			
							자아특성	정서 몰입	미래
							영성 건강	건강 안전	건강
								지역사회	-
		생활만족		마음의 편안함	기분이 주는 행복	만족감			

자료: 김도란·김정원(2008). 유아의 행복감과 부모의 행복감 간의 관계 연구.

이은주(2010). 유아행복척도 개발연구: 유아교육기관을 중심으로.

Cummins & Lau(2005). Personal Wellbeing Index: Pre-School.

김세희·강순미(2008). 그림책 읽기 및 관련활동을 통한 유아의 행복에 대한 개념 확장.

김성숙(2013). 유아가 인식하는 행복의 의미 탐색.

3. 지표로 보는 국내 아동의 삶의 질 수준

국내·외 행복(웰빙) 지표에서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주요 영역들을 중심으로 이미 국내에서 통계자료로 발표한 바 있는 자료들을 포괄적으로 살펴봄으로써 국내 아동 특히 취약계층 아동의 삶의 질 수준을 가늠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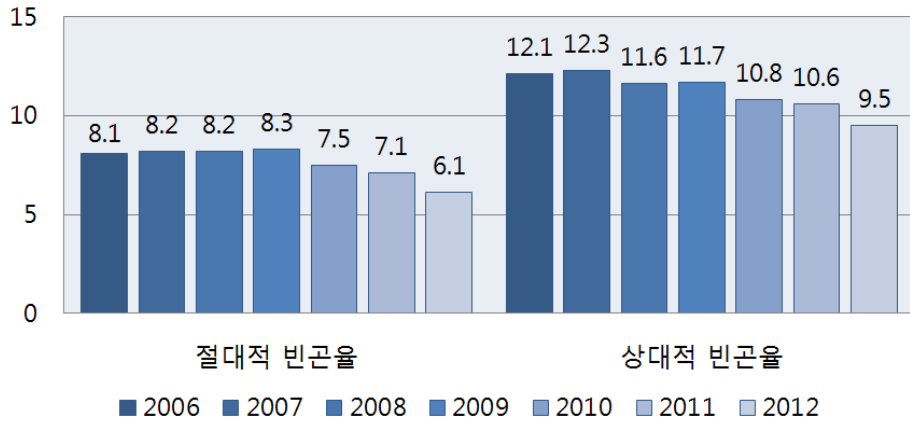
가. 물질적 수준

물질적 웰빙 영역에서는 절대적·상대적 아동 빈곤율과 가정의 평균소득을 들 수 있다. 첫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3년 빈곤통계연보(임완섭·노대명, 2013)에 따르면, 우리나라 아동의 절대적 빈곤율은 2012년 기준 6.1%이며, 상대적 빈

곤율(중위소득 50%)은 2012년도 기준으로 9.5%이다. 2006년부터 빈곤율 변화는 [그림 III-3-1]과 같으며,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둘째, 0세~18세 이내 아동이 속한 4,007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한국 아동종합실태조사(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에 따르면, 월 평균 총 소득은 343.3만원이며, 기초수급가구는 123.0만원, 차상위 가구는 160.1만원, 일반가구는 351.6만원으로 소득계층 간 월평균 소득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별로는 규모가 클수록 소득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한부모·조손가족 아동의 월평균 소득은 190.9만원으로 양부모 가족 아동 월평균 소득 361.2만원의 53% 정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가족형태에 따른 월평균 소득의 차이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자료: 인완섭·노대명(2013). 2013년 빈곤통계연보; 본 연구에서 재구성함.

[그림 III-3-1] 아동 빈곤율(%)

<표 III-3-1> 아동 가구 월평균 총 소득

단위: 만원

구분	소득 수준			지역			전체
	기초수급	차상위	일반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평균 소득 (SD)	123.0 (53.5)	160.1 (76.5)	351.6 (143.7)	350.3 (168.6)	342.1 (128.7)	307.1 (121.1)	343.3 (147.4)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3). 아동종합실태조사.

나. 건강과 안전

건강과 안전 영역에서는 아동사망률, 저체중아 비율, 예방접종 여부, 모유 수유 기간, 여러 가지 건강행동 및 아동안전사고 사망자 수를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보건복지통계연부(보건복지부, 2013)에서 제시하고 있는 아동사망률 및 영아사망률은 <표 III-3-2>, <표 III-3-3>과 같다. 우리나라 아동사망률은 2005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며, 2012년도에는 0세 남아 331.1, 여아 281.1, 1~4세 남아 23.3, 여아 16.9, 5~9세 남아 11.9, 여아 10.9로 나타났다.

<표 III-3-2> 아동(0~9세) 사망률

단위: 인구 10만명 당 사망률

년도	0세		1~4세		5~9세	
	남	여	남	여	남	여
2010	394.4	293.3	22.4	19.4	13.1	8.3
2011	353.0	282.6	22.2	19.5	11.4	8.4
2012	331.1	281.1	23.3	16.9	11.9	10.9

자료: 보건복지부(2013). 보건복지통계연보.

출생아 천 명당 사망수를 나타내는 영아사망률도 1993년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2년도에는 2.9명이다. 영아 사망수(출생 후 1년 이내)는 1,405명으로 전년대비 30명 감소하였다. OECD 국가 영아사망률을 비교하면 [그림 III-3-2]에서 볼 수 있듯이 OECD 34개국의 영아사망률은 평균 4.1명으로 한국은 이에 비해 낮은 편이지만 스웨덴(2.1명)과 일본(2.3명)보다는 높은 편이다.

<표 III-3-3> 영아 사망률

년도	사망률 (출생아 천명당)			사망수(명)			출생수(명)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2010	3.2	3.7	2.7	1,508	888	620	470,171
2011	3.0	3.4	2.7	1,435	818	617	471,265
2012	2.9	3.1	2.7	1,405	779	626	484,550

자료: 보건복지부(2013). 보건복지통계연보.
통계청(2013b). 2012년 사망원인통계.

둘째, 통계청(2013b)에 따르면, 2011년도 전체 영아사망 중 어머니의 임신기간이 37주미만인 조산아는 전체의 57.9%를, 출생체중이 2.5kg미만인 저체중 출생

아 비율은 전체의 57.6%를 차지하였으며, 전체 출생아 중에서 37주미만 출생아의 구성비는 6.0%, 저체중 출생아의 구성비는 5.2%이다. 이는 영아사망의 원인 중 조산 혹은 저체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함을 의미한다.



주: OECD 평균은 자료 이용이 가능한 34개 국가의 가장 최근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
 자료: OECD.STAT, Health Status Data, Statistics and Indicators for 34 Countries. 2012년 사망원인통계(통계청, 2013b)에서 재인용.

[그림 III-3-2] OECD 국가 영아사망을 비교

셋째, 아동종합실태조사(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에서 나타난 아동의 예방접종 여부를 살펴보면, 필수항목의 예방접종을 모두 다 한 비율은 0~11세 아동 중 94.4%이며, 0~2세 아동 중 95.2%이었다. 기초수급가구는 필수항목 중 접종하지 못한 것이 있다는 응답이 10.2%, 모른다는 응답이 7.2%로 다른 소득수준 집단에 비해 예방접종률이 비교적 낮음을 알 수 있다. 지역 규모에서는 농어촌 아동의 예방접종률이 낮은 편이었다.

<표 III-3-4> 0~11세 아동의 예방접종 여부

단위: %

구분	소득 수준			지역			전체
	기초수급	차상위	일반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필수항목 접종합	82.6	86.9	94.8	95.0	94.1	92.1	94.4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3). 아동종합실태조사.

넷째, 모유 수유 기간은 <표 III-3-5>에서 볼 수 있듯이, 아동종합실태조사(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 결과, 아동의 평균 모유 수유 기간은 13.7

개월이었으며, 0~2세의 경우 12.5개월(SD=5.1개월)이었다.

〈표 III-3-5〉 아동의 모유 수유 기간

단위: 개월

구분	소득 수준			지역			전체
	기초 수급	차상위	일반	대도시	중소 도시	농어촌	
평균 기간 (SD)	14.0 (7.9)	14.0 (6.2)	13.7 (6.1)	13.2 (6.4)	13.9 (5.8)	15.2 (6.8)	13.7 (6.2)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3). 아동종합실태조사.

다섯째, 건강 행동과 관련해서는 아침 결식 비율, 과일 및 채소 섭취 현황, 신체활동 시간을 통해서도 아동의 삶의 질을 평가해볼 수 있다. 아동종합실태조사(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 결과에 따르면, 전체 아동 중 61.3%가 아침식사를 항상 먹는다고 응답하였고, 3~5세의 경우 68.7%이었다. 아침식사를 거의 먹지 않는다는 비율은 차상위가구에서 34.6%로 가장 높았다.

〈표 III-3-6〉 아침 식사 여부

단위: %

구분		거의 먹지 않음	먹는 편임	항상 먹음
전체		10.9	27.9	61.3
소득 수준	기초 수급	23.0	30.3	46.7
	차상위	34.6	27.6	37.8
	일반	10.1	27.8	62.1
지역	대도시	10.8	23.5	65.7
	중소도시	11.4	30.6	58.0
	농어촌	7.2	35.9	56.9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3). 아동종합실태조사.

매일 과일을 섭취하는지에 대해서는 일반가구(18.6%)보다는 기초수급(47.3%)이나 차상위가구(43.1%)에서 매일 과일이나 채소를 섭취하지 않는다는 응답의 비율이 더 높았다(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

〈표 III-3-7〉 매일 과일 및 채소 섭취 여부

단위: %

구분	소득 수준			지역			전체
	기초수급	차상위	일반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결핍 현황	47.3	43.1	18.6	17.3	20.7	17.8	19.7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3). 아동종합실태조사.

또한 일주일동안 30분 이상 운동을 얼마나 하였는지 조사한 결과(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 3~5세의 경우 30분 이상 운동을 한 평균일수는 1.6일(SD=1.7일)이며, 0일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40.9%이었다. 지역규모에 따라 비교하였을 때는 중소도시의 경우 대도시나 농어촌에 비해 운동일수가 짧게 나타났다.

〈표 III-3-8〉 일주일동안 30분 이상 운동한 날

단위: 일

구분	소득 수준			지역			전체
	기초수급	차상위	일반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30분 이상 운동을 한 일수(SD)	1.7 (1.7)	1.9 (1.7)	1.9 (1.7)	2.0 (1.7)	1.8 (1.7)	2.1 (2.0)	1.9 (1.7)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3). 아동종합실태조사.

〈표 III-3-9〉 14세 이하 아동안전사고 사망자 수

단위: 명

년도	운수사고	익사	추락	연기, 불, 불꽃에 노출	유독성 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	기타	총계
2010	194	44	42	15	3	89	387
2011	137	50	37	15	1	82	322
2012	131	53	36	14	1	91	3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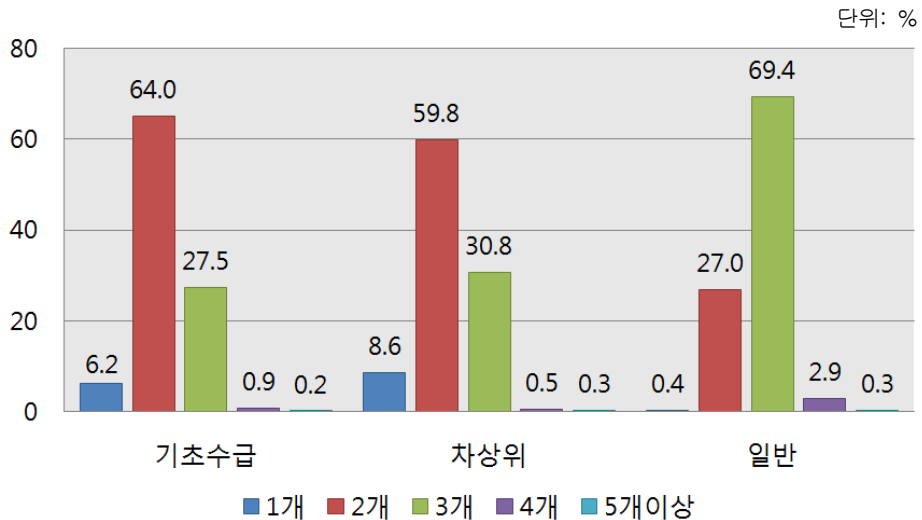
자료: 보건복지부(2013). 보건복지통계연보.

여섯째, 아동안전사고 사망자 수는 <표 III-3-9>와 같다. 보건복지통계연보(보건복지부, 2013)에 따르면, 14세 이하 아동의 안전사고로 인한 총 사망자 수는 2012년에 326명으로 10년 전인 2002년 1,207명과 비교해서는 많이 줄어들었지만 전년도인 2011년 322명과는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안전사고 유형으로는 운수사고가 131명으로 가장 많고, 익사 53명, 추락 36명, 연기, 불, 불꽃에 노출 14명 등으로 나타났다.

다. 주거와 환경

주거와 환경 영역은 아동종합실태조사(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에서 제시하고 있는 거주하는 주택의 방 수 그리고 주택의 구조, 성능 및 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자료를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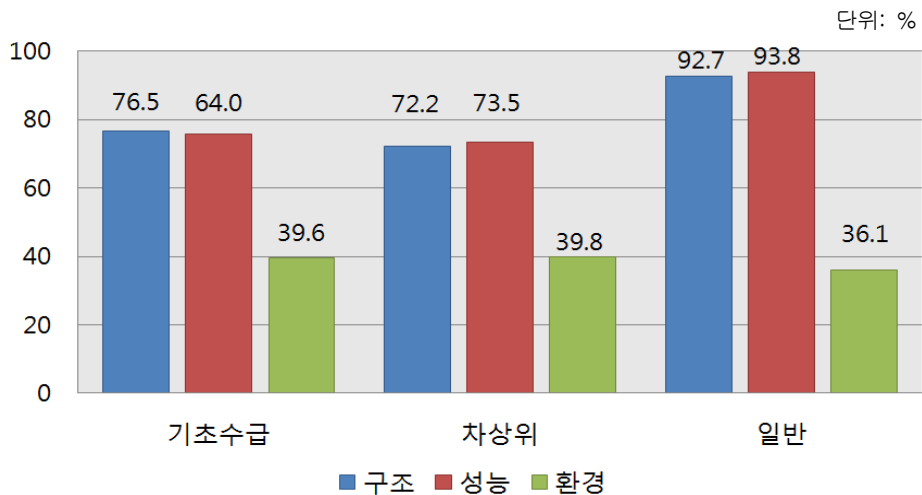
첫째,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방수(그림 III-3-3 참조)는 기초수급가구와 차상위층은 방이 2개인 경우가 가장 많았으나 일반가구는 방수가 3개인 경우가 가장 많았다(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 하지만 이 결과는 가족 수 대비 방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 비율은 알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3). 아동종합실태조사 내용을 재구성함.

[그림 III-3-3] 거주 주택의 방수

둘째, 주택의 구조, 성능 및 환경에 대해(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 주택의 견고성 및 구조부 재질은 양호한가?, 적절한 방음, 환기, 채광, 난방설비를 갖추고 있는가?, 소음, 진동, 악취, 대기오염으로 인해 불만이 있는가? 이 세 문항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 결과는 [그림 III-3-4]에서 나타나듯이, 일반가구가 기초수급 및 차상위층보다 전반적으로 양호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소음, 대기오염 등의 환경의 경우 소득수준별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3). 아동종합실태조사 내용을 재구성함.

[그림 III-3-4] 주택의 구조, 성능, 환경

라. 가정환경

아동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영역으로 가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조이혼율, 저소득 한부모가족 현황 및 아동학대 발생 현황으로 취약계층의 가정환경이 어떠한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2012 인구동태통계연보(통계청, 2013a)에 따르면, 2012년도 총 이혼건수는 114,316명이며 조이혼율은 2.3명(인구 천명당)에 이른다.

둘째, 저소득 한부모가족 현황(보건복지부, 2013)은 <표 III-3-10>와 같다. 2012년도 기준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총 217,547세대이며, 그 중 모자가정은 163,171

세대, 부자가정은 46,839세대, 청소년 모자가정은 1,782세대, 청소년 부자가정은 208세대, 조손가정은 5,547세대가 있다.

〈표 III-3-10〉 2012년도 저소득 한부모 가족 현황

단위: 세대 수

구분	한부모가족 보호대상	국민기초수급 대상	전체
모자가정	96,906	66,265	163,171
부자가정	31,590	15,249	46,839
청소년 모자가정	1,303	479	1,782
청소년 부자가정	191	17	208
조손가정	519	5,028	5,547
합계	130,509	87,038	217,547

자료: 보건복지부(2013). 보건복지통계연보.

한편 빈곤선 미만 가정에서 양부모가 모두 있는 비율은 47% 수준이며, 이혼 가구가 31.5%, 사별가구가 17.3%, 별거 중인 경우가 2.4%로 나타나 빈곤한 아동 가구는 가족해체 문제도 안고 있다(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셋째, 아동학대 발생현황은 보건복지통계연보(보건복지부, 2013)에 따르면, 2012년도에는 아동학대가 6,403사례 발생하였으며, 이는 10년 전인 2002년 2,478 사례와 비교할 때 상당히 증가한 수치이다. 유형별로 보면, 중복학대가 3,015사례로 가장 많았고, 방임(유기) 1,713사례, 정서학대 936사례, 신체학대 461사례, 성학대 278사례로 나타나 그 심각성을 보여준다.

〈표 III-3-11〉 아동학대 발생현황

단위: 사례

년도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유기)	중복학대	총계
2010	348	773	258	1,884	2,394	5,657
2011	466	909	226	1,836	2,621	6,058
2012	461	936	278	1,713	3,015	6,403

자료: 보건복지부(2013). 보건복지통계연보.

4. 행복감(웰빙) 관련 정책 현황

가. 국내

통합사례관리는 복합적 요구를 가진 서비스 대상자에게 포괄적(Comprehensive), 체계적(Systematic), 지속적(Consistent)으로 지역사회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회복지실천 모델이다(보건복지부, 2014: 41).

취약계층 아동과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통합사례관리의 해외 사례로는 미국의 Head Start, 영국의 Sure Start, 호주의 Best Start, 뉴질랜드의 Family Start, 캐나다의 Fair Start 등이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민간 주도 사업인 We Start와 정부에서 주도하는 Dream Start가 대표적이다. ‘Start’는 여러 선진국에서 쓰고 있는 빈곤아동 지원사업의 일반 명칭이기도 한데, 이러한 사업을 통해 빈곤층 아동들이 공정한 교육, 복지의 출발 선상에 설 수 있도록 힘을 쏟고 있다.

1) 취약계층 아동의 통합사례 관리: We Start/Dream start

가) We Start²⁾

2004년 5월, 50여개 복지·교육기관과 중앙일보 등의 민관협력체제로 시작된 We Start 프로그램은 “가난의 대물림을 끊어주자”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저소득 가정 아동들을 사회가 함께 키우자는데 뜻을 모았다. 정부,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 가정 등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나서서 빈곤으로 파생되는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고 빈곤아동들의 동등한 출발(Fair start)을 적극 지원하자는 의미가 있다.

일시적이고 단편적인 지원으로는 100만 명에 이르는 빈곤 아동들의 미래를 바꿔줄 수 없다는 판단에 기초한 We Start운동은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복지(Welfare)와 교육(Education), 건강(Health) 서비스를 입체적으로 제공해 삶의 동등한 출발선(Start)을 마련해주자는 취지를 가진다.

Child Start에서 시작했지만 부모와 지역사회의 변화도 함께 있어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현재는 Family Start에 이어 Community(마을) Start도 함께 추진하는 새로운 모델을 뿌리내렸다.

또한 수혜자를 자칫 의존형 존재에 머물게 할 수 있는 기존의 일방적 복지서

2) 위스타트 홈페이지 <http://westart.or.kr>에서 2014년 7월 2일 발췌.

비스에서 벗어나 아동과 부모의 봉사단화, 수혜 부모의 준(準)스태프화 같은 방식으로 자립심을 심어주고 있다(<http://westart.or.kr>에서 2014년 7월 2일 발췌).

We Start가 실천하는 대표 사업은 'We Start 마을 만들기'이다. 지역사회가 중심이 되고 광역 및 기초 지자체가 지원하는 지역사회 보건·복지·교육 공동체 구축사업으로서 현재 전국 4개 시도(서울, 경기, 강원, 전남)에 23개 마을이 운영되고 있다. 더불어 글로벌(다문화) 아동센터를 안산, 수원, 강진의 3개 마을에 두고 있다. 이는 기존 다문화 아동에 대해 이루어졌던 적응과 동화 위주의 소극적 정책을 넘어 다문화 아동-가족-지역사회의 통합적인 접근을 통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역량강화를 실현하고자 함이다. 또한 캄보디아, 몽골, 베트남의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해외센터를 둬으로써 한국형 We Start모델이 국내 아이들뿐만 아니라 개도국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키우는 소중한 밑거름이 되도록 힘쓰고 있다(위스타트운동본부, 2012b).

사업대상은 We Start 마을의 기초생활수급가정과 차상위 계층 가정의 아동 및 임산부, 그 가족들이며, 가급적 어린 나이에서부터 예방적이고 통합적인 개입을 통해 복지·교육·건강 면에서 평등한 출발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아동과 가족의 다양한 욕구와 강점에 따라 전문적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예상되는 문제를 예방하고 건강한 성장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을 지향한다.

We Start 마을의 프로그램은 크게 복지, 교육, 건강서비스로 나누어 운영된다. 가정방문을 통한 통합사례관리를 기본으로 하여 학교사회복지사업, 방과 후 공부방 운영사업, 기초학력증진 및 문화체험 사업, 지역사회연계 및 복지지원사업으로 대표되는 복지(Welfare)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영아 가정방문 교육중재 프로그램, 유아 기관방문 교육중재 프로그램, 부모 양육지원 및 역할 증진사업, 주말 가족 프로그램, 보육센터 개방들을 활성화함으로써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들이 교육(Education)적인 혜택에서 소외받지 않는 마을 공동체를 구축하고자 한다. 더불어 신체·정서 및 정신건강사업, 건강관리 및 증진사업, 건강교육·의료비 지원, 건강검진 및 발달 심리 검사, 임신·출산 및 양육지원, 의료네트워크 구성등의 프로그램을 통한 건강(Health)지원 사업을 펼친다(<http://westart.or.kr>에서 2014년 7월 2일 발췌).

그 밖에 마을 만들기 사업과 함께 이루어지는 특화사업으로는 청소년지원사업(고양시 배움누리사업), 파랑새봉사단, 마을형 사회적기업 등이 있다.



자료: 위스타트운동본부(2012b). 위스타트 사업소개 표준안. p.5 참조함

[그림 III-4-1] We Start 마을 (지역사회 기관과의 네트워크 사업)

나) Dream Start

Dream Start 사업은 저소득 빈곤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 정책으로 외국에서는 미국의 헤드스타트, 영국의 슈어스타트, 캐나다의 페어스타트, 뉴질랜드의 패밀리스타트, 호주의 베스트스타트라는 이름으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저소득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사업이다. 이와 같은 외국에서의 저소득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의 움직임에 힘입어 We Start 운동으로 민간에서 먼저 시작되었던 사업을 정부에서 희망스타트 사업으로 실시하게 되었으며 지금의 드림스타트 운동으로 발전하게 된 것이다. 드림스타트의 추진 체계는 보건복지부, 시·도, 시·군·구(드림스타트 센터)이며 총괄 부처는 보건복지부 아동관리과이다(<http://www.dreamstart.go.kr>, 사업소개-사업현황 및 추진체계에서 2014년 7월 2일 발췌).

사업대상은 0세(임산부)~만 12세(초등학생 이하) 아동 및 가족으로 국민기초수급 및 차상위계층 가정, 법정 한부모가정(조손가정 포함), 학대 및 성폭력피해 아동 등에 대한 우선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사업의 목적을 둔다.

드림스타트 사업의 추진배경으로 첫째, 가족해체에 따른 가족기능 약화와 사회 양극화 등에 따라 저소득층 대물림이 심화되고 있으나, 밀착형 서비스가 필요한 저소득층 취약아동에 대한 집중 관리는 미흡하다는 사회적 인식의 확산을 볼 수 있다. 둘째, 국가 성장 잠재력 제고를 위한 선제적 인적투자로서 아동투

자가 필요하며, 아동의 저소득층은 아동의 전 생애는 물론 사회 전체 발전 가능성을 저해한다는 판단으로 아동에 대한 조기 투자는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달성하며 사회문제를 예방하고 사회 통합을 유도하는 등 사회적 환원효과가 클 것으로 분석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저소득층 아동 개인의 능력을 향상하고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저소득층 아동과 그 가족에게 건강, 복지, 보육, 교육을 통합한 맞춤형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여 문제를 조기 진단·개입하는 예방적 서비스 체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다(보건복지부, 2014: 5).

2007년 ‘희망스타트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하여 2008년 ‘드림스타트 사업’으로 명칭을 바꾼 이래로 정부의 정책 사업으로 추진되던 드림스타트 사업은 2012년 8월 5일자로 시행된 아동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의해 드림스타트 사업에 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고 법적사업으로 전환되었다. 그 법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아동복지법 제4조3)에 의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서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⑥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신설 2014.1.28.>는 것을 규정하였다.

같은 법률 제37조4)에 의하면,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사업으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의 성장 및 복지 여건이 취약한 가정을 선정

3)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www.law.go.kr/lsSc.do?menuId=0&subMenu=1&query=%EC%95%84%EB%8F%99%EB%B3%B5%EC%A7%80%EB%B2%95#liBgcolor0>에서 2014년 6월 10일 발췌.

4)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www.law.go.kr/lsSc.do?menuId=0&subMenu=1&query=%EC%95%84%EB%8F%99%EB%B3%B5%EC%A7%80%EB%B2%95#liBgcolor0>에서 2014년 6월 10일 발췌.

하여 그 가정의 지원대상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보건, 복지, 보호, 교육, 치료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통합서비스를 실시한다고 규정하였다.

드림스타트가 실행하고 있는 통합서비스는 크게 신체·건강 서비스, 인지·언어 서비스, 정서·행동 서비스, 가족 및 통합지원 서비스로 구분되는데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은 다음 <표 III-4-1>과 같다.

<표 III-4-1> 드림스타트 분야별 서비스

서비스 구분	서비스 내용	프로그램 예시
신체/건강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신체 발달 증진 - 임산부의 건강한 출산 및 양육 지원 - 건강한 생활을 위한 건강검진 및 예방, 치료 - 아동 발달에 필요한 신체/건강정보 제공 	건강검진 및 예방, 성장발달 스크리닝, 구강교육, 심리검사, 정신건강 서비스, 산전산후관리, 영양교육 등
인지/언어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의 의사소통 및 기초학습 능력 강화 - 맞춤형 인지/언어 서비스를 통한 아동의 강점 개발 - 부모자녀 상호작용 및 적합한 교육환경을 위한 부모 역량 강화 	기초학습지원, 영유아 가정방문 교육중재, 경제교육, 인터넷 중독예방, 소방 및 안전교육, 독서지도 등
정서/행동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아존중감 및 긍정적 성격 형성을 위한 정서발달 서비스 제공 - 올바른 사회 인식 및 이해를 도움. - 성숙한 사회시민으로 성장을 도모 - 아동과 가족의 생활안정, 삶의 질 개선, 가족 유대감 증진 	사회성발달 프로그램, 아동권리 교육, 아동학대예방, 성폭력예방, 다문화관련교육, 진로지도, 멘토링 프로그램 등
가족 및 통합지원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 사례관리자의 1:1 가정방문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 부모의 유능감 및 자존감 강화 및 양육 기술 지원 	부모교육, 가족상담 및 치료, 가족애착증진 프로그램 등

자료: 보건복지부(2014). 드림스타트 사업안내서.

2) 중앙정부 지원 사업

가) 디딤씨앗통장(CDA: Child Development Account)

디딤씨앗통장은 저소득층 아동(보호자, 후원자)이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국가(지자체)에서 1:1 정부매칭지원금으로 월 3만원까지 같은 금액을 적립해 줌으로써 아동이 준비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산형성지원사

업이다.

자산형성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 아동들이 빈곤의 대물림에서 벗어나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건전한 발달 실현과 보다 나은 사회출발 여건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사업의 목표를 두고 있다(<http://www.adongcda.or>, 디딤씨앗통장 소개에서 2014년 7월 3일 발췌).

2007년 4월에 시작된 디딤씨앗통장 사업은 오직 아동의 자립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대상은 0세에서 만 18세 미만까지의 시설보호아동, 가정위탁보호아동, 소년소녀가정아동, 공동생활가정아동, 장애인시설보호아동, 가정복귀아동,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정아동(1999~2002년 출생)이다.

나) 지역아동센터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법상 아동복지시설로, 1980년대 빈곤 아동들을 위해 자생적으로 설립된 공부방이 2004년 법제화를 거치며 시작되었다.

대상계층은 지역사회 내 보호를 필요로 하는 18세 미만의 아동이며, 2013년 12월 말 기준으로 신고운영중인 지역아동센터는 총 4,061개소, 이용 아동 수는 109,066명으로 조사되었다(보건복지부, 2013).

지역아동센터의 목적은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다(아동복지법 제16조 제1항 제11호).

기본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III-4-2〉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 내용

구분	내용
보호 프로그램	빈곤·방인 아동보호, 일상생활지도, 급식제공, 위생지도 등
교육 프로그램	학교생활 준비, 숙제지도, 예체능 교육, 안전교육, 기초학습 부진아동 특별지도, 독서지도 등
문화 프로그램	문화체험, 견학, 캠프, 공동체 활동, 놀이 활동 지원, 특기적성 등
복지 프로그램	사례관리, 상담·정서적 지원, 부모교육, 가정방문 등
지역사회연계 프로그램	지역 내 인적·물적 자원을 연계, 결연후원, 지역복지활동 등

자료: 보건복지부·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2014). 2014년 지역아동센터 운영매뉴얼.

3) 서울특별시 지원 사업

가) 건강과일바구니 공급사업

서울시에서 2013년 7월부터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서울형 건강과일바구니 공급사업’은 소득이 낮을수록 인스턴트 및 고열량 식품에의 노출 빈도가 높아 영양섭취의 불균형이 심하고, 학령기(6~18세) 아동들이 과일·채소의 권장섭취량(500g)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어린이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마련되었다.

2006년 보건복지부 지원으로 실시한 시범사업을 서울형으로 발전시킨 본 사업 프로그램의 주 내용은 과일공급과 영양교육이다(서울특별시 보도자료, 2013).

서울시농수산물공사와 가락시장 유통인(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의 사회공헌활동 기금을 바탕으로 주 2회 아동 1인당 200g의 체첼과일이 공급된다. 더불어 서울시와 자치구 보건소에서는 전문영양강사를 파견하여 지역아동센터 특성에 맞는 영양·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2014년부터는 25개 자치구 보건소에서 수요조사를 진행해 지난해보다 23개소 증가한 207개소의 지역아동센터 아동 5,712명에게 과일이 제공될 예정이며, 제공기간도 6개월에서 9개월로 연장된다.



[그림 III-4-2] 취약계층 아동 건강과일바구니 사업

2013년 과일을 제공받은 총 184개 지역아동센터 5천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대상자의 95.1%가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채소·과일 섭취 횟수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울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채소반찬을 충분히 먹는다는 비율이 46.1%에서 51%로 증가하였으며 배변의 용이성 또한 75.6점에서 78점으로 증가했다(<http://health.seoul.go.kr>, 지역뉴스, 서울시, 건강과일바구니로 취약계층 어린이 영양관리에서 2014년 7월 4일 발췌).

나) 꿈나무 카드

꿈나무카드는 생계 때문에 식사를 못 하는 아동들을 위해 서울시가 2009년 7월 1일에 도입한 급식지원 사업 중 하나이다.

저소득층 가정 중 부모의 부재나 질병 등으로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에게 제공되는 급식카드로 동·주민 센터에서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소년소녀가정, 한 부모 가정, 긴급복지 및 긴급보호가 필요한 아동, 최저 생계비 130% 이하 맞벌이 가구의 아동 중 보호자의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 담임교사·사회복지사·통반장·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여 아동 급식위원회에서 결정된 아동, 지역아동센터·사회복지관 등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아동 중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등이다.

아동의 가정환경에 따라 하루 몇 끼를 제공할 지가 결정되는데, 하루 한 끼 지원 금액은 4,000원으로 사용 횟수의 제한은 없으며 금액의 적립 기간은 최대 이틀간 유지된다. 서울에서 꿈나무 카드 사용이 가능한 상점은 2014년 1월 기준, 총 2천 3백여 곳이다.



[그림 III-4-3] 서울시 꿈나무카드

다) 용기프로젝트

용기프로젝트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저소득가정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꿈을 맘껏 펼칠 수 있도록 민간후원자(기업체, 개인 등)와 학생들을 연결해 주는 서울시 교육청의 행복 교육복지 프로젝트이다. ‘용기’가 지니는 의미는 첫째, 학생이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용(龍)으로 성장하기 바라는 마음과 둘째, 교육청이 학생들에게 씩씩함과 희망을 북돋는 용기(勇氣)를 주고자 함이고, 셋째는 지역사회가 배움 공동체로 다양한 개성의 아이들을 담아내는 용기(容器)가 되고자 하는 뜻을 지닌다.

후원의 내용으로는 기금후원과 교육 기자재 및 물품후원, 심리·정서, 학습·문화 체험 등 다양한 방면의 행복교육 프로그램 지원 등이 있다.

본 프로젝트는 4개의 주축인 민간후원자(기업/기관/개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서울시 교육청, 학교의 co-work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프로그램에 적합한 학생을 선발하고 아이템 개발 및 학교 협조를 지원하며, 학교는 대상 학생을 발굴하여 추천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주요 민간 참여기관과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III-4-3〉 주요 후원현황

참여기관	지원내용
국립중앙극장	문화예술 프로그램 관람
서울지방변호사회	1:1 멘토링, 생활장학금지원
강남구청	인터넷 방송 수강권 지원
서울문화재단	문화이용권을 제고하여 문화공연 관람
두산연강재단	소년소녀가장 생활 장학금 지원
재단법인 나눔21	생활장학금 지원
서울 사랑의 열매	여름방학 독서캠프
BC카드 주식회사	생활장학금, 경제체험스쿨, 진로교육
SK행복나눔재단	직업전문교육 지원

자료: 서울특별시 교육청 꿈사다리, <http://kkumsadari.sen.go.kr/>

4) 기타 자방자치단체 지원 사업

가) 저소득층 아동 영양제 지원 사업

경남 창원시 의창구가 행복지킴이사업의 일환으로 실행하고 있는 저소득층 아동 영양제 지원 사업은 빈곤의 대물림을 막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영양제 구

입이 어려운 아동들에게 관내 약국들과 연계하여 칼슘, 비타민, 미네랄 등의 종합영양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건전한 아동발달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현재 조손가정, 한 부모가정의 미취학아동과 초등학생 20여명에게 매달 1회 영양제를 지원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영양제지원을 확대하고자 계속해서 참여 약국을 모집하고 있다.

변재혁 의창구 사회복지과장은 “우리 주위에는 어려운 가정형편과 돌봄 부족으로 또래보다 발달이 늦은 저소득아동이 많다”며 “약국 등에서 지원하는 각종 영양제가 아동과 부모들에게는 큰 힘이 된다. 내가 가진 걸 조금씩 나눈다는 취지로 추진하는 의창구만의 나눔 활동들이 주는 사람에게는 나눔의 기쁨으로, 받는 사람에게는 희망과 행복이 되고 있다”고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아시아뉴스통신, 2014)

나) 저소득층 아동 치과 주치의 사업

광주광역시는 광역 단위 최초로 저소득층 아동들의 구강 건강을 위해 치과주치의사업을 실행하고 있다.

본 사업은 보건소와 주치의로 지정된 치과의사가 대상자의 구강질환을 치료하고 더 이상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예방, 관리를 해주는 사업이다. 2013년,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조례’가 제정돼 추진 근거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2013)의 ‘2012년도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에 따르면 치과 치료가 필요하지만 진료를 받지 못한 5·8·12·15세 전국 아동청소년은 약 28%, 광주의 경우 이 수치가 약 30%로 전국 평균보다 높다. 아울러 치과치료에는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항목도 많다.

이번 사업에서 보건소는 먼저 경제적인 이유로 구강건강에 소홀한 아이들이 없도록 검진·예방교육·관리하고, 나아가 치료가 필요한 아이들의 경우 집에서 가까운 치과병원 주치의로 연결하여 꾸준히 치료를 받도록 돕는다.

보호자의 동의가 있는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초등학생이면 누구나 이번 사업의 대상자가 될 수 있고, 대상 아동에게는 1인당 2~32만원의 의료비를 지원된다.

이에 앞서 광주광역시는 치과주치의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시와 자치구 대표, 보건의료 관련 직능단체 대표, 치의학 관련 전문가, 교육청 관계자 등 13명으로 지역협의체를 구성하고, 협의 과정을 거쳐 지원 대상 선정 기준과 진료 범위, 지원액 기준 등 세부 추진 계획을 확정했다.

나. 국외

1) 취약계층 사업

가) 미국

2000년 The National Assessment of Educational Progress(NAEP)의 보고에 따르면 전미 4학년 학생의 영어 성적평가에 따르면 저소득층, 아프리카계 미국인, 라틴계, 특수아동, 영어능력의 제한을 가진 학생들의 성적이 다른 학생들에 비해 많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U.S. Department of Education, 2002: 11). 이에 따라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U.S. Department of Education, 2001)의 Title 1에 특별히 낮은 성취도를 보이는 학생, 즉 저소득층, 영어가 능숙하지 않은 아동, 이주자 아동, 장애아동, 미국 원주민 아동, 방치되거나 비행을 보이는 아동을 “Disadvantaged students”로 규정하고 이들의 필요를 충족시켜야함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U.S. Department of Education, 2002). 그들의 필요를 충족하고 지원함으로써 교육접근성을 평등하게 갖도록 하고 성취평가도를 증진시켜 학생간의 교육성취 결과의 격차를 줄일 것을 목표로 한다(U.S. Department of Education, 2001). 미국연방정부는 Title 1의 법적 근거에 따라 지원을 제공하고 각 주의 정부 교육기관에서는 영어가 능숙치 않은 아동, 장애아동, 미국 원주민(인디언·하와이언·알래스카 원주민) 아동, 노숙자 아동, 이주노동자 아동, 방치되거나 비행을 보이는 아동 각각 특성에 맞는 필요를 충족시키며 이들의 교육적 결과에 책임을 진다(U.S. Department of Education, 2010). 참고로 장애아동의 경우에는 The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에도 관련하여 지원을 받고 있다. 또한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Rural education 프로그램으로 아동들의 대학진학 준비도 목적과 관련하여서도 지원받고 있다(U.S. Department of Education, 2010).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Title 1 프로그램은 미국 정부에서 초중등교육에 지원하는 프로그램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U.S. Department of Education, 2002).

나) OECD

OECD(2012)는 낮은 성취도를 보이는 취약계층 학생뿐만 아니라 그들의 학교 역시 내부적 능력의 부족, 개선에 대한 지원 부족 등으로 취약계층의 학생들에게 질 높은 학습경험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Disadvantaged

students”를 정의하고 그들을 도울 필요를 강조한다.

2) 아동 웰빙 관련 지원 프로그램

가) 미국

United State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2013)에서는 “미국인의 건강, 안전, 웰빙을 높이기”라는 목적아래 보다 구체적으로 “어린이와 청소년의 안전, 웰빙, 회복력, 건강한 발달”라는 목표를 두고 있다. 이러한 목표아래 특별히 유아 웰빙에 관련해서는 Administration for Children and Families (ACF)에서 가장 핵심적인 일을 맡고 있다. 또한 이외의 부서에서는 출산과 영유아 건강 지원(Maternal and child health), 출생 결함관련 지원(Birth Defects), 건강 장애지원(Developmental Disabilities), 장애와 건강(Disabilities and Health), 예방접종무료제공(Vaccines for Children), 여성, 어린이, 장애우를 위한 웰빙 연구지원(Child Health and Human Development Research), 19세 이하 아동에게 건강보험 제공(Children’s Health Insurance Program) 등의 프로그램이 영유아의 웰빙을 돕는데 직간접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끼친다(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2013).

(1) Administration for Children and Families (ACF)

ACF 부처의 임무는 연방 정부의 리더쉽, 협력, 그리고 온정적이고 효과적인 서비스제공을 위한 자원을 제공함으로써 건강과 웰빙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큰 미션 아래 구체적인 목표가 5개가 있는데 그 중 웰빙과 관련한 목표는 2개로, “개인, 가족과 공동체를 위한 경제 사회적 웰빙 높이기”와 “아동, 청소년, 가족의 안전과 웰빙 높이기”가 있다. ACF의 목표는 United State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의 웰빙을 강조하는 목적과도 부합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이들이 지원하는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2013).

(가) ACF의 지원프로그램

유아의 환경과 가족을 지원함으로써 유아의 웰빙을 높이는 서비스와 유아에게 직접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를 나누어 볼 수 있다. 제공되는 서비스 중 일부는 유아 웰빙에 직접적이면서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어 정확히 구분되기 어려운 점이 있다.

〈표 III-4-4〉 유아 웰빙 관련 ACF프로그램

구분	프로그램	서비스 내용
물질적 환경 및 가족 지원	Payments to states for child support enforcement and family support programs	아동지원강화와 가족지원
	Low income home energy assistance	냉난방지원
	Promoting safe and stable families	집 방문 서비스, 보육제공, 부모교육 등
	State Court Improvement Grants	양육과 입양의 법적절차 향상과 평가
	Social Services Block Grant	장애, 입양, 사례관리, 교통, 집, 양육 등의 서비스
물질적 환경 및 가족 지원	Health Profession Opportunity Grants	저소득층 대상 건강관리자 양성
	Head Start	5세 이전 유아와 저소득층의 학교준비도 향상
	Runaway and Homeless Youth Programs	가출 혹은 노숙자인 어린 산모와 그의 아이 지원
	Native American Programs	아동남용과 학대
	Social Services Research and Demonstration	복지서비스, 연구, 정책에 대한 평가
	Child Care Development Fund	아동 보육 서비스
	Head Start	5세 이전 유아와 저소득층의 학교준비도 향상
유아에 대한 지원	Runaway and Homeless Youth Programs	가출 혹은 노숙자인 어린 산모와 그의 아이 지원
	Child Abuse and Child Welfare	아동남용과 학대
	Native American Programs	미국 원주민의 문화 보존과 경제자립지원

주: United State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의 2014년 예산안에 반영된 2013년 자료임.

자료: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2013) Federal Program Inventory <http://www.hhs.gov/budget/2013-program-inventory/federal-program-inventory.html>.

〈표 III-4-5〉 유아 웰빙 지원 프로그램 및 서비스 내용

지원 프로그램	서비스 목적과 내용
Head Start/Early Head Start	- 저소득층 5세 이하의 영유아의 영유아와 가족에 대한 건강, 영양, 인지, 사회, 정서발달 통해 복지서비스, 관계 지원 등의 종합적인 서비스

(표 III-4-5 계속)

지원 프로그램	서비스 목적과 내용
Child Care Development Fund	- 아동의 안전, 웰빙, 회복력, 건강한 발달을 돕는다 직장에 나가거나 이를 위한 훈련기간에 있는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 부모들에게 단기의 물리적 지원 제공
Maternity group Homes for Pregnant and parenting youth(MGH)	- 노숙자 산모와 그의 자녀지원 및 젊은 부모에 대한 부모 교육 교육(양육방법, 아동발달, 가족예산, 건강과 영양) 어린이에게 안전한 생활시설 제공 건강관리와 그에 필요한 자원제공 경제적 관리
교육기회제공(고졸학위 및 직업교육)	- 피난민, 망명자, 쿠바와 아이티 입국자, 특별이민비자도착자, 인신매매피해자를 돕기 위한 프로그램 전환, 의학적 서비스제공 복지서비스 제공 건강관리 특목화된 도움제공(특히 고문과 인신매매로 인한 피해자와 보호자가 없는 아이들에 대한 특별한 도움 제공)
Child Abuse and Child Welfare	- 아동학대와 방임관련 지원 - 임신기간 중 약물에 노출된 영아들의 필요를 충족 보호, 예방 등에 대한 서비스 제공
Payments to States for Foster care and Permanency	- 위탁양육의 아동지원 및 그들의 자립 도움 - 집으로 돌아오기 힘든 장애아동의 입양가족을 지원 아동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위탁가정에 대한 지원, 생물학적 부모와의 재결합, 가족의 웰빙을 지원

주: Administration for Children & Families에서 지원되는 프로그램 중 영유아의 웰빙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프로그램

자료: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Administration for Children and Families & Child welfare Retrieved from <http://www.acf.hhs.gov/programs#topic-children>, <https://www.childwelfare.gov/preventing/promoting/protectfactors/competence.cfm>.

나) 핀란드

핀란드의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ECEC)는 영유아의 전인적 발달과 그들의 삶에 교육적 상호작용이 일어나도록 돕는다. 특별히 개인의 웰빙 진흥을 강조하며 국가의 영유아교육 및 보육사업의 목적을 영유아의 웰빙으로 내세우고 있다(ECEC in Finland, 2014). 이러한 큰 목적 아래 핀란드 정부는 영유아의 건강, 능력을 길러주고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정책을 펼치고 있다. 특히 건강한 자아존중감, 배우고자 하는 욕구, 사회성 등을 길러줌으로서 개인의 안정적 관계를 바탕으로 영유아의 웰빙이 진흥된다는 입장이다. 2011년 자료에 따르면 98%의 6세유아가 유아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ECEC in Finland, 2014).

IV. 지표로 보는 유아기 행복감 수준

1. 물질적 수준

물질적 수준 영역에서는 가정환경과 이에 대한 유아의 주관적 만족(주양육자 응답)을 살펴보았다.

가. 가정환경

유아를 둘러싼 가정환경 영역은 가정의 평균 소득, 1년간 가정 소득의 변화, 부모의 경제활동 여부와 참여 정도, 재화 보유 및 경험 여부, 가족의 경제적 상황으로 인한 걱정 빈도를 조사하였다.

1) 가정 소득, 소득의 변화, 부모의 경제활동

첫째, 가정의 한 달 평균 소득을 조사한 결과, 200만원 미만이 39.1%로 가장 많았고, 본 연구에서 저소득 계층을 과대표집하였으므로 소득이 높은 집단이 낮은 비율을 보였다. 또한 지역규모에 따라 소득 수준에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500만원 이상인 경우 어머니가 취업한 집단이 미취업이나 해당없음 집단에 비해 높았으며, 어머니가 없는 경우(해당없음)에는 85.7%가 200만원 미만에 해당하였다.

〈표 IV-1-1〉 한 달 평균 소득

구분	단위: %, 명					계(수)	X ² (df)
	200만원 미만	200~299만원	300~399만원	400~499만원	500만원 이상		
전체	39.1	21.6	19.1	12.1	7.8	99.7(997)	
지역규모							
대도시	41.8	17.0	20.7	12.9	7.6	43.5(435)	
중소도시	37.6	24.9	18.4	11.3	7.9	52.2(522)	12.41(8)
읍면지역	32.5	30.0	12.5	15.0	10.0	4.0(40)	
모취업여부							
취업	37.7	17.6	16.2	14.8	13.7	35.8(358)	-
미취업	38.5	24.4	21.4	11.0	4.7	61.8(618)	

(표 IV-1-1 계속)

구분	200만원 미만	200~299 만원	300~399 만원	400~499 만원	500만원 이상	계(수)	$X^2(df)$
해당없음	85.7	9.5	4.8	0.0	0.0	2.1(21)	

주: 무응답 3명(0.3%)은 제외하고 제시하였으며, IV장의 모든 X^2 검증에서도 제외하였음.

둘째, 최근 1년간 가정의 소득 변화에 대해 변화가 없다는 응답이 73.2%로 가장 많았으며, 감소하였다는 16.1%, 증가하였다는 10.7%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 소득 수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는데, 소득 수준 260만원 이하인 경우 감소하였다는 응답은 23.0%이지만 증가하였다는 응답은 5.6%로 다른 집단과 차이를 보였으며, 451만원 이상 집단은 증가하였다는 응답이 31.71%로 상대적으로 많았다.

〈표 IV-1-2〉 최근 1년간 가정 소득 변화 여부

단위: %, 명

구분	감소하였음	변화 없음	증가하였음	계(수)	$X^2(df)$
전체	16.1	73.2	10.7	100.0(1,000)	
지역규모					
대도시	15.9	73.3	10.8	43.5(435)	
중소도시	16.6	72.6	10.9	52.2(522)	1.01(4)
읍면지역	12.5	80.0	7.5	4.0(40)	
취업여부					
취업	18.4	69.8	11.7	35.8(358)	
미취업	14.3	77.5	10.2	62.1(621)	-
해당없음	28.5	61.9	9.5	2.1(21)	
부모소득					
260만원이하	23.0	71.3	5.6	58.5(585)	
261~350만원	6.9	79.9	13.23	18.9(189)	
351~450만원	6.4	77.3	16.31	14.1(141)	99.49(6)***
451만원이상	3.7	64.6	31.71	8.2(82)	

*** $p < .001$.

셋째, 부모의 경제활동 여부 및 참여 정도에 대해 알아보았다. 먼저 아버지의 경우 93.0%가 취업한 상태라고 응답하였다. 어머니가 미취업인 경우 아버지의 취업률은 96.3%이었으며, 부모소득 수준이 260만원 이하인 집단에서는 아버지 취업률이 87.9%로 다른 집단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이었다.

〈표 IV-1-3〉 아버지 경제활동 여부

구분	취업	미취업	계(수)	단위: %, 명 $X^2(df)$
전체	93.0	7.0	100(918)	
지역규모				
대도시	91.9	8.1	42.8(393)	2.21(2)
중소도시	93.6	6.4	53.1(487)	
읍면지역	97.4	2.6	4.1(38)	
취업여부				
취업	81.7	12.8	34.0(312)	28.42(2)***
미취업	96.3	3.7	64.8(595)	
해당없음	81.8	18.2	1.2(11)	
부모소득				
260만원이하	87.9	12.1	55.1(505)	40.20(3)***
261~350만원	100.0	0.0	20.5(188)	
351~450만원	98.6	1.4	15.4(141)	
451만원이상	98.8	1.2	9.0(82)	

주: '해당없음'으로 응답한 82명(8.2%)은 제외한 값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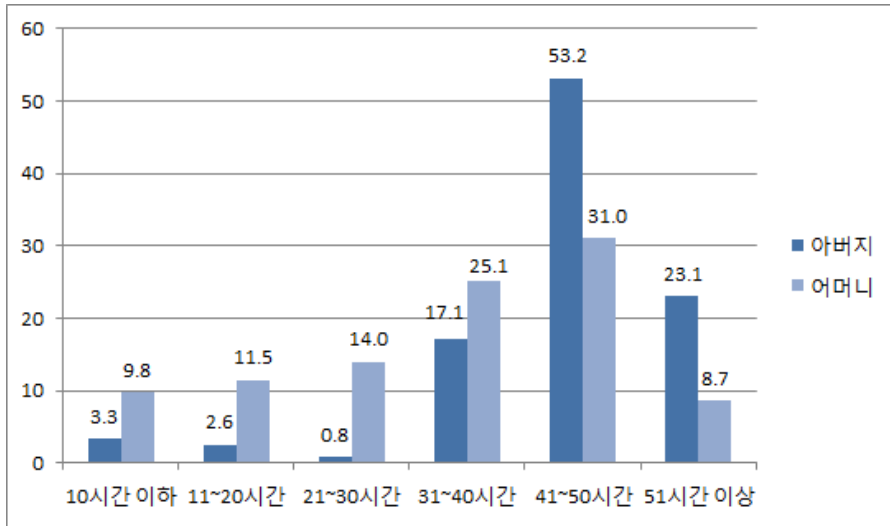
*** $p < .001$.

어머니의 경우 36.6%가 취업한 상태라고 응답하여서 과반수(63.4%)는 미취업 상태이었다. 지역규모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부모소득 수준이 451만원 이상인 경우 어머니 취업률은 63.41%로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으며, 261~350만원인 경우 어머니 취업률은 29.95%로 다른 집단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다.

〈표 IV-1-4〉 어머니 경제활동 여부

구분	취업	미취업	계(수)	단위: %, 명 $X^2(df)$
전체	36.6	63.4	100(979)	
지역규모				
대도시	35.21	64.79	43.5(426)	.66(2)
중소도시	37.48	65.52	52.6(515)	
읍면지역	39.47	60.53	3.9(38)	
부모소득				
260만원이하	34.45	65.55	58.0(566)	30.42(3)***
261~350만원	29.95	70.05	19.2(187)	
351~450만원	39.01	60.99	14.4(141)	
451만원이상	63.41	36.59	8.4(82)	

*** $p < .001$.



[그림 IV-1-1] 부모의 경제활동 참여 시간

한편 아버지와 어머니의 일주일 근로시간을 조사한 결과, 아버지(53.2%)와 어머니(31.0%) 모두 41~50시간 일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나, 어머니에 비해 아버지의 근로시간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재화 보유 및 경험 여부

가) 재화 보유 여부

가정에서의 유아에 대한 물질적 환경을 알아보기 위해 유아의 개인 소유물을 '잘 맞는 신발', '잘 맞는 옷', '연령수준에 맞는 책', '연령수준에 맞는 장난감', '야외활동위한 장비'의 유무에 따라 조사하였다. '잘 맞는 신발'은 99.2%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었고, '야외활동위한 장비'는 80.4%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의 개인 소유물에 대해 부모소득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전반적으로 소득이 높을수록 유아가 각각의 물품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모취업여부에 따라서 '연령수준에 맞는 책', '연령수준에 맞는 장난감', '야외활동위한 장비'의 소유여부에 대한 차이가 있었으며, 어머니가 취업을 하지 않은 유아가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더 많았고, 어머니가 없는 집단의 경우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역규모별 '야외활동위한 장비'의 소유여부에 대한 응답에 차이가 나타났는데, 읍면지역에서 소유정도가 더 낮았다. 하지만 읍면도시의 유아는 그 수가 많지 않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표 IV-1-5〉 유아의 개인 소유물

구분	단위: %, 명					계(수)
	잘 맞는 신발	잘 맞는 옷	연령수준에 맞는 책	연령수준에 맞는 장난감	야외활동위한 장비	
전체	99.2	98.2	92.5	89.8	80.4	1000(1000)
지역규모						
대도시	99.1	97.9	92.6	89.4	76.8	43.5(435)
중소도시	99.2	98.3	92.6	90.3	84.2	52.5(525)
읍면지역	100.0	100.0	90.0	87.5	70.0	4.0(40)
$X^2(df)$	-	.93(2)	.38(2)	.43(2)	11.15(2)**	
모취업여부						
취업	99.2	98.0	90.5	87.4	77.1	35.8(358)
미취업	99.4	98.4	94.4	92.3	83.7	62.1(621)
해당없음	95.2	95.2	71.4	57.1	38.1	2.1(21)
$X^2(df)$	-	1.22(2)	18.61(2)***	30.78(2)***	30.72(2)***	
부모소득						
260만원이하	98.6	97.1	88.0	85.1	71.8	58.5(585)
261~350만원	100.0	100.0	98.4	96.3	94.2	18.9(189)
351~450만원	100.0	99.3	98.6	95.7	92.2	14.1(141)
451만원이상	100.0	100.0	100.0	97.6	90.2	8.2(82)
$X^2(df)$	-	-	40.40(3)***	33.39(3)***	67.87(3)***	

** $p < .01$, *** $p < .001$.

가정에서의 유아에 대한 물질적 환경을 알아보기 위해 가정의 공용물 소유정도를 '컴퓨터(인터넷)', '라디오·mp3등', 'TV(케이블·위성)', '전화기·휴대전화', '가족 승용차'의 유무로 분석하였다. 응답한 가정 중 '전화기·휴대전화'는 96.9%, 'TV(케이블·위성)'는 96.5%, '컴퓨터(인터넷)'는 94.0%, '가족 승용차'는 76.2%, '라디오·mp3등'은 65.5%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취업 여부에 따른 '전화기·휴대전화'를 제외한 모든 가정의 공용물 소유여부에 대해 차이가 있었으며, 어머니가 없는 집단에서 각각 물품에 대한 소유율이 낮았다. 부모소득에 따라서 '컴퓨터(인터넷)', '라디오·mp3등', '가족 승용차'에 대해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전반적으로 소득이 높을수록 이들을 소유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지역규모에 따라 '라디오·mp3등', '가족 승용차'의 소유여부에도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 도시의 규모가 커질수록 가족승용차 소유는 더 낮은 비율을 나타냈다.

〈표 IV-1-6〉 가정의 공용물 소유 여부

단위: %, 명

구분	컴퓨터 (인터넷)	라디오· mp3 등	TV(케이블· 위성)	전화기· 휴대전화	가족 승용차	계(수)
전체	94.0	65.5	96.5	96.9	76.2	1,000(1,000)
지역규모						
대도시	93.8	59.3	96.3	96.8	70.6	43.5(435)
중소도시	94.5	70.7	96.4	97.1	79.8	52.5(525)
읍면지역	90.0	65.0	100.0	95.0	90.0	4.0(40)
$X^2(df)$	1.38(2)	13.58(2)**	1.51(2)	.60(2)	15.56(2)**	
모취업여부						
취업	93.9	63.1	95.5	97.2	71.2	35.8(358)
미취업	95.2	67.8	97.4	96.8	80.4	62.1(621)
해당없음	61.9	38.1	85.7	95.2	38.1	2.1(21)
$X^2(df)$	39.87(2)**	9.32(2)**	9.80(2)**	.34(2)	27.60(2)**	
부모소득						
260만원이하	91.6	54.7	96.4	96.2	61.7	58.5(585)
261~350만원	96.8	79.4	98.4	95.8	96.3	18.9(189)
351~450만원	99.3	83.0	95.7	99.3	97.9	14.1(141)
451만원이상	96.3	80.5	93.9	100.0	97.6	8.2(82)
$X^2(df)$	16.53(3)**	73.48(3)**	-	-	167.59(3)**	

** $p < .01$, *** $p < .001$.

나) 경험 여부

가족과의 활동을 알아보기 위해 최근 6개월 동안의 친구초대여부, 생일 등 특별한 일을 축하한 경험, 도서관 및 극장 등의 공공여가공간이나 시설과 문화 시설 이용여부, 여가 활동 및 행사 참여 여부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공원 및 동네산책이 평균 16.77회로 가장 높았으며 운동경기 및 스포츠행사는 1.67회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IV-1-7〉 최근 6개월 동안의 활동 평균

구분	단위: 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전체	5.10	1.67	3.35	1.86	1.86	1.86	1.69	.85	16.77
지역규모									
대도시	4.17	1.82	3.00	1.89	1.83	2.09	1.79	.63	15.37
중소도시	6.00	1.57	3.72	1.84	1.90	1.70	1.65	1.01	18.11
읍면지역	3.40	1.30	2.35	1.60	1.65	1.55	1.05	1.08	14.48
모취업여부									
취업	4.06	1.66	2.53	1.81	1.75	1.78	1.63	.75	14.52
미취업	5.78	1.70	3.88	1.90	1.94	1.93	1.73	.90	18.06
해당없음	2.71	1.05	1.71	1.19	1.24	1.14	1.19	1.00	17.19
부모소득									
260만원이하	3.87	1.51	3.24	1.55	1.51	1.61	1.86	.79	16.38
261~350만원	7.13	1.67	2.98	2.01	1.96	2.04	1.01	.76	15.94
351~450만원	6.37	2.13	3.96	2.30	2.35	2.38	1.73	.99	19.31
451만원이상	7.18	2.11	4.01	3.00	3.26	2.48	1.98	1.26	17.04

주: ① 친구초대 ② 생일 등 특별한일 축하 ③ 도서관 ④ 극장, 콘서트, 공연장 ⑤ 전시관, 박물관, 역사 유적지 ⑥ 동물원, 수족관, 놀이공원 ⑦ 지역사회 및 종교단체 행사 ⑧ 운동경기 및 스포츠 행사 ⑨ 공원 및 동네산책

3) 가족의 경제적 상황으로 인한 걱정 빈도

가족의 경제적 상황에 대한 걱정을 4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평균 2.3점으로 '가끔 걱정함'의 응답비율이 57.5%로 가장 높았다. '자주 걱정함'에는 20.4%, '전혀 하지 않음'에는 11.4%, '항상 걱정함'에는 10.7%가 응답하였다. 또한, 부모소득에 따라 가족의 경제적 상황에 대한 걱정 정도에서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는데, 451만원 이상인 집단 평균이 1.78점으로, 소득이 낮을수록 경제적 상황에 대한 걱정이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어머니가 없는 집단의 경우 평균 2.95점으로 가장 높았고 어머니가 취업하지 않은 집단은 가장 낮았다.

〈표 IV-1-8〉 경제적 상황에 대한 걱정

단위: %, 명, 점

구분	전혀 하지 않음	가끔 걱정함	자주 걱정함	항상 걱정함	계(수)	$\chi^2(df)$	평균	t/F
전체	11.4	57.5	20.4	10.7	100.0(1,000)		2.30	
지역규모								
대도시	13.3	52.4	21.8	12.4	43.5(435)	10.35(6)	2.33	.51
중소도시	9.9	61.1	19.8	9.1	52.5(525)		2.28	
읍면지역	10.0	65.0	12.5	12.5	4.0(40)		2.28	
모취업여부								
취업	11.5	54.2	23.5	10.9	35.8(358)	-	2.34	7.99***
미취업	11.3	60.4	19.2	9.2	62.1(621)		2.26	
해당없음	14.3	28.6	4.8	52.4	2.1(21)		2.95	
부모소득								
260만원이하	6.8	49.2	28.0	15.9	58.5(585)	141.19(9)***	2.53 ^c	48.74***
261~350만원	12.2	67.2	13.8	6.9	18.9(189)		2.15 ^b	
351~450만원	20.6	72.3	7.1	0.0	14.1(141)		1.87 ^a	
451만원이상	26.8	69.5	2.4	1.2	8.2(82)		1.78 ^a	

*** $p < .001$.

나. 주관적 만족

주양육자(응답자)가 생각하는 유아가 자신의 소유물에 대해 가지는 만족감을 4점 척도로 조사하였다. 전체 평균은 약 3.3점이었으며 '좋아하는 편임'으로 인식한 응답자가 66.6%, '매우 좋아함'이 30.7%, '좋아하지 않은 편임'이 2.5%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라 만족감의 정도에 대해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표 IV-1-9〉 유아자신의 소유물에 대한 만족(주양육자 응답)

단위: %, 명, 점

구분	전혀 좋아하지 않음	좋아하지 않은 편임	좋아하는 편임	매우 좋아함	계(수)	평균	t/F
전체	.2	2.5	66.6	30.7	100.0(1,000)	3.28	

(표 IV-1-9 계속)

구분	전혀 좋아하지 않음	좋아하지 않은 편임	좋아하는 편임	매우 좋아함	계(수)	평균	t/F
성별							
남아	.2	2.5	66.4	30.9	51.2(512)	3.28	.08
여아	.2	2.5	66.8	30.5	48.8(488)	3.28	
연령							
만4세	.2	2.6	65.0	32.2	50.0(500)	3.29	.86
만5세	.2	2.4	68.2	29.2	50.0(500)	3.26	
지역규모							
대도시	.5	2.3	65.3	32.0	43.5(435)	3.29	.30
중소도시	0.0	2.5	67.6	29.9	52.5(525)	3.27	
읍면지역	0.0	5.0	67.5	27.5	4.0(40)	3.23	
모취업여부							
취업	0.0	3.9	67.9	28.2	35.8(358)	3.24	2.30
미취업	.2	1.8	65.5	32.5	62.1(621)	3.30	
해당없음	4.8	0.0	76.2	19.0	2.1(21)	3.10	
부모소득							
260만원이하	.3	4.1	70.4	25.1	58.5(585)	3.20 ^a	11.16 ^{***}
261~350만원	0.0	0.0	66.1	33.9	18.9(189)	3.34 ^{ab}	
351~450만원	0.0	.7	56.7	42.6	14.1(141)	3.42 ^b	
451만원이상	0.0	0.0	57.3	42.7	8.2(82)	3.43 ^b	

*** $p < .001$.

2. 건강

건강 영역은 객관적 건강 요소, 건강 행동 및 현재 건강 상태로 구성하여 조사하였다.

가. 객관적 건강

1) 출생 시 저체중 및 모유수유 여부

출생 시의 유아의 저체중 여부를 확인한 결과, 대부분 저체중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1〉 출생 시 저체중 여부

구분	예	아니요	계(수)	단위: %, 명	
				X^2	(df)
전체	5.0	95.0	100.0(1,000)		
성별					
남아	4.5	95.5	51.2(512)	.57(1)	
여아	5.5	94.5	48.8(488)		
연령					
만4세	5.6	94.4	50.0(500)	.76(1)	
만5세	4.4	95.6	50.0(500)		
지역규모					
대도시	5.1	94.9	43.5(435)	.01(2)	
중소도시	5.0	95.0	52.5(525)		
읍면지역	5.0	95.0	4.0(40)		
모취업여부					
취업	6.4	93.6	35.8(358)	3.19(2)	
미취업	4.3	95.7	62.1(621)		
해당없음	0.0	100.0	2.1(21)		
부모소득					
260만원이하	5.3	94.7	58.5(585)	.71(3)	
261~350만원	4.2	95.8	18.9(189)		
351~450만원	4.3	95.7	14.1(141)		
451만원이상	6.1	93.9	8.2(82)		

또한, 출생 시 저체중 여부는 유아의 성별, 연령, 지역규모, 모취업여부와 부모소득에 따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2〉 수유 방법

구분	모유수유	혼합수유 (모유+분유)	분유	모름	단위: %, 명	
					계(수)	
전체	50.3	34.9	14.3	.5	100.0(1,000)	
성별						
남아	50.2	35.4	13.9	.6	51.2(512)	
여아	50.4	34.4	14.8	.4	48.8(488)	
연령						
만4세	50.2	36.2	13.2	.4	50.0(500)	
만5세	50.4	33.6	15.4	.6	50.0(500)	

(표 IV-2-2 계속)

구분	모유수유	혼합수유 (모유+분유)	분유	모름	계(수)
지역규모					
대도시	48.3	35.2	15.9	.7	43.5(435)
중소도시	52.4	34.9	12.4	.4	52.5(525)
읍면지역	45.0	32.5	22.5	0.0	4.0(40)
모취업여부					
취업	46.1	40.5	12.8	.6	35.8(358)
미취업	52.5	32.0	15.0	.5	62.1(621)
해당없음	57.1	23.8	19.0	0.0	2.1(21)
부모소득					
260만원이하	49.2	33.8	16.1	.9	58.5(585)
261~350만원	52.9	32.3	14.8	0.0	18.9(189)
351~450만원	46.8	44.7	8.5	0.0	14.1(141)
451만원이상	57.3	31.7	11.0	0.0	8.2(82)

대상 유아의 어린 시절 수유방법에 대해 50.3%가 모유 수유를 하였다고 응답하였고, 그 다음 혼합수유는 34.9%, 분유는 14.3%로 나타났다.

2) 예방접종

필수예방접종 정도에 대해 물어본 결과, 현재 연령까지 모두 접종했다는 의견이 73.8%, 대부분 접종했다는 의견이 24.3%로 98% 정도가 대부분의 예방접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3〉 필수예방접종 정도

구분	단위: %, 명					계(수)
	거의하지 않음	반 이상 접종 안했음	대부분 접종했음	현재 연령까지 모두 접종했음	모름	
전체	.3	1.4	24.3	73.8	.2	100.0(1,000)
성별						
남아	0.0	1.8	24.4	73.4	.4	51.2(512)
여아	.6	1.0	24.2	74.2	0.0	48.8(488)

(표 IV-2-3 계속)

구분	거의하지 않음	반 이상 접종 안했음	대부분 접종했음	현재 모두 접종했음	연령까지 접종했음	모름	계(수)
연령							
만4세	.2	1.8	25.0	72.8	.2		50.0(500)
만5세	.4	1.0	23.6	74.8	.2		50.0(500)
지역규모							
대도시	.5	.9	22.1	76.3	.2		43.5(435)
중소도시	.2	1.7	24.4	73.5	.2		52.5(525)
읍면지역	0.0	2.5	47.5	50.0	0.0		4.0(40)
모취업여부							
취업	.3	1.7	27.1	70.4	.6		35.8(358)
미취업	.3	1.0	22.1	76.7	0.0		62.1(621)
해당없음	0.0	9.5	42.9	47.6	0.0		2.1(21)
부모소득							
260만원이하	.3	2.2	25.3	71.8	.3		58.5(585)
261~350만원	0.0	0.0	18.5	81.5	0.0		18.9(189)
351~450만원	0.0	.7	27.7	71.6	0.0		14.1(141)
451만원이상	1.2	0.0	24.4	74.4	0.0		8.2(82)

3) 만성질환 및 건강문제로 인한 기관 결석

한편 3개월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이 있는지를 문의한 결과, 응답 유아의 97.2%는 그러한 질병이 없다고 응답하였고 2.8%만이 있다고 답하였다. 한편, 3개월 이상 치료 요하는 질병 유무는 유아의 성별, 연령, 지역규모와 모취업 여부에 따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4〉 3개월 이상 치료 요하는 질병 유무

구분	예	아니요	계(수)	단위: %, 명 $X^2(df)$
전체	2.8	97.2	100.0(1,000)	
성별				
남아	2.7	97.3	51.2(512)	.02(1)
여아	2.9	97.1	48.8(488)	
연령				
만4세	2.6	97.4	50.0(500)	.15(1)
만5세	3.0	97.0	50.0(500)	

(표 IV-2-4 계속)

구분	예	아니요	계(수)	X ² (df)
지역규모				
대도시	3.7	96.3	43.5(435)	2.20(2)
중소도시	2.1	97.9	52.5(525)	
읍면지역	2.5	97.5	4.0(40)	
모취업여부				
취업	2.0	98.0	35.8(358)	2.32(2)
미취업	3.4	96.6	62.1(621)	
해당없음	0.0	100.0	2.1(21)	
부모소득				
260만원이하	2.7	97.3	58.5(585)	-
261~350만원	1.6	98.4	18.9(189)	
351~450만원	4.3	95.7	14.1(141)	
451만원이상	3.7	96.3	8.2(82)	

〈표 IV-2-5〉 기관 병결 횟수

단위: %, 명

구분	전혀 없음	1~2일	3~5일	6~10일	11일 이상	해당없음	계(수)
전체	80.9	14.7	3.2	.6	.3	.3	100.0(1,000)
성별							
남아	81.4	13.5	3.7	.6	.2	.6	51.2(512)
여아	80.3	16.0	2.7	.6	.4	0.0	48.8(488)
연령							
만4세	79.8	15.2	3.4	1.0	.2	.4	50.0(500)
만5세	82.0	14.2	3.0	.2	.4	.2	50.0(500)
지역규모							
대도시	78.4	17.2	2.8	.7	.5	.5	43.5(435)
중소도시	81.9	13.3	3.8	.6	.2	.2	52.5(525)
읍면지역	95.0	5.0	0.0	0.0	0.0	0.0	4.0(40)
모취업여부							
취업	79.3	17.0	2.8	.3	0.0	.6	35.8(358)
미취업	82.0	13.2	3.4	.8	.5	.2	62.1(621)
해당없음	76.2	19.0	4.8	0.0	0.0	0.0	2.1(21)
부모소득							
260만원이하	78.8	16.4	3.6	.5	.2	.5	58.5(585)
261~350만원	84.7	10.6	3.2	1.1	.5	0.0	18.9(189)

(표 IV-2-5 계속)

구분	전혀 없음	1~2일	3~5일	6~10일	11일 이상	해당없음	계(수)
부모소득							
351~450만원	82.3	14.2	3.5	0.0	0.0	0.0	14.1(141)
451만원이상	85.4	13.4	0.0	0.0	1.2	0.0	8.2(82)

주: 최근 한달 동안 병결을 한 횟수임.

또한 유아들이 아파서 기관에 가지 못하는 경우를 확인한 결과, 전혀 없는 경우가 80.9%로 대부분 병결이 많지 않았으나 1~2일 빠지는 경우는 14.7%, 3~5일 정도 빠지는 경우는 3.2일 정도로 나타났다.

4) 체중 및 신장

유아의 체중과 신장을 조사한 결과, 전반적으로 체중과 신장의 분포는 소아 발육 표준치(질병관리본부, 대한소아과학회, 소아·청소년 신체발육표준치 제정위원회, 2007: 124)의 범위와 유사한 것으로 추측된다.

전체 유아의 평균 체중은 20.45kg이었으며 성별, 연령, 지역규모에 따라 유의한 평균 차이가 있었다. 성별에 있어서는 남아의 몸무게가 여아보다 더 많이 나갔으며, 연령에 있어서는 만5세의 몸무게가 만4세보다 더 많이 나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규모별로 몸무게 평균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는데, 대도시와 중소도시는 읍면도시와의 차이가 나타나 읍면도시의 아이들이 몸무게가 더 많았다.

〈표 IV-2-6〉 유아의 체중, 신장 및 BMI

구분	체중	신장	단위: kg, cm, %, BMI					계(수)	평균
			저체중	정상	과체중	비만	고도 비만		
전체	20.45	115.25	28.4	49.7	11.0	8.9	1.7	100.0(997)	20.43
성별									
남아	20.85	115.86	24.1	50.1	13.5	9.8	2.5	51.2(511)	20.82
여아	20.03	114.61	33.1	49.6	8.4	8.0	0.8	48.8(486)	20.03
t/F, X ² (df)	4.02***	3.47***	18.17(4)**						
연령									
만4세	19.59	113.02	41.0	45.2	8.0	4.6	1.2	50.0(498)	19.59
만5세	21.31	117.48	16.0	54.5	14.0	13.2	2.2	50.0(499)	21.28
t/F, X ² (df)	-8.88***	-12.35***	89.01(4)***						

(표 IV-2-6 계속)

구분	체중	신장	저체중	정상	과체중	비만	고도 비만	계(수)	평균
지역규모									
대도시	20.29 ^a	114.94 ^{ab}	27.3	55.2	9.5	6.9	1.2	43.5(433)	20.29
중소도시	20.46 ^a	115.68 ^b	29.7	46.1	12.2	10.3	1.7	52.5(525)	20.46
읍면지역	21.95 ^b	113.00 ^a	25.6	41.0	12.8	12.8	7.7	3.9(39)	21.56
<i>t/F, X²(df)</i>	3.07*	4.81**	19.56(8)*						
모취업여부									
취업	20.68	115.96 ^a	25.1	48.3	13.4	11.5	1.7	35.8(358)	20.68
미취업	20.32	114.76 ^a	30.6	50.2	9.9	7.8	1.6	618(618)	20.30
해당없음	20.14	117.52 ^a	23.8	66.7	4.8	0.0	4.8	2.1(21)	20.14
<i>t/F, X²(df)</i>	1.79	6.30**	13.77(8)						
부모소득									
260만원이하	20.30	115.15	30.7	49.8	9.6	7.9	2.1	58.5(585)	20.30
261~350만원	20.38	114.82	27.1	51.6	11.7	8.5	1.1	18.9(189)	20.29
351~450만원	20.89	115.61	24.1	48.2	14.9	11.3	1.4	14.1(141)	20.89
451만원이상	21.04	116.59	22.2	49.4	13.6	13.6	1.2	8.2(82)	21.07
<i>t/F, X²(df)</i>	2.53	1.17	11.57						

* $p < .05$, ** $p < .001$.

또한 유아의 평균 신장은 115.25cm로 조사되었으며, 성별, 연령, 지역규모, 모취업여부에 따라 키의 평균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성별에 있어서는 남아가 여아보다 키가 컸으며, 연령에 있어서는 만5세가 만4세보다 키가 컸다. 또한 중소도시 유아의 키가 다른 도시 지역보다 컸으며 취업여부에 따라서는 평균의 차이는 있었으나 비슷하였다.

과체중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BMI 값을 살펴본 결과, 여아보다는 남아에게서, 만4세보다는 만5세 유아에게서 비만 혹은 고도 비만인 유아가 더 많이 나타났다.

5) 수면시간

한편 유아의 하루 평균 수면시간을 살펴본 결과, 10시간을 잔다는 경우가 43.3%, 그 다음이 9시간으로 34.2%, 8시간은 14.0% 정도로 나타났다. 전체 평균 수면 시간은 9.39시간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역규모에 따른 평균 수면시간의 차이가 나타났는데, 대도시와 중소도시에 다른 차이가 나타나 중소도시 유아의 평균 수면 시간이 약간 많았다.

〈표 IV-2-7〉 하루 평균 수면시간

단위: %, 명, 시간

구분	6	7	8	9	10	11	12	14	계(수)	평균
전체	.1	2.1	14.0	34.2	43.3	4.8	1.4	.1	100.0(1,000)	9.39
성별										
남아	.2	2.0	11.7	35.4	43.9	5.7	1.2	0.0	51.2(512)	9.43
여아	0.0	2.3	16.4	33.0	42.6	3.9	1.6	.2	48.8(488)	9.35
$X^2(df), t/F$					-					0.17
연령										
만4세	0.0	2.4	14.8	31.6	44.4	5.6	1.2	0.0	50.0(500)	9.40
만5세	.2	1.8	13.2	36.8	42.2	4.0	1.6	.2	50.0(500)	9.39
$X^2(df), t/F$					-					1.22
지역규모										
대도시	.2	3.0	20.9	29.9	39.3	4.8	1.6	.2	43.5(435)	9.27 ^a
중소도시	0.0	1.5	8.6	36.6	46.9	5.1	1.3	0.0	52.5(525)	9.50 ^b
읍면지역	0.0	0.0	10.0	50.0	40.0	0.0	0.0	0.0	4.0(40)	9.30 ^{ab}
$X^2(df), t/F$					-					7.11 ^{**}
모취업여부										
취업	.3	3.1	12.6	39.7	38.5	5.3	.6	0.0	35.8(358)	9.31
미취업	0.0	1.6	15.1	31.1	45.9	4.2	1.9	.2	62.1(621)	9.43
해당없음	0.0	0.0	4.8	33.3	47.6	14.3	0.0	0.0	2.1(21)	9.71
$X^2(df), t/F$					-					2.99
부모소득										
260만원이하	.2	2.1	14.5	33.8	43.1	5.0	1.4	0.0	58.5(585)	9.38
261~350만원	0.0	3.7	12.7	32.3	43.9	5.3	2.1	0.0	18.9(189)	9.41
351~450만원	0.0	.7	16.3	34.0	44.0	3.5	.7	.7	14.1(141)	9.39
451만원이상	0.0	1.2	9.8	41.5	42.7	3.7	1.2	0.0	8.2(82)	9.41
$X^2(df), t/F$					-					0.66

** $p < .01$.

나. 건강 행동

1) 신체활동 및 식생활

유아의 건강행동을 알아보기 위해 일주일을 기준으로 신체활동과 식생활을 얼마나 하는지 조사하였다.

〈표 IV-2-8〉 신체활동과 식생활 여부

단위: %, 명

구분	전혀 안함	주 1~2일	주 3~4일	주 5일 이상	계(수)
신체활동놀이 횟수	1.4	16.8	34.4	47.4	100.0(1,000)
식생활					
세끼 식사 횟수	.5	3.7	18.0	77.8	100.0(1,000)
과일/야채 섭취 횟수	.5	15.8	41.1	42.6	100.0(1,000)
인스턴트 식품 섭취 횟수	13.0	69.3	14.6	3.1	100.0(1,000)

먼저 신체활동에 대해 살펴보면, 평균적으로 주 3~4일 이상 신체활동을 하는 비율이 81.8% 정도로 나타났다.

유아의 식생활은 하루에 세 끼 식사하는 횟수, 신선한 과일이나 인스턴트식품 섭취 정도 및 편식 정도를 조사하였다. 일주일 기준으로 하루에 세끼 식사하는 횟수를 알아본 결과, 주 5일 이상 세끼 식사를 하는 경우는 77.8%, 주 3~4일 세끼 식사를 하는 경우는 18.0%, 주 1~2일은 3.7%로 나타났다. 만 4~5세 유아들이 성장급등기임을 고려할 때, 주 3~4일과 주 1~2일이 21.7%나 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유아들의 일주일 기준 과일/야채 섭취 횟수를 살펴본 결과, 주 5일 이상 과일과 야채를 섭취하는 경우는 42.6%, 주 3~4일은 41.1%, 주 1~2일은 15.8%였다. 주 3일 이상 야채와 과일을 섭취하는 경우는 83.7%정도였으며 전혀 안하는 경우는 0.5%로 나타났다. 또한 인스턴트 식품 섭취 횟수를 살펴본 결과, 주 5일 이상 인스턴트 식품을 섭취하는 경우는 3.1%, 주 3~4일은 14.6%, 주 1~2일은 69.3%, 전혀 안함은 13.0%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82.3% 정도의 유아가 일주일에 인스턴트 식품을 주1~2회 또는 전혀 섭취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9〉 편식 정도

단위: %, 명

구분	편식이 심함	편식하는 편임	골고루 먹는 편임	골고루 잘 먹음	계(수)
편식 정도	3.8	34.6	44.6	17.0	100.0(1,000)

마지막으로 유아의 식습관 중 편식 정도를 알아본 결과, 골고루 먹는 정도는 61.6%였고, 편식하는 정도는 38.4%로 나타났다.

다. 건강 상태

지금까지의 건강 습관을 고려하여 전반적인 건강상태를 확인한 결과, 매우 건강한 경우는 27.8%, 건강한 편인 경우 69.1%로 나타나 대부분 건강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4점 만점 척도에 평균 점수는 3.24로 유아들이 전반적으로 건강한 편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전반적인 건강상태의 평균 점수는 성별과 부모소득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는데, 여아의 건강 정도가 남아보다 약간 더 높았으며, 부모소득이 260만원 이하인 유아보다 351~450만원인 유아의 건강정도가 더 높았다.

〈표 IV-2-10〉 전반적인 건강상태

단위: %, 명, 점

구분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음	건강이 좋지 않은 편임	건강한 편임	매우 건강함	계(수)	평균	t/F
전체	.9	2.2	69.1	27.8	100.0(1,000)	3.24	
성별							
남아	1.4	2.5	71.1	25.0	51.2(512)	3.20	-2.50*
여아	.4	1.8	67.0	30.7	48.8(488)	3.28	
연령							
만4세	1.0	2.2	71.0	25.8	50.0(500)	3.22	-1.32
만5세	.8	2.2	67.2	29.8	50.0(500)	3.26	
지역규모							
대도시	.5	1.6	73.6	24.4	43.5(435)	3.22	.60
중소도시	1.3	2.9	64.8	31.0	52.5(525)	3.26	
읍면지역	0.0	0.0	77.5	22.5	4.0(40)	3.23	
모취업여부							
취업	.8	3.1	69.8	26.3	35.8(358)	3.22	.53
미취업	1.0	1.6	68.8	28.7	62.1(621)	3.26	
해당없음	0.0	4.8	66.7	28.6	2.1(21)	3.24	
부모소득							
260만원이하	1.4	2.4	71.1	25.1	58.5(585)	3.20 ^a	3.11*
261~350만원	0.0	2.1	70.9	27.0	18.9(189)	3.25 ^{ab}	
351~450만원	0.0	2.1	61.7	36.2	14.1(141)	3.34 ^b	
451만원이상	1.2	1.2	64.6	32.9	8.2(82)	3.29 ^{ab}	

* $p < .05$.

3. 안전

안전 영역에서는 가정에서 유아를 방치하는 여부/정도 및 지역사회 환경에서의 안전에 대한 만족을 조사하였다.

가. 가정환경

〈표 IV-3-1〉 돌봐주는 어른 없이 집에 있는 한 달 평균 빈도

구분	전혀 없음	1~2일	3~4일	5일 이상	계(수)	$X^2(df)$
전체	66.1	21.0	7.8	5.1	100.0(1,000)	
성별						
남아	60.9	23.4	9.2	6.4	51.2(512)	13.48(3)**
여아	71.5	18.4	6.4	3.7	48.8(488)	
연령						
만4세	68.8	19.2	7.6	4.4	50.0(500)	3.66(3)
만5세	63.4	22.8	8.0	5.8	50.0(500)	
모취업여부						
취업	53.4	23.2	12.8	10.6	35.8(358)	-
미취업	73.6	20.1	4.5	1.8	62.1(621)	
해당없음	61.9	9.5	19.0	9.5	2.1(21)	
부모소득						
260만원이하	62.6	21.4	9.4	6.7	58.5(585)	17.22(9)*
261~350만원	74.1	17.5	5.8	2.6	18.9(189)	
351~450만원	66.7	25.5	5.0	2.8	14.1(141)	
451만원이상	70.7	19.5	6.1	3.7	8.2(82)	

* $p < .05$, ** $p < .01$.

대상 유아가 부모님(또는 돌봐주는 어른)없이 집에 혼자 있거나 형제자매끼리만 있는 날을 1달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 그러한 경험이 전혀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66.1%로 나타났다. 반면에, 부모님(또는 돌봐주는 어른)없이 혼자 혹은 형제자매와 집에 있다고 응답한 경우에는 ‘한 달에 1~2일’은 21.0%, ‘한 달에 3~4일’은 7.8%, ‘한 달에 5일 이상’은 5.1%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돌봐주는 어른 없이 집에 있는 1달 기준 평균빈도는 성별, 부모소득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성별에 있어서는 남아가 여아보다 더 높은 빈

도를 보이며, 어머니가 취업한 유아의 경우에도 더 높은 빈도를 나타냈다. 소득 여부에 따라서는 260만원 이하인 경우 '한 달에 5일 이상'이 6.7%로 전체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에서는 만 5세가 만 4세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빈도를 나타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없었다.

〈표 IV-3-2〉 돌봐주는 어른 없이 집에 있는 한 달 평균 빈도(5일 이상)

단위: %, 명

구분	5일	6일	7일	8일	9일	10일	15일	20일	계(수)	평균(일)
일 수	15.7	7.8	9.8	9.8	2.0	31.4	5.9	17.6	100(51)	10.45

주: 집에서 부모님(또는 돌봐주는 어른)없이 집에 혼자 있거나 형제자매끼리만 있는 날이 한 달에 5일 이상으로 응답한 51명을 기준으로 함.

<표 IV-3-1>에서 '한 달에 5일 이상'으로 응답한 51명 중 대상 유아가 보호자 없이 혼자 혹은 형제자매와 함께 집에 있는 평균 일을 다시 묻은 결과, 전체적으로 10일이 31.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20일은 17.6%, 5일은 15.7%로 나타났다.

〈표 IV-3-3〉 돌봐주는 어른 없이 집에 있는 하루 평균 시간

단위: %, 명

구분	1시간 미만	1~2 시간 정도	3~4시간 정도	4시간 이상	계(수)	$X^2(df)$
전체	26.8	51.0	18.9	3.2	100(339)	
성별						
남아	24.5	54.5	16.5	4.5	59(200)	5.98(3)
여아	30.2	46.0	22.3	1.4	41(139)	
연령						
만4세	20.5	55.1	20.5	3.8	46(156)	6.00(3)
만5세	32.2	47.5	17.5	2.7	54(183)	
모취업여부						
취업	19.2	56.3	19.8	4.8	49.3(167)	-
미취업	34.8	45.1	18.3	1.8	48.4(164)	
해당없음	25.0	62.5	12.5	0.0	2.3(8)	
부모소득						
260만원이하	25.1	53.4	18.3	3.2	64.6(219)	-
261~350만원	28.6	49.0	18.4	4.1	14.5(49)	
351~450만원	34.0	44.7	19.1	2.1	13.9(47)	
451만원이상	25.0	45.8	25.0	4.2	7.0(24)	

주: <표 IV-3-1>서 집에서 부모님(또는 돌봐주는 어른)없이 집에 혼자 있거나 형제자매끼리만 있는 날이 1달에 1~2일 이상이라고 응답한 339명을 기준으로 함.

부모님(또는 돌봐주는 어른)없이 집에 혼자 있거나 형제자매끼리만 있는 하루의 평균시간을 조사한 결과 '1~2시간 정도'가 51.0%로 가장 많았고, '1시간 미만'은 26.8%, '3~4시간 정도'는 18.9%, '4시간 이상'은 3.2%이었다.

또한 하루 평균 4시간이상 부모님(또는 돌봐주는 어른)없이 집에 혼자 있거나 형제자매끼리만 있는 경우 '5시간'이 72.7%로 가장 높았고 '6시간'은 18.2%, '4시간'은 9.1%로 나타났다.

〈표 IV-3-4〉 돌봐주는 어른 없이 집에 있는 하루 평균 시간(4시간 이상)

단위: %, 명, 시간					
구분	4시간	5시간	6시간	계(수)	평균
시간	9.1	72.7	18.2	100(11)	5.09

주: <표 IV-3-3>에서 집에서 부모님(또는 돌봐주는 어른)없이 집에 혼자 있거나 형제자매끼리만 있는 시간이 하루 평균 4시간 이상이라고 응답한 11명을 기준으로 함.

나. 지역사회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자녀를 양육하기에 안전한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거주지역의 안전, 기관의 안전, 자녀에 대한 해로운 영향의 유무, 자녀를 괴롭히는 친구에 대한 염려를 조사하였다.

주양육자가 인지하는 안전의 정도를 4점 척도로 측정한 결과, 보육·교육기관이 평균 3.13점으로 가장 안전하다고 응답했고 지역사회에서의 자녀에 대한 나쁜 영향에 대해 2.23점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응답하여서 전반적으로 안전하다고 인지하는 경향이 있었다. 특히 부모소득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260만원 이하의 경우 거주지역과 보·교육기관에서의 안전의 정도가 가장 낮았고 451만원 이상은 나쁜 영향과 자녀를 괴롭히는 또래에 대한 걱정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또한 지역 규모에 따라 중소도시에서 거주지역이나 보육·교육기관을 안전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표 IV-3-5〉 지역사회의 안전

단위: 점				
구분	거주지역의 안전	보육·교육기관	나쁜 영향	괴롭히는 또래에 대한 걱정
전체	2.93	3.13	2.23	2.43
성별				
남아	2.93	3.14	2.22	2.43

(표 IV-3-5 계속)

구분	거주지역의 안전	보육·교육기관	나쁜 영향	괴롭히는 또래에 대한 걱정
여아	2.93	3.12	2.25	2.44
t/F	.09	.53	-.66	-.25
연령				
만4세	2.93	3.13	2.24	2.42
만5세	2.92	3.13	2.23	2.44
t/F	.20	.00	.09	-.48
지역규모				
대도시	2.81	3.08	2.27	2.37
중소도시	3.03	3.17	2.20	2.47
읍면지역	2.93	3.08	2.28	2.29
t/F	15.29***	3.97*	1.29	.16
모취업여부				
취업	2.91	3.13	2.18	2.43
미취업	2.94	3.13	2.27	2.44
해당없음	2.76	3.00	2.19	2.38
t/F	.99	.62	1.81	2.02
부모소득				
260만원이하	2.86 ^a	3.07 ^a	2.31 ^b	2.48 ^b
261~350만원	2.94 ^{ab}	3.11 ^{ab}	2.25 ^b	2.50 ^b
351~450만원	3.09 ^b	3.27 ^{bc}	2.09 ^{ab}	2.32 ^{ab}
451만원이상	3.06 ^{ab}	3.32 ^c	1.95 ^a	2.18 ^a
t/F	6.27***	9.24***	7.86***	4.69**

주: 기관은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 이상 학원을 포함.

* $p < .05$, ** $p < .01$, *** $p < .001$.

4. 주거 환경

주거 환경 영역에서는 가정 및 지역사회 환경으로 나누어 조사하고 유아의 자신이 사는 집에 대한 만족을 살펴보았다.

가. 가정환경

1) 방 개수

거주하고 있는 집의 방 개수를 살펴보면 3개는 48.9%, 2개는 44.8%, 4개는

3.9%의 응답비율이 나타났으며, 방 개수의 평균은 약 2.6개로 조사되었다. 또한 가구원 1인당 방 개수의 평균은 .66개이며, 부모소득이 260만원 이하인 경우 다른 집단에 비해 가구원 1인당 방 개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4-1〉 거주하고 있는 집의 방 개수

단위: %, 명, 개

구분	1개	2개	3개	4개	5개	계(수)	평균	가구원 1인당 방 수
전체	2.3	44.8	48.9	3.9	.1	100.0(1000)	2.55	.66
지역규모								
대도시	2.3	49.0	44.1	4.4	.2	43.5(435)	2.51	.65
중소도시	2.3	43.0	51.4	3.2	0.0	52.5(525)	2.56	.67
읍면지역	2.5	22.5	67.5	7.5	0.0	4.0(40)	2.80	.65
$X^2(df), F$				-				.50
모취업여부								
취업	2.5	48.9	43.3	5.3	0.0	35.8(358)	2.51	.65
미취업	1.9	41.1	53.6	3.2	.2	62.1(621)	2.59	.66
해당없음	9.5	85.7	4.8	0.0	0.0	2.1(21)	1.95	.61
$X^2(df), F$				-				1.06
부모소득								
260만원이하	3.8	61.0	34.4	.9	0.0	58.5(585)	2.32	.61 ^a
261~350만원	.5	23.8	72.5	3.2	0.0	18.9(189)	2.78	.72 ^b
351~450만원	0.0	19.1	72.3	7.8	.7	14.1(141)	2.90	.74 ^b
451만원이상	0.0	19.5	59.8	20.7	0.0	8.2(82)	3.01	.72 ^b
$X^2(df), F$				-				37.48 ^{***}

*** $p < .001$.

2) 주택환경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의 상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물이 새는 지붕, 축축한 바닥과 벽, 어두운 집, 목욕시설 유무, 공용화장실 사용의 여부를 조사하였다. 집이 어둡다고 응답한 비율은 7.0%, 바닥과 벽이 축축한 경우는 4.7%, 목욕시설이 없는 경우는 1.1%, 공용화장실을 사용하는 경우는 0.8%, 지붕에 물이 새는 경우는 0.6%로 나타났다.

〈표 IV-4-2〉 거주지의 상태

단위: %, 명

구분	물이 새는 지붕		축축한 바닥과 벽		어두운 집		목욕시설 없음		공용화장실 사용		계(수)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전체	.6	99.4	4.7	95.3	7.0	93.0	1.1	98.9	.8	99.2	1000(1,000)
지역규모											
대도시	.5	99.5	4.8	95.2	7.6	92.4	.5	99.5	.5	99.5	43.5(435)
중소도시	.8	99.2	4.8	95.2	6.5	93.5	1.5	98.5	1.0	99.0	52.5(525)
읍면지역	0.0	100.0	2.5	97.5	7.5	92.5	2.5	97.5	2.5	97.5	4.0(40)
$X^2(df)$	-		.45(2)		.47(2)		-		-		
모취업여부											
취업	.6	99.4	5.0	95.0	10.3	89.7	1.4	98.6	.8	99.2	35.8(358)
미취업	.6	99.4	4.0	96.0	4.5	95.5	.8	99.2	.6	99.4	62.1(621)
해당없음	0.0	100.0	19.0	81.0	23.8	76.2	4.8	95.2	4.8	95.2	2.1(21)
$X^2(df)$	-		10.37(2)**		21.15(2)***		-		-		
부모소득											
260만원이하	.5	99.5	6.7	93.3	11.1	88.9	1.7	98.3	1.2	98.8	58.5(585)
261~350만원	1.1	98.9	3.2	96.8	2.1	97.9	.5	99.5	.5	99.5	18.9(189)
351~450만원	.7	99.3	.7	99.3	.7	99.3	0.0	100.0	0.0	100.0	14.1(141)
451만원이상	0.0	100.0	0.0	100.0	0.0	100.0	0.0	100.0	0.0	100.0	8.2(82)
$X^2(df)$	-		15.34(3)**		36.75(3)***		-		-		

** $p < .01$, *** $p < .001$.

한편, '축축한 바닥과 벽', '어두운 집'에 대한 응답은 모취업 여부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는데, 어머니가 없는 집단의 경우 '예'로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부모소득에 따른 '축축한 바닥과 벽', '어두운 집', '목욕시설 없음'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거주지 불안정 상황

주거 형태를 살펴보면 일반아파트가 51.3%, 영구임대 및 임대 아파트는 15.3%, 연립주택(빌라)은 12.5%, 다세대주택은 11.5%, 단독 주택은 8.4%, 상가주택 및 오피스텔은 0.9%, 임시가건물은 0.1%로 나타났다. 한편, 어머니가 없는 집단에서는 영구임대아파트의 거주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최근 1년 동안 이사를 한 횟수를 조사한 결과, 평균은 0.13회로 나타났다. '없

음'이 87.0%로 가장 높았고 '1회'는 12.7%로 나타났다. 한편, 최근 1년 동안 이사한 평균 횟수는 451만원 이상의 부모소득의 경우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IV-4-3〉 주거형태

단위: %, 명, 회

구분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빌라)	일반아파트	영구임대/임대아파트	상가주택/오피스텔	임시가건물	계(수)	이사 횟수 평균
전체	8.4	11.5	12.5	51.3	15.3	.9	.1	1000(1000)	.13
지역규모									
대도시	8.3	15.9	15.4	43.0	16.6	.9	0.0	43.5(435)	.13
중소도시	7.2	8.0	10.3	58.5	14.9	1.0	.2	52.5(525)	.13
읍면지역	25.0	10.0	10.0	47.5	7.5	0.0	0.0	4.0(40)	.18
$X^2(df), F$				-					.28
모취업여부									
취업	9.5	15.4	12.8	45.5	15.1	1.4	.3	35.8(358)	.12
미취업	7.6	9.0	12.4	56.2	14.2	.7	0.0	62.1(621)	.14
해당없음	14.3	19.0	9.5	4.8	52.4	0.0	0.0	2.1(21)	.10
$X^2(df), F$				-					.81
부모소득									
260만원이하	10.1	16.1	16.4	33.2	23.3	.9	.2	58.5(585)	.12 ^a
261~350만원	5.8	5.3	10.1	73.0	4.7	1.1	0.0	18.9(189)	.12 ^a
351~450만원	5.0	5.7	5.0	81.6	2.8	0.0	0.0	14.1(141)	.14 ^a
451만원이상	8.5	2.4	3.7	80.5	2.4	2.4	0.0	8.2(82)	.26 ^b
$X^2(df), F$				-					3.77 [*]

주: 1) '비거주용 건물'을 제외하고 기타의 응답인 '오피스텔', '임대 아파트'를 '상가주택/오피스텔', '영구임대아파트/임대아파트'로 재분류하여 분석함.

2) 이사횟수평균은 최근 1년 동안 이사한 횟수를 조사해 평균으로 나타냄.

* $p < .05$.

나. 지역사회 환경

1) 지역 사회의 시설

가) 시설 이용에 대한 편리성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사회에서 이용시설의 편리성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의료시설, 운동 및 여가시설, 문화시설, 장난감/도서 대여센터 이용의 편리성을

인식하는 정도를 조사하였다. 놀이터, 공원, 산책로, 운동장 등의 운동 및 여가 시설 이용에 대한 편리성은 4점 척도에서 평균 약 3.1점으로 가장 높았고, 지역 규모와 부모소득에 따라 운동 및 여가시설 이용에 대해 인식하는 편리성이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읍면지역은 평균 약 2.7점으로 다른 집단에 비해 낮게 나타났으며, 부모소득의 경우 소득이 높을수록 평균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표 IV-4-4〉 지역시설 이용 편리성

구분	의료시설	운동 및 여가시설	문화시설	장난감/도서 대여센터	단위: 점, 명 계(수)
전체	3.07	3.12	2.75	2.53	100.0(1,000)
성별					
남아	3.06	3.13	2.75	2.53	100.0(512)
여아	3.08	3.12	2.75	2.53	100.0(488)
t/F	-.40	.23	-.16	-.18	
연령					
만4세	3.07	3.12	2.76	2.53	100.0(500)
만5세	3.07	3.12	2.74	2.53	100.0(500)
t/F	-.05	.00	.32	.16	
지역규모					
대도시	3.05	3.06	2.68	2.53	100.0(435)
중소도시	3.13	3.21	2.84	2.58	100.0(525)
읍면지역	2.65	2.68	2.33	1.95	100.0(40)
t/F	9.62***	14.09***	11.50***	11.39***	
모취업여부					
취업	3.08	3.12	2.76	2.49	100.0(358)
미취업	3.07	3.12	2.75	2.55	100.0(621)
해당없음	2.95	3.14	2.67	2.43	100.0(21)
t/F	.32	.01	.13	.78	
부모소득					
260만원이하	3.02 ^a	3.05 ^a	2.70 ^a	2.46 ^a	58.5(585)
261~350만원	3.11 ^{ab}	3.14 ^{ab}	2.74 ^a	2.59 ^{ab}	18.9(189)
351~450만원	3.10 ^{ab}	3.25 ^{ab}	2.85 ^{ab}	2.62 ^{ab}	14.1(141)
451만원이상	3.28 ^b	3.37 ^b	2.94 ^{ab}	2.67 ^{ab}	8.2(82)
t/F	3.80*	7.02***	3.15*	2.97*	

주: 문화시설은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영화관, 공연시설 등을 포함함.

* $p < .05$, *** $p < .001$.

각 시설에 대해 응답자가 인지하는 편리성의 정도는 의료시설의 경우 평균 3.1점, 문화시설 이용은 약 2.8점,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의 장난감/도서 대여센터는 약 2.5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의료시설의 편리성에 대한 인식은 지역규모와 부모소득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부모소득이 높음에 따라 지역의 의료시설 이용이 편리하다고 인식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시설과 장난감/도서 대여센터의 경우에도 지역규모와 부모소득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문화시설의 경우 중소도시, 대도시, 읍면지역의 순으로 문화시설의 이용이 더 편리하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장난감 및 도서 대여센터의 이용에 대한 편리성은 중소도시의 평균이 약 2.6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읍면지역의 경우 약 2.0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나) 지역사회 환경에 대한 만족

현재 거주하고 있는 동네와 그 곳의 이웃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유아와 함께 갈만한 곳의 여부, 재미있는 일의 여부, 유아가 놀 수 있는 장소에 대한 만족도, 이웃 간의 관계 등을 4점 척도로 조사하였다. 유아와 함께 갈만한 곳의 여부를 알아본 결과 전체 평균 2.8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재미있는 일이 있는 정도는 약 2.6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부모소득이 높을수록 지역사회 환경에 대한 만족하는 정도가 높은 편이었는데, 351~450만원의 경우 갈만한 곳이 있는 편이라고 인식한 정도가 가장 높은 반면, 260만원 이하는 유아가 놀 수 있는 장소에 대한 만족이 가장 낮았다.

〈표 IV-4-5〉 동네에 대한 만족도

구분				단위: 점, 명
	갈만한 곳	재미있는 일	놀 수 있는 장소	계(수)
전체	2.80	2.57	2.71	100.0(1,000)
성별				
남아	2.75	2.57	2.69	100.0(512)
여아	2.85	2.56	2.73	100.0(488)
t/F	-2.29*	.23	-.88	
연령				
만4세	2.78	2.57	2.72	100.0(500)
만5세	2.82	2.56	2.69	100.0(500)
t/F	-.90	.21	.76	

(표 IV-45 계속)

구분	갈만한 곳	재미있는 일	놀 수 있는 장소	계(수)
지역규모				
대도시	2.76	2.51	2.63	100.0(435)
중소도시	2.86	2.65	2.79	100.0(525)
읍면지역	2.38	2.15	2.38	100.0(40)
t/F	11.19***	10.78***	9.66	
모취업여부				
취업	2.75	2.52	2.65	100.0(358)
미취업	2.83	2.59	2.73	100.0(621)
해당없음	2.81	2.62	2.90	100.0(21)
t/F	1.43	1.09	1.92	
부모소득				
260만원이하	2.74 ^a	2.49 ^a	2.62 ^a	58.5(585)
261~350만원	2.78 ^{ab}	2.61 ^{ab}	2.76 ^{ab}	18.9(189)
351~450만원	2.98 ^b	2.73 ^b	2.89 ^b	14.1(141)
451만원이상	2.93 ^{ab}	2.73 ^b	2.88 ^b	8.2(82)
t/F	6.03***	5.64**	7.69***	

* $p < .05$, *** $p < .001$.

2) 이웃

이웃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서로 돕고 의지할 수 있는 정도와 자녀를 서로 보살피는 정도를 4점 척도로 알아본 결과 각각 평균 약 2.7점, 2.6점으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이웃 간의 서로 돕고 의지하는 정도는 모취업 여부와 부모소득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어, 어머니가 취업하지 않은 경우 그 정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부모소득이 351~450만원인 경우 평균 2.92점으로 서로 돕고 의지하고 있는 정도가 가장 높았다.

한편, 지역규모, 모취업 여부, 부모소득에 따라 이웃 간에 서로 자녀를 보살피는 정도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중소도시의 경우 가장 그 정도가 높았고 대도시가 가장 낮았다. 어머니가 없는 집단의 경우 그리고 부모소득이 260만원 이하인 경우 가장 낮았다.

〈표 IV-4-6〉 이웃과의 관계

			단위: 점, 명
구분	서로 돕고 의지	서로 자녀보살핌	계(수)
전체	2.73	2.61	100.0(1,000)
성별			
남아	2.74	2.62	100.0(512)
여아	2.72	2.61	100.0(488)
<i>t/F</i>	.49	.23	
연령			
만4세	2.75	2.60	100.0(500)
만5세	2.72	2.63	100.0(500)
<i>t/F</i>	.66	.78	
지역규모			
대도시	2.69	2.54 ^a	100.0(435)
중소도시	2.77	2.68 ^b	100.0(525)
읍면지역	2.75	2.55 ^{ab}	100.0(40)
<i>t/F</i>	1.89	4.85 ^{**}	
모취업여부			
취업	2.65 ^{ab}	2.54 ^a	100.0(358)
미취업	2.79 ^a	2.67 ^a	100.0(621)
해당없음	2.38 ^b	2.14 ^b	100.0(21)
<i>t/F</i>	7.59 ^{***}	8.74 ^{***}	
부모소득			
260만원이하	2.66 ^a	2.56 ^a	58.5(585)
261~350만원	2.79 ^{ab}	2.68 ^{ab}	18.9(189)
351~450만원	2.92 ^b	2.73 ^b	14.1(141)
451만원이상	2.77 ^{ab}	2.66 ^{ab}	8.2(82)
<i>t/F</i>	6.60 ^{***}	2.93 [*]	

* $p < .05$, *** $p < .001$.

다. 주관적 만족

유아가 자신이 사는 집에 대해 만족하는 정도를 주양육자가 어떻게 인식하는지 알아보았다. 4점 척도로 유아의 만족을 알아본 결과 평균은 약 3.1점이며, 유아가 '좋아하는 편'이라고 인식한 응답자가 65.0%, '매우 좋아함'이 23.7% 등으로 나타났다.

〈표 IV-4-7〉 유아의 거주지에 대한 만족(주양육자 응답)

단위: %, 명, 점

구분	전혀 좋아하지 않음	좋아하지 않은 편임	좋아하는 편임	매우 좋아함	계(수)	$X^2(df)$	평균	t/F
전체	1.6	9.7	65.0	23.7	100.0(1,000)		3.11	
성별								
남아	1.8	9.2	66.4	22.7	51.2(512)	1.26(3)	3.10	-.44
여아	1.4	10.2	63.5	24.8	48.8(488)		3.12	
연령								
만4세	1.4	8.2	67.2	23.2	50.0(500)	3.42(3)	3.12	.71
만5세	1.8	11.2	62.8	24.2	50.0(500)		3.09	
지역규모								
대도시	1.4	9.4	66.0	23.2	43.5(435)	4.23(6)	3.11	.79
중소도시	1.9	10.5	63.6	24.0	52.5(525)		3.10	
읍면지역	0.0	2.5	72.5	25.0	4.0(40)		3.23	
모취업여부								
취업	1.4	13.7	63.4	21.5	35.8(358)		3.05 ^{ab}	5.52 ^{**}
미취업	1.6	7.1	65.9	25.4	62.1(621)	-	3.15 ^a	
해당없음	4.8	19.0	66.7	9.5	2.1(21)		2.81 ^b	
부모소득								
260만원이하	2.1	12.8	67.0	18.1	58.5(585)	49.40(9) ^{***}	3.01 ^a	15.24 ^{***}
261~350만원	1.6	6.3	66.1	25.9	18.9(189)		3.16 ^{ab}	
351~450만원	0.0	4.3	64.5	31.2	14.1(141)		3.27 ^{bc}	
451만원이상	0.0	4.3	50.0	45.1	8.2(82)		3.40 ^c	

** p < .01, *** p < .001.

또한, 주양육자가 인식하는 유아의 거주지에 대한 만족은 모취업여부 및 부모소득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어머니가 미취업인 경우 그리고 부모소득이 높을수록 만족하는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5. 보육·교육 경험

유아의 보육·교육 경험 영역은 참여경험, 스트레스, 주관적 만족으로 구성되어 조사하였다.

가. 참여경험

유아의 참여 경험에 대해 보육·교육 기관 참여, 기관을 옮긴 경험, 기관 외에서의 특별활동 참여를 조사하였다.

1) 보육·교육기관 참여

유아가 현재 다니고 있는 기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각각 50.9%와 47.9%로 비슷하였고, 교습학원 17.0%, 문화센터 7.0% 등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만5세는 유치원을, 만4세는 어린이집을 가장 많이 다니고 있었고, 교습학원 등의 기타 기관에 대해서는 만5세가 좀 더 많이 다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가 취업한 경우에는 미취업인 경우보다 자녀를 어린이집에 더 많이 보내고 있었다.

〈표 IV-5-1〉 현재 다니는 기관(중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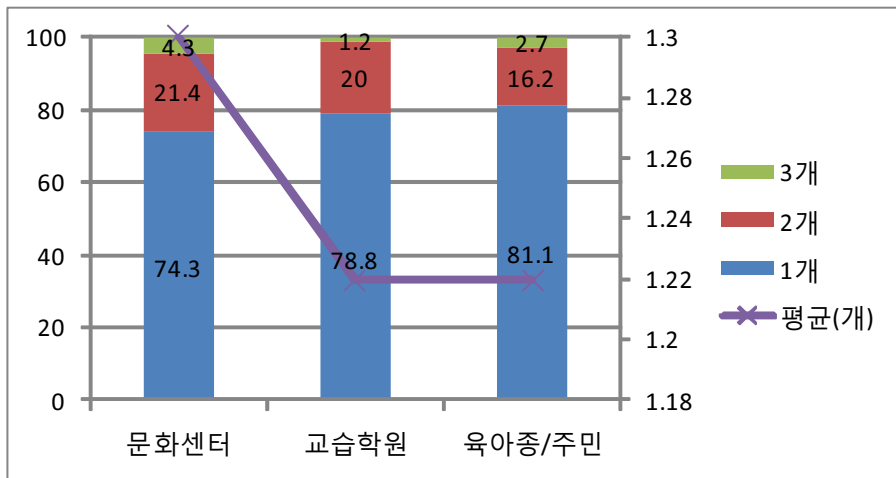
구분	단위: %, 명								계(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전체	50.9	47.9	17.0	7.0	3.7	.5	.4	1.1	100.0(1000)
성별									
남아	50.6	48.0	15.6	4.9	3.7	.6	.6	1.0	51.2(512)
여아	51.2	47.7	18.4	9.2	3.7	.4	.2	1.2	48.8(488)
연령									
만4세	43.4	55.2	14.8	6.4	2.4	.4	.6	0.6	50.0(500)
만5세	58.4	40.6	19.2	7.6	5.0	.6	.2	1.6	50.0(500)
지역규모									
대도시	46.2	52.0	19.3	9.2	5.3	.9	.5	1.1	43.5(435)
중소도시	56.0	43.4	14.9	5.5	2.7	.2	.2	1.1	52.5(525)
읍면지역	35.0	62.5	20.0	2.5	0.0	0.0	2.5	0.0	4.0(40)
모취업여부									
취업	46.6	52.0	14.5	5.3	2.8	.6	.6	0.8	35.8(358)
미취업	54.3	44.9	18.7	7.9	4.0	.5	.3	1.0	62.1(621)
해당없음	23.8	66.7	9.5	9.5	9.5	0.0	0.0	9.5	2.1(21)
부모소득									
260만원이하	45.5	53.0	11.1	4.3	3.2	.2	.7	1.3	58.5(585)
261~350만원	57.1	42.3	22.8	7.9	6.3	.5	0.0	0.0	18.9(189)
351~450만원	61.7	38.3	27.7	14.2	2.8	.7	0.0	2.1	14.1(141)

(표 IV-5-1 계속)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계(수)
부모소득									
451만원이상	57.3	40.2	28.0	12.2	2.4	2.4	0.0	1.2	8.2(82)

주: 1) ① 유치원 ② 어린이집 ③ 교습학원 ④ 문화센터 ⑤ 육아종합지원센터/주민센터의 프로그램
 ⑥ 반일제 이상 학원 ⑦ 해당없음 ⑧기타(영어도서관, 일시보육시설, 청소년 수련원, 축구교실, 복지관, 공부방, 구민체육센터, 유아놀이학교, 선교원)
 2) 중복응답이므로 X²검증을 실시하지 않았음.

한편 교습학원, 문화센터 및 육아종합지원센터/주민센터를 이용하는 경우 현재 이용 중인 기관의 개수를 조사한 결과는 [그림IV-5-1]과 같으며, 문화센터는 평균 1.30개, 교습학원과 육아종합지원센터/주민센터는 각각 1.22개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V-5-1] 기관 이용 개수: 교습학원, 문화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주민센터

2) 보육·교육기관 옮김

이용하고 있는 기관을 지난 1년 동안 옮긴 적이 있다는 응답은 7.8%이었고, 이들 중 97.4%는 1회, 2.6%는 2회 옮긴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하지만 대다수(91.8%)는 지난 1년 동안 한 기관을 지속적으로 이용하고 있었다.

한편 기관 변경 여부에 있어 유아의 성별 및 연령, 지역규모, 모취업여부 및 부모소득에 따른 차이는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표 IV-5-2〉 최근 1년간 기관 변경 여부

구분	단위: %, 명			계(수)
	예	아니요	해당없음	
기관 변경 여부	7.8	91.8	.4	100.0(1,000)

주. 기관은 유치원, 어린이집 및 반일제 이상 학원만 해당함.

3) 기관 외에서 특별활동 참여

유아의 기관 외에서의 경험은 책 읽기, 학습활동(학습지, 글자카드·교구 이용한 활동) 및 특별활동(음악, 체육 등 특기·적성 활동)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표 IV-5-3〉 기관 외에서의 경험-책읽기 참여 일수

구분	단위: %, 명					X ² (df)
	전혀 안함	주 1~2일	주 3~4일	주 5일 이상	계(수)	
전체	4.7	28.4	35.6	31.3	100.0(1000)	
성별						
남아	5.7	28.9	36.9	28.5	51.2(512)	5.28(3)
여아	3.7	27.9	34.2	34.2	48.8(488)	
연령						
만4세	5.4	27.2	35.0	32.4	50.0(500)	2.04(3)
만5세	4.0	29.6	36.2	30.2	50.0(500)	
지역규모						
대도시	3.4	27.8	35.9	32.9	43.5(435)	19.49(6)**
중소도시	5.0	27.6	36.6	30.9	52.5(525)	
읍면지역	15.0	45.0	20.0	20.0	4.0(40)	
모취업여부						
취업	6.4	31.3	33.5	28.8	35.8(358)	29.25(6)***
미취업	3.2	25.9	37.2	33.7	62.1(621)	
해당없음	19.0	52.4	23.8	4.8	2.1(21)	
부모소득						
260만원이하	6.3	31.5	34.5	27.7	58.5(585)	34.33(9)***
261~350만원	1.6	25.4	42.3	30.7	18.9(189)	
351~450만원	.7	27.0	33.3	39.0	14.1(141)	
451만원이상	7.3	14.6	32.9	45.1	8.2(82)	

주. 기관은 유치원, 어린이집 및 반일제 이상 학원을 의미함.

** $p < .01$, *** $p < .001$.

첫째, 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유아가 얼마나 책 읽기 활동에 참여하는지에 대해 주 3~4일 35.6%, 주 5일 이상 31.3%, 주 1~2일 28.4%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지역규모, 모취업여부 및 부모소득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지역규모가 클수록, 어머니가 미취업인 경우, 그리고 소득이 높을수록 책 읽기 참여 일수가 많은 경향이 있었다.

〈표 IV-5-4〉 기관 외에서의 경험-학습활동 참여 일수

구분	단위: %, 명				계(수)
	전혀 안함	주 1~2일	주 3~4일	주 5일 이상	
학습 참여	13.8	44.9	24.4	16.9	100.0(1000)

주: 기관은 유치원, 어린이집 및 반일제 이상 학원을 의미함.

둘째, 유아가 학습지나 글자카드·교구 등의 학습활동을 얼마나 참여하는지 조사한 결과, 주 1~2일 참여한다는 응답이 44.9%로 가장 많았고, 주 3~4일 24.4%, 주 5일 이상 16.9%, 전혀 안함 13.8%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학습활동 참여에 있어 유아의 성별 및 연령, 지역규모, 모취업여부 및 부모소득에 따른 차이는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만4, 5세에 해당하는 조사대상 유아들이 모두 비슷한 수준의 학습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표 IV-5-5〉 기관 외에서의 경험-특별활동 참여 일수

구분	단위: %, 명				계(수)	$\chi^2(df)$
	전혀 안함	주 1~2일	주 3~4일	주 5일 이상		
전체	32.3	31.3	21.4	15.0	100.0(1,000)	
성별						
남아	35.5	28.9	21.7	13.9	51.2(512)	6.28(3)
여아	28.9	33.8	21.1	16.2	48.8(488)	
연령						
만4세	35.0	33.6	19.2	12.2	50.0(500)	11.44(3)*
만5세	29.6	29.0	23.6	17.8	50.0(500)	
지역규모						
대도시	32.6	29.9	21.4	16.1	43.5(435)	1.88(6)
중소도시	32.2	32.0	21.7	14.1	52.5(525)	
읍면지역	30.0	37.5	17.5	15.0	4.0(40)	

(표 IV-5-5 계속)

구분	전혀 안함	주 1~2일	주 3~4일	주 5일 이상	계(수)	X ² (df)
모취업여부						
취업	36.6	27.9	20.7	14.8	35.8(358)	13.55(6)*
미취업	29.1	34.0	21.6	15.3	62.1(621)	
해당없음	52.4	9.5	28.6	9.5	2.1(21)	
부모소득						
260만원이하	38.1	28.5	20.3	13.0	58.5(585)	32.82(9)***
261~350만원	30.2	35.4	20.6	13.8	18.9(189)	
351~450만원	19.1	36.9	25.5	18.4	14.1(141)	
451만원이상	19.5	30.5	24.4	25.6	8.2(82)	

주: 기관은 유치원, 어린이집 및 반일제 이상 학원을 의미함.

* $p < .05$, *** $p < .001$.

셋째, 유아가 음악, 체육 등 특기·적성 활동에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 전혀 안함과 주 1~2일은 각각 32.3%, 31.3%로 유사하였으며, 주 3~4일 21.4%, 주 5일 이상 15.0%로 나타났다. 특별활동은 학습활동과는 달리 연령, 모취업여부, 부모소득에 따른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는데, 만5세의 경우 주 3일 이상(주 3~4일+주 5일 이상) 참여하는 경우가 41.4% 정도로 만4세보다 더 많이 참여하고 있었고, 취업모의 경우 전혀 안한다는 비율이 36.6%로 어머니가 미취업인 경우(29.1%)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부모소득의 경우 소득이 높을수록 특별활동에 참여하는 날이 더 많은 경향을 보였다.

나. 스트레스

유아의 학습 경험에 대한 스트레스는 유아가 학습시간을 얼마나 지겨워하는지 그리고 학습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 조사하였다.

〈표 IV-5-6〉 학습 경험에 대한 스트레스

구분	단위: 점	
	학습시간 지겨움	학습 스트레스
전체	2.16	2.11
성별		
남아	2.22	2.17

(표 IV-5-6 계속)

구분	학습시간 지겨움	학습 스트레스
성별		
여아	2.09	2.05
t/F	2.73**	2.72**
연령		
만4세	2.14	2.05
만5세	2.18	2.17
t/F	-2.58*	-1.01
지역규모		
대도시	2.17	2.11
중소도시	2.15	2.12
읍면지역	2.13	1.98
t/F	.72	.10
모취업여부		
취업	2.21	2.15
미취업	2.13	2.09
해당없음	2.33	2.10
t/F	.74	2.00
부모소득		
260만원이하	2.22 ^a	2.17 ^a
261~350만원	2.09 ^{ab}	2.08 ^{ab}
351~450만원	2.00 ^b	1.96 ^b
451만원이상	2.15 ^{ab}	1.96 ^b
t/F	4.69**	3.93**

주: 1) 학습시간 지겨움: ○○는 학습(읽기·쓰기활동, 수 연산활동, 학습지 등) 시간을 지겨워한다.

2) 학습 스트레스: ○○는 학습(읽기·쓰기활동, 수 연산활동, 학습지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

* $p < .05$, ** $p < .01$.

먼저 지겨워하는 정도의 평균은 2.16점이었으며, 남아는 2.22점, 여아는 2.09점으로 남아가 학습시간을 더 지겨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소득에 따른 차이도 있었는데, 260만원 이하의 경우 2.22점으로 가장 높고, 351~400만원의 경우 2.00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한편 학습활동으로 인한 스트레스 정도는 평균 2.11점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서는 지겨움 정도와 동일하게 남아(M=2.17점)가 여아(M=2.05점)보다 스트레스 정도가 더 높게 나타났으며, 부모소득이 260만원 이하인 경우 2.17점으로 가장 높고, 351만원 이상인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또한 연령에 따른 차이도 있었는데, 만4에 비해 만5세의 경우 평균값이 약 0.12점 높아서 연령이 높을수록 스트레스 수준도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다. 주관적 만족

유아가 자신이 다니는 기관에 대해 만족하는지를 주양육자와 유아에게 각각 응답하도록 하였다.

〈표 IV-5-7〉 기관에 대한 만족(주양육자 응답)

단위: %, 명, 점

구분	전혀 좋아하지 않음	좋아하지 않는 편임	좋아하는 편임	매우 좋아함	해당 없음	모름	계(수)	평균	t/F
전체	.3	5.6	59.9	33.8	.3	.1	1000(1000)	3.28	
성별									
남아	.2	5.5	62.9	30.9	.4	.2	51.2(512)	3.25	.36
여아	.4	5.7	56.8	36.9	.2	0.0	48.8(488)	3.30	
연령									
만4세	0.0	6.2	61.0	32.4	.4	0.0	50.0(500)	3.26	.48
만5세	.6	5.0	58.8	35.2	.2	.2	50.0(500)	3.29	
지역규모									
대도시	.2	4.1	62.1	33.3	.2	0.0	43.5(435)	3.29	.40
중소도시	.4	6.9	58.5	33.9	.2	.2	52.5(525)	3.26	
읍면지역	0.0	5.0	55.0	37.5	2.5	0.0	4.0(40)	3.33	
모취업여부									
취업	.6	5.6	66.2	27.1	.6	0.0	35.8(358)	3.21 ^a	4.41*
미취업	.2	5.8	55.9	37.8	.2	.2	62.1(621)	3.32 ^b	
해당없음	0.0	0.0	71.4	28.6	0.0	0.0	2.1(21)	3.29 ^{ab}	
부모소득									
260만원이하	.5	6.3	61.4	31.1	.5	.2	58.5(585)	3.24 ^a	3.10*
261~350만원	0.0	5.8	60.8	33.3	0.0	0.0	18.9(189)	3.28 ^{ab}	
351~450만원	0.0	3.5	54.6	41.8	0.0	0.0	14.1(141)	3.38 ^b	
451만원이상	0.0	3.7	56.1	40.2	0.0	0.0	8.2(82)	3.37 ^{ab}	

주: 기관은 유치원, 어린이집 및 반일제 이상 학원만 해당함.

* $p < .05$.

먼저, 현재 다니고 있는 기관에 대한 선호 정도를 주양육자에게 조사한 결과, 평균 3.28점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으며, 응답 항목별 빈도에서도 좋아한다는 응답(좋아하는 편임+매우 좋아함)이 93.7% 정도로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각 집단의 평균에 대한 차이검증 결과, 모취업여부와 부모소득에 따라 차이가 있었

다. 어머니가 미취업인 경우 취업모인 경우보다 기관 선호 정도가 더 높았으며, 부모소득에 따라서는 351~450만원은 평균 3.38점으로 가장 높은 반면 260만원 이하는 3.24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IV-5-8〉 기관에 대한 만족(유아 응답)

단위: %, 명, 점

구분	매우 안 좋음	안 좋음	중 음	매우 중 음	해당 없음	계(수)	평균
전체	.5	3.9	42.3	52.9	.4	100.0(1,000)	3.48
성별							
남아	.4	4.9	43.6	50.8	.4	100.0(512)	3.45
여아	.6	2.9	41.0	55.1	.4	100.0(488)	3.51
$X^2(df)$			-			t/F	-.22
연령							
만4세	.6	3.6	41.6	53.4	.8	100.0(500)	3.49
만5세	.4	4.2	43.0	52.4	0.0	100.0(500)	3.47
$X^2(df)$			-			t/F	2.04*
지역규모							
대도시	.9	3.2	41.6	54.0	.2	100.0(435)	3.49
중소도시	.2	4.0	43.8	51.6	.4	100.0(525)	3.47
읍면지역	0.0	10.0	30.0	57.5	2.5	100.0(40)	3.49
$X^2(df)$			-			t/F	.09
모취업여부							
취업	.3	6.7	45.0	47.8	.3	100.0(358)	3.41 ^a
미취업	.6	2.4	41.2	55.2	.5	100.0(621)	3.52 ^{ab}
해당없음	0.0	0.0	28.6	71.4	0.0	100.0(21)	3.71 ^b
$X^2(df)$			-			t/F	5.60**
부모소득							
260만원이하	.2	3.9	44.3	51.1	.5	100.0(585)	3.47
261~350만원	.5	3.7	46.0	49.2	.5	100.0(189)	3.45
351~450만원	0.0	3.5	34.8	61.7	0.0	100.0(141)	3.58
451만원이상	3.7	4.9	31.7	59.8	0.0	100.0(82)	3.48
$X^2(df)$			-			t/F	1.59

* $p < .05$, ** $p < .01$.

유아에게 기관에 갈 때 기분이 어떤지 확인한 결과, 매우 좋음 52.9%, 좋음이 42.3%, 안 좋음이 3.9%, 매우 안 좋음이 0.5%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95.2%의

유아들이 기관에 갈 때 기분이 좋은 것으로 보였다. 한편 기관에 갈 때 유아의 기분에 대한 평균 점수는 연령과 모취업여부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는데, 만4세가 만5세보다 기관에 갈 때 기분이 더 좋다고 응답하였으며, 모취업여부의 해당 없음의 유아가 취업모의 유아보다 기관에 갈 때 기분이 더 좋다고 응답하였다.

6. 대인 관계

대인 관계 영역에서는 가족관계, 또래관계 및 대인관계에 대한 주관적 만족으로 구성하여 조사하였다.

가. 가족관계

유아의 대인관계 중 가족관계 영역에서는 부모-자녀 상호작용, 가족과의 긍정적인 관계, 어른들이 귀 기울여주는 정도, 가족 의사 결정에 참여, 화목한 가족 관계, 가족 구성원의 변화 및 주양육자의 전반적인 행복감을 조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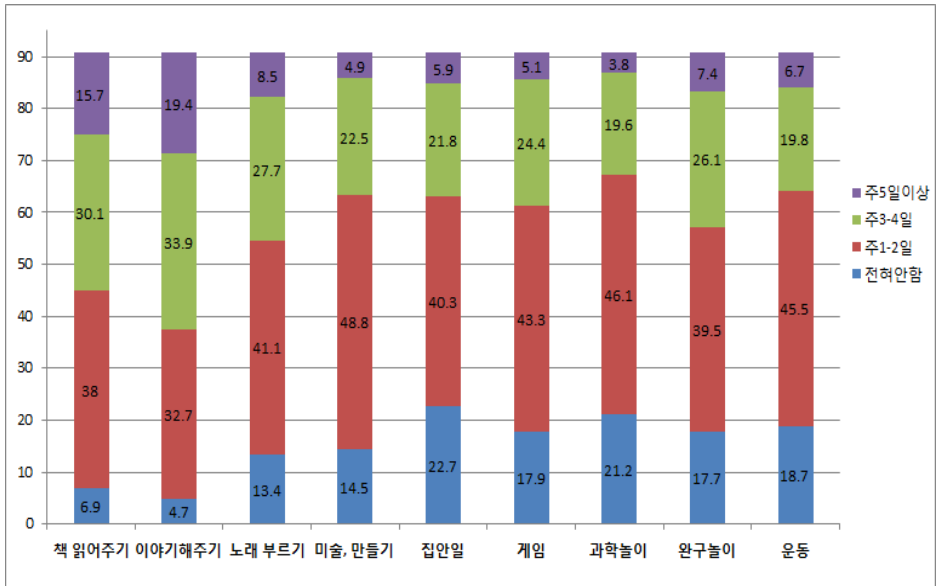
1) 부모와의 상호작용

부모-자녀 상호작용은 책 읽어주기, 이야기해주기, 노래 부르기, 미술이나 만들기, 집안일, 게임, 과학 놀이, 완구 놀이 및 운동 함께 하기 등 총 9가지 활동에 참여하는 일수를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는 [그림 IV-6-1]과 같다.

응답 빈도를 살펴보면, 이야기해주기와 책 읽어주기 활동을 일주일 동안 가장 자주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술이나 만들기 활동(48.8%), 과학 놀이(46.1%), 운동(45.5%) 등은 주 1~2일 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또한 전혀 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집안일 함께 하기(22.7%)와 과학 놀이(21.2%)에서 많이 나타났다.

한편 부모-자녀 상호작용 수준⁵⁾에 대해 유아의 성별, 연령, 지역규모, 모취업 여부 및 부모소득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검증과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IV-6-1>과 같다.

5) 부모-자녀 상호작용 점수는 총 9문항의 평균값임.



주: 전체 1,000명중 해당 없음으로 응답한 93명을 제외하고 907명의 응답만을 제시하였음.

[그림 IV-6-1] 부모-자녀 상호작용 문항별 응답

부모-자녀 상호작용에 대한 차이검증 결과, 유아의 연령, 모취업여부 및 부모 소득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먼저 만5세에 비해 만4세 시기에 부모가 책 읽어주기나 노래 부르기 등의 활동을 통해 자녀와 더 자주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가 미취업인 경우 상호작용 수준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으며, 부모소득에 있어서는 261만원 이하 집단보다 451만원 이상 집단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나 부모의 소득 수준이 높은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와 좀 더 자주 상호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IV-6-1> 부모-자녀 상호작용

구분	평균(표준편차)	수	t/F
전체	2.30(.58)	907	
성별			
남아	2.33(.60)	465	1.45
여아	2.27(.57)	442	

단위: 점, 명

(표 IV-6-1 계속)

구분	평균(표준편차)	수	t/F
연령			
만4세	2.36(.59)	454	3.09**
만5세	2.24(.57)	453	
지역규모			
대도시	2.30(.56)	387	.18
중소도시	2.30(.60)	484	
읍면지역	2.24(.64)	36	
모취업여부			
취업	2.22(.56)	312	-2.81**
미취업	2.34(.59)	595	
부모소득			
261만원이하	2.23(.60) ^a	304	5.01**
261~350만원	2.35(.59) ^{ab}	213	
351~450만원	2.37(.55) ^{ab}	189	
451만원이상	2.45(.47) ^b	121	

주: 전체 1,000명중 해당 없음으로 응답한 93명을 제외하고 907명의 응답을 분석하였음.

** $p < .01$.

2) 가족과의 긍정적인 관계

가족과의 긍정적인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가족의 유아에 대한 칭찬, 애정표현, 자랑스럽게 여김, 관심 및 도움 정도가 어떠한지를 조사하였다.

〈표 IV-6-2〉 가족과의 긍정적인 관계

구분	단위: 점				
	칭찬	애정표현	자랑스럽게 여김	관심	도움
전체	3.14	3.36	3.30	3.28	3.30
성별					
남아	3.14	3.33	3.28	3.27	3.30
여아	3.13	3.38	3.32	3.29	3.30
t/F	.28	-1.28	-.90	-.67	-.12
연령					
만4세	3.17	3.38	3.33	3.28	3.29
만5세	3.11	3.33	3.27	3.28	3.31
t/F	1.65	1.25	1.68	.00	-.38

(표 IV-6-2 계속)

구분	칭찬	애정표현	자랑스럽게 여김	관심	도움
모취업여부					
취업	3.10 ^a	3.31 ^a	3.24 ^{ab}	3.20 ^{ab}	3.25 ^{ab}
미취업	3.17 ^a	3.40 ^a	3.34 ^a	3.34 ^a	3.34 ^a
해당없음	2.86 ^b	2.90 ^b	3.10 ^b	2.95 ^b	3.10 ^b
t/F	4.60*	8.66***	4.26*	9.51***	4.11*
부모소득					
260만원이하	3.09 ^a	3.29 ^a	3.22 ^a	3.20 ^a	3.24 ^a
261~350만원	3.16 ^a	3.41 ^{ab}	3.37 ^{ab}	3.33 ^{ab}	3.34 ^{ab}
351~450만원	3.21 ^{ab}	3.48 ^b	3.41 ^b	3.43 ^b	3.38 ^{ab}
451만원이상	3.34 ^b	3.54 ^b	3.51 ^b	3.50 ^b	3.49 ^b
t/F	6.92***	7.41***	9.66***	10.81***	6.02***

주: 1) 칭찬: 우리 가족은 ○○에게 칭찬을 자주 한다.

2) 애정표현: 우리 가족은 ○○에게 애정표현(스킨십 등)을 자주 한다.

3) 자랑스러움: 우리 가족은 ○○를 자랑스럽게 여긴다.

4) 관심: 우리 가족은 ○○가 하는 일에 관심을 가진다.

5) 도움: 우리 가족은 ○○가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준다.

* $p < .05$, *** $p < .001$.

첫째, 가족과의 긍정적인 관계 중 칭찬을 자주하는가에 대한 응답은 평균 3.14점, 애정표현을 자주하는가에 대한 응답은 평균 3.36점, 그리고 가족들이 자랑스럽게 여기는가에 대해서는 평균 3.30점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다.

차이검증을 실시한 결과, 칭찬, 애정표현 및 자랑스럽게 여김에 있어 모취업 여부와 부모소득에 따른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즉, 미취업모와 취업모 가정에 비해 어머니가 없는 경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부모소득이 260만원 이하인 집단은 세 요인 모두에서 가장 낮은 수준인 반면 451만원 이상은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 소득이 높은 가정에서 칭찬이나 애정표현을 자주하고 유아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가족과의 긍정적인 관계 중 가족이 유아의 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는가, 그리고 유아가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주는가에 대한 응답을 분석한 결과, 각각의 평균은 3.28점, 3.30점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었다.

차이검증 결과, 모취업여부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미취업모의 가정에서 관심 및 도움의 수준이 높았고, 취업모 가정 그리고 어머니가 없는 가정의 순으로 나타나 어머니의 부재에 따른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부모소

득에 따른 차이도 유의미하였으며, 소득이 높은 집단에서 관심과 도움 등의 긍정적인 관계를 갖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칭찬, 애정표현, 자랑스러움, 관심 및 도움 정도 모두에서 유아의 성별과 연령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즉, 가족과의 긍정적인 관계는 유아 관련 변인보다 가족 변인에 의해 차이가 있었다.

3) 어른들이 자신의 말에 귀 기울여주는 정도

어른들이 유아의 말에 귀 기울여주는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어른들이 유아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지, 유아가 기분이 좋지 않을 때 이야기를 들어주는지에 대해 조사하였다.

〈표 IV-6-3〉 어른들의 귀 기울여줌

단위: 점

구분	귀기울임	t/F	기분 좋지 않을 때 들어줌	t/F
전체	3.21		3.05	
성별				
남아	3.22		3.04	
여아	3.20	.74	3.06	-.68
연령				
만4세	3.21		3.06	
만5세	3.21	.16	3.04	.53
모취업여부				
취업	3.15 ^a		3.04	
미취업	3.26 ^a	8.27***	3.06	2.11
해당없음	2.86 ^b		2.76	
부모소득				
260만원이하	3.14 ^a		2.95 ^a	
261~350만원	3.29 ^{ab}	8.11***	3.14 ^{ab}	13.14***
351~450만원	3.33 ^b		3.22 ^b	
451만원이상	3.35 ^b		3.29 ^b	

주. 1) 말에 귀 기울임: 우리 가족은 ○○의 말에 귀기울여준다.

2) 기분 좋지 않을 때 들어줌: 우리 가족은 ○○의 기분이 좋지 않을 때, ○○의 이야기를 들어주기 위해 시간을 보낸다.

*** $p < .001$.

첫째, 가족들이 유아의 말에 귀 기울여주는 정도를 조사한 결과, 평균 3.21점이었으며, 비교적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었다. 차이검증 결과, 미취업모 혹은 취업모 가정보다 어머니가 없는 경우 점수가 더 낮았으며, 부모소득이 260만원 이하인 가정에서 다른 소득 수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둘째, 유아의 기분이 좋지 않을 때 가족들이 이야기를 들어주는가에 대한 응답은 평균 3.05점으로 중간 이상의 수준이었다. 하지만 앞에서 살펴본 유아의 말에 귀를 기울여준다는 응답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한편 부모소득이 260만원 이하인 가정에서 다른 소득 수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등 전반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가족들이 유아가 기분이 좋지 않을 때 이야기를 더 많이 들어주었다.

4) 가족 의사 결정에 참여

가족 의사결정 시 유아가 참여하는 정도를 조사한 결과, 평균 3.01점이었으며, 그런 편이다 59.1%, 매우 그렇다 21.3%, 그렇지 않은 편이다 18.6%로 나타났다.

모취업여부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미취업모 가정이 3.07점으로 가장 높고 어머니가 없는 가정은 2.67점으로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또한 부모소득이 260만원 이하인 가정에서 가장 낮았고 451만원 이상인 경우 다른 집단에 비해 높은 수준이어서,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유아들의 가족 의사결정 참여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6-4〉 가족 의사결정에 참여

단위: %, 명, 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계(수)	$X^2(df)$	평균	t/F
전체	1.0	18.6	59.1	21.3	100.0(1,000)		3.01	
성별								
남아	1.0	20.3	59.0	19.7	51.2(512)	2.88(3)	2.97	-1.58
여아	1.0	16.8	59.2	23.0	48.8(488)		3.04	
연령								
만4세	1.6	17.2	59.6	21.6	50.0(500)	4.74(3)	3.01	.24
만5세	.4	20.0	58.6	21.0	50.0(500)		3.00	

(표 IV-6-4 계속)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계(수)	X ² (df)	평균	t/F
모취업여부								
취업	2.2	21.5	59.2	17.0	35.8(358)		2.91 ^{ab}	
미취업	.3	15.8	60.1	23.8	62.1(621)	-	3.07 ^a	9.91 ^{***}
해당없음	0.0	52.4	28.6	19.0	2.1(21)		2.67 ^b	
부모소득								
260만원이하	1.2	22.6	58.5	17.8	58.5(585)		2.93 ^a	
261~350만원	.5	13.2	65.6	20.6	18.9(189)	31.97(9) ^{***}	3.06 ^{ab}	7.61 ^{***}
351~450만원	0.0	14.2	55.3	30.5	14.1(141)		3.16 ^b	
451만원이상	2.4	11.0	53.7	32.9	8.2(82)		3.17 ^b	

주: 가족 의사결정에 참여: 우리 가족은 가족규칙이나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의 의견을 물어본다.

*** $p < .001$.

5) 화목한 가족관계

화목한 가족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가족 간의 즐거움, 어울림 및 부모 싸움 정도를 조사하였다. 첫째, 가족이 함께 있는 즐거움을 조사한 결과, 평균 3.24점의 높은 수준을 보였다. 다만 부모소득이 260만원 이하인 가정은 평균이 3.17점으로 다른 소득 수준의 가정보다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둘째, 가족들이 서로 잘 어울리는지를 묻는 질문에서도 평균은 3.20점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다. 가족 즐거움과 동일하게 모취업여부와 부모소득에 따른 차이가 있었는데, 어머니가 없는 가정은 2.81점으로 가장 낮아서 미취업모 및 취업모 가정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소득이 260만원 이하인 가정은 351만원 이상인 가정보다 가족 어울림에 있어 더 낮은 수준으로 보고되었다.

〈표 IV-6-5〉 화목한 가족관계-즐거움과 어울림

구분	즐거움	t/F	단위: 점	
			어울림	t/F
전체	3.24		3.20	
성별				
남아	3.21	-1.77	3.19	-.65
여아	3.28		3.21	

(표 IV-6-5 계속)

구분	즐거움	t/F	어울림	t/F
연령				
만4세	3.26	1.11	3.23	1.37
만5세	3.22		3.18	
모취업여부				
취업	3.22	2.23	3.15 ^a	7.67***
미취업	3.27		3.24 ^a	
해당없음	3.05		2.81 ^b	
부모소득				
260만원이하	3.17 ^a	8.55***	3.10 ^a	17.66***
261~350만원	3.33 ^{ab}		3.26 ^{ab}	
351~450만원	3.33 ^{ab}		3.41 ^b	
451만원이상	3.43 ^b		3.41 ^b	

주: 1) 즐거움: 우리 가족은 함께 집에 있는 것이 즐겁다.

2) 어울림: 우리 가족은 서로 잘 어울리며 지낸다.

*** $p < .001$.

셋째, 부모가 얼마나 자주 말다툼이나 싸움을 하는지 조사한 결과, 거의 안한다는 응답이 47.9%로 가장 많았고, 1달에 1~2번 정도 34.4%, 1주일에 1~2번 정도 7.3%, 1주일에 3~4번 정도 1.0% 등으로 나타나 80% 이상의 부모들이 1달에 1~2번 이내로 말다툼이나 싸움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IV-6-6〉 화목한 가족관계-부모 싸움 정도

구분	거의 안함	1달에 1~2번 정도	1주일에 1~2번 정도	1주일에 3~4번 정도	거의 매일	해당 없음	계(수)	X ² (df)
전체	47.9	34.4	7.3	1.0	.1	9.3	100.0(1,000)	
성별								
남아	47.5	35.7	7.0	.6	0.0	9.2	51.2(512)	-
여아	48.4	33.0	7.6	1.4	.2	9.4	48.8(488)	
연령								
만4세	44.4	38.4	7.0	.8	.2	9.2	50.0(500)	8.74(5)
만5세	51.4	30.4	7.6	1.2	0.0	9.4	50.0(500)	

(표 IV-6-6 계속)

구분	거의 안함	1달에 1~2번 정도	1주일에 1~2번 정도	1주일에 3~4번 정도	거의 매일	해당 없음	계(수)	$\chi^2(df)$
모취업여부								
취업	40.2	35.8	10.3	.8	0.0	12.8	35.8(358)	
미취업	53.9	34.8	5.8	1.1	.2	4.2	62.1(621)	-
해당없음	0.0	0.0	0.0	0.0	0.0	100.0	2.1(21)	
부모소득								
260만원이하	44.3	33.2	6.5	.9	0.0	15.2	58.5(585)	
261~350만원	55.6	31.7	8.5	2.1	.5	1.6	18.9(189)	
351~450만원	53.2	40.4	5.7	.7	0.0	0.0	14.1(141)	-
451만원이상	46.3	40.2	13.4	0.0	0.0	0.0	8.2(82)	

6) 가족 구성원의 변화

최근 1년 간 함께 살고 있는 가족 구성원에 변화가 있었는지 조사한 결과, 전체 가구 중 40%가 변화가 있었다고 응답하였다. 변화의 구체적인 이유로는 동생이 태어났다는 응답(30.0%)이 가장 많았으며, 조부모 사망(17.5%), 부모 이혼(15.0%), 조부모와 분가함(7.5%), 아버지 질병(7.5%), 아버지 직장 이동(7.5%), 아버지 사망(5.0%), 어머니 가출(2.5%) 등으로 나타났다.

7) 주양육자의 전반적인 행복감

유아의 주양육자의 행복감이 어떠한지 알아보기 위해 전반적인 행복감과 상대적인 행복감을 나타내는 4문항을 주양육자(어머니 등의 설문 응답자)를 대상으로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그 결과 행복감의 평균은 5.05점으로 나타나 중간 이상의 수준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t검증과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아 변인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이 없이 유사한 수준이었으나, 지역규모, 모취업여부 및 부모 소득에 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표 IV-6-7〉 주양육자의 행복감

구분					평균	t/F
	①	②	③	④		
전체	5.20	5.09	4.95	4.94	5.05	

단위: 점

(표 IV-6-7 계속)

구분	①	②	③	④	평균	t/F
성별						
남아	5.24	5.11	4.96	4.95	5.06	.64
여아	5.17	5.07	4.94	4.92	5.03	
연령						
만4세	5.19	5.10	4.98	4.97	5.06	.46
만5세	5.22	5.08	4.92	4.91	5.03	
지역규모						
대도시	5.27	5.16	4.97	5.04	5.11 ^a	5.25**
중소도시	5.18	5.06	4.98	4.89	5.03 ^a	
읍면지역	4.78	4.68	4.48	4.45	4.59 ^b	
모취업여부						
취업	5.12	4.97	4.91	4.84	4.96 ^a	23.02***
미취업	5.29	5.20	5.02	5.04	5.14 ^a	
해당없음	3.90	3.71	3.90	3.48	3.75 ^b	
부모소득						
260만원이하	5.03	4.86	4.79	4.75	4.86 ^a	20.40***
261~350만원	5.30	5.28	5.05	5.02	5.16 ^{ab}	
351~450만원	5.53	5.43	5.24	5.29	5.37 ^{bc}	
451만원이상	5.62	5.60	5.35	5.46	5.51 ^c	

주: 1) ① 전반적 행복감 ② 상대적 행복감 ③ 행복한 사람들에 대한 자신의 상대적 행복감
④ 불행한 사람들에 대한 자신의 상대적 행복감

- 2) 모름 응답은 제외하고 분석하였음.
3) 4문항을 7점 척도로 측정하였음.

** $p < .01$, *** $p < .001$.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도시지역보다 읍면지역의 경우 행복감 수준이 낮았으며, 어머니가 없는 집단에서 다른 집단에 비해 행복감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비록 표본수가 소수이기는 하나 어머니가 아닌 주양육자의 행복감 수준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부모의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행복감 수준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나. 또래관계

유아의 또래관계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기관에서의 시간을 제외한 또래와의 놀이 참여 일수를 조사한 결과, 주 1~2일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2.0%로 가장

많았고, 주 3~4일 33.4%, 주 5일 이상 14.4%, 거의 안함 10.2%이었다. 즉, 또래를 만나 놀이시간을 갖는 경우는 주 1~2일 이내인 유아가 절반가량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규모에 있어 읍면지역의 경우 거의 안한다는 응답이 27.5%나 되어 지역별 차이가 비교적 큼을 알 수 있었다.

〈표 IV-6-8〉 또래 놀이 참여 일수

단위: %, 명

구분	거의 안함	주 1~2일	주 3~4일	주 5일 이상	계(수)	X ² (df)
전체	10.2	42.0	33.4	14.4	100.0(1,000)	
성별						
남아	9.0	43.0	31.3	16.8	51.2(512)	7.39(3)
여아	11.5	41.0	35.7	11.9	48.8(488)	
연령						
만4세	10.0	43.8	30.8	15.4	50.0(500)	3.53(3)
만5세	10.4	40.2	36.0	13.4	50.0(500)	
지역규모						
대도시	9.4	42.1	33.6	14.9	43.5(435)	16.17(6)*
중소도시	9.5	41.7	34.5	14.3	52.5(525)	
읍면지역	27.5	45.0	17.5	10.0	4.0(40)	
모취업여부						
취업	12.3	43.9	30.7	13.1	35.8(358)	9.13(6)
미취업	8.9	40.9	34.6	15.6	62.1(621)	
해당없음	14.3	42.9	42.9	0.0	2.1(21)	
부모소득						
260만원이하	10.6	43.8	32.3	13.3	58.5(585)	15.06(9)
261~350만원	9.5	39.7	33.9	16.9	18.9(189)	
351~450만원	9.9	36.2	43.3	10.6	14.1(141)	
451만원이상	9.8	45.1	23.2	22.0	8.2(82)	

주: 기관에서의 시간을 제외하고 또래와의 놀이에 얼마나 참여하는지에 대한 응답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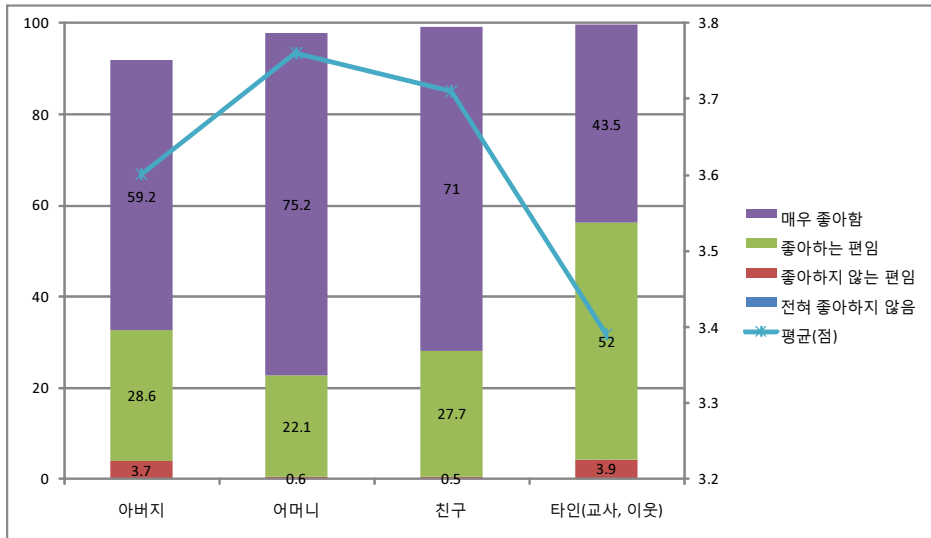
* $p < .05$.

다. 주관적 만족

유아가 가족(아버지와 어머니), 친구, 및 타인(교사와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주양육자와 유아에게 각각 응답하도록 하였다.

1) 주양육자가 응답한 유아의 대인관계에 대한 만족

부모가 인지한 유아의 대인관계에 대한 주관적 만족을 조사하였으며, 아버지, 어머니, 친구 및 교사 등의 타인에 대한 만족 정도는 [그림IV-6-2]와 같이 나타났다.



주. 각 문항에서 해당 없음 값은 제외하고 제시하였음.

[그림 IV-6-2] 대인관계에 대한 만족

각 대상에 관한 응답을 비교해보면, 매우 좋아한다는 응답은 어머니는 75.2% 인데 비해 아버지는 59.2%로 나타났다. 비록 유아가 아닌 부모(주양육자)가 응답한 결과이기는 하지만 평소 아버지와 유아의 관계가 어머니와의 관계에 비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단면으로 여겨진다. 또한 교사나 이웃(주변 어른)에 대한 만족은 매우 좋아함 보다는 좋아하는 편이라는 응답이 52%로 가장 많아서 부모나 친구에 대한 응답 양상과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표 IV-6-9> 대인관계 대한 만족(주양육자 응답)

구분	단위: 점			
	아버지	어머니	친구	타인(교사, 주변어른)
전체	3.60	3.76	3.71	3.39

(표 IV-6-9 계속)

구분	아버지	어머니	친구	타인(교사, 주변어른)
성별				
남아	3.55	3.76	3.70	3.36
여아	3.65	3.76	3.73	3.43
<i>t/F</i>	-.29	-.77	-1.57	.31
연령				
만4세	3.63	3.78	3.69	3.39
만5세	3.57	3.75	3.73	3.39
<i>t/F</i>	.03	.26	1.26	.59
지역규모				
대도시	3.64	3.78 ^a	3.73	3.41
중소도시	3.58	3.76 ^a	3.70	3.39
읍면지역	3.45	3.58 ^b	3.64	3.25
<i>t/F</i>	2.37	3.87*	1.05	1.35
모취업여부				
취업	3.54	3.73	3.67	3.30 ^a
미취업	3.63	3.78	3.74	3.44 ^{ab}
해당없음	3.55	0.0	3.62	3.52 ^b
<i>t/F</i>	2.32	3.17	2.87	7.53**
부모소득				
260만원이하	3.54 ^a	3.75	3.68	3.33 ^a
261~350만원	5.59 ^{ab}	3.73	3.76	3.44 ^{ab}
351~450만원	3.74 ^b	3.79	3.77	3.52 ^b
451만원이상	3.72 ^{ab}	3.82	3.70	3.48 ^{ab}
<i>t/F</i>	5.49**	1.01	2.40	5.51**

주: X²검증 결과(어머니, 친구)는 '전혀 좋아하지 않음'을 제외한 값임.

* $p < .05$, ** $p < .01$.

첫째, 아버지에 대한 만족을 4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평균 3.60점으로 나타나 대다수의 유아들이 아버지를 좋아하고 있다고 조사되었다. 부모소득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는데, 소득이 351~450만원인 경우 260만원 이하집단에 비해 아버지를 더 좋아한다고 응답하였다.

둘째, 어머니에 대한 만족감에 있어 지역규모에 따라 도시지역인 경우 읍면지역에 비해 점수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지역규모와 관련된 기타 변수가 함께 작용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셋째, 친구에 대한 만족감은 평균 3.71점으로 어머니에 대한 만족감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넷째, 교사나 주변 어른 등 타인에 대한 만족감을 조사한 결과, 평균은 3.39점으로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으나, 부모 및 또래에 대한 만족감 점수보다는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이는 유아는 대인관계에 있어 부모와 또래를 가장 가깝게 여기고 좋아하고 있음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모취업여부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어머니가 없는 집단의 평균은 3.52점으로 가장 높고, 미취업모 3.44점, 취업모 3.30점 순이었으며 차이검증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소득에 따라서는 260만원 이하 집단과 351~450만원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즉, 소득 수준이 높은 집단에서 타인에 대한 만족감이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2) 유아가 응답한 대인관계에 대한 만족

유아들에게 엄마와 있을 때 기분이 어떤지를 질문하고 주어진 얼굴 표정을 제시한 후 선택하도록 한 결과, 대부분의 유아들은 어머니와 함께 있을 때 기분이 좋다고 하였으나 안 좋다고 응답한 경우도 있었다(평균 3.77점). 한편 엄마와 함께 있을 때 유아의 기분에 대한 평균 점수는 지역규모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는데, 읍면지역의 유아보다 대도시와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유아가 엄마와 함께 있을 때 기분이 더 좋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아빠와 함께 있을 때를 주어진 얼굴 표정으로 확인한 결과, 아빠와 함께 있을 때 유아의 기분에 대한 평균 점수는 3.61점이었다. 부모소득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는데, 부모소득이 260만원 이하인 유아보다 351~450만원인 유아가 아빠와 함께 있을 때 기분이 더 좋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외의 부모소득 집단 간에는 평균 점수의 차이가 나타났지 않았다.

유아들에게 친구들과 있을 때의 기분을 질문한 결과, 평균 3.62점으로 나타났다. 또한 만 5세가 만4세보다 친구들과 있을 때 기분이 더 좋다고 응답하였다.

선생님과 함께 있을 때 유아의 기분을 질문했을 때는 평균 점수는 3.47점이었다. 부모소득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는데, 부모소득이 261~350만원인 유아보다 351~450만원인 유아가 선생님과 함께 있을 때 기분이 더 좋다고 응답하였다.

〈표 IV-6-10〉 대인관계에 대한 만족(유아 응답)

단위: 점

구분	엄마	아빠	친구	선생님
전체	3.77	3.61	3.64	3.47
성별				
남아	3.77	3.56	3.67	3.43
여아	3.77	3.65	3.61	3.52
t/F	-.77	-.28	1.44	1.00
연령				
만4세	3.76	3.57	3.60	3.47
만5세	3.77	3.64	3.68	3.48
t/F	.21	-.04	-2.08*	1.34
지역규모				
대도시	3.76 ^b	3.57	3.65	3.43
중소도시	3.79 ^b	3.64	3.64	3.51
읍면지역	3.58 ^a	3.50	3.55	3.53
t/F	3.79*	1.96	.54	2.70
모취업여부				
취업	3.75	3.55	3.63	3.43
미취업	3.78	3.63	3.65	3.49
해당없음		3.64	3.67	3.62
t/F	.90	1.88	.10	1.83
부모소득				
260만원이하	3.75	3.55 ^a	3.62	3.45 ^{ab}
261~350만원	3.75	3.64 ^{ab}	3.62	3.41 ^a
351~450만원	3.82	3.77 ^b	3.70	3.64 ^b
451만원이상	3.82	3.61 ^{ab}	3.71	3.54 ^{ab}
t/F	1.33	4.96**	1.04	5.20***

주: 어머니가 안 계신 경우 조부모나 대리양육자와 함께 있을 경우로 질문한 경우도 있음.

* p < .05, ** p < .01, *** p < .001.

7. 자기 자신

자기 자신 영역은 시간/선택, 성취 및 유아의 외모, 자기 자신 및 시간 사용에 대한 주관적 만족으로 구성하여 조사하였다.

가. 시간/선택

유아의 자율성 및 선택권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부모의 행동에 대한 2문항, 유아의 행동에 대한 4문항을 조사하였다.

1) 부모의 통제 및 자유 허용 행동

〈표 IV-7-1〉 자율성 및 선택권-부모의 통제 및 자유 허용 행동

단위: %, 명, 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계(수)	평균
통제 행동	6.4	46.1	45.3	2.2	100.0(1,000)	2.43
자유 허용	.3	13.6	73.0	13.1	100.0(1,000)	2.99

주: 1) 통제 행동: ○○의 행동을 엄격하게 통제하려고 한다.

2) 자유 허용: ○○에게 충분한 자유를 준다.

유아의 자율성 및 선택권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부모의 통제 행동과 자유 허용 정도를 조사하였다. 먼저 부모의 통제 행동을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유아의 행동을 엄격하게 통제하는가에 대한 물음에 그렇지 않은 편이다는 46.1%, 그런 편이다는 45.3%가 응답하였으며 평균 점수는 2.43점으로 중간 정도의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가 유아의 자유를 얼마나 허용하는가에 대해서는 그런 편이라는 응답이 73.0%로 가장 많았고, 그렇지 않은 편이다 13.6%, 매우 그렇다 13.1%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평균은 2.99점으로 유아에게 충분한 자유를 주고 있다는 응답이 더 많은 편이었다.

한편 유아의 성별, 연령, 모취업여부 및 부모소득에 따른 분석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유아의 자율성 및 선택권

유아의 자율성 및 선택권에 대해 알아보았다. 첫째, 유아가 충분한 자유(놀이) 시간을 갖느냐에 대해서는 평균 3.08점이었으며, 모취업여부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는데, 미취업모의 경우(M=3.11점) 다른 집단에 비해 자녀에게 충분한 자유(놀이) 시간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7-2〉 자율성 및 선택권

단위: 점

구분	자유(놀이)시간	자유롭지 못한 행동	자유로운 의사표현	선택권
전체	3.08	2.06	3.13	3.03
성별				
남아	3.08	2.01	3.09	3.00
여아	3.07	2.11	3.17	3.05
t/F	.32	-2.08*	-2.15*	-1.27
연령				
만4세	3.09	2.05	3.17	3.03
만5세	3.06	2.06	3.09	3.02
t/F	1.06	-.16	2.20*	.34
모취업여부				
취업	3.02 _a	2.06	3.14	3.01
미취업	3.11 _b	2.05	3.13	3.04
해당없음	3.00 _{ab}	2.19	3.00	2.76
t/F	3.74*	.32	.59	2.64
부모소득				
260만원이하	3.05	2.06 _a	3.07 _a	2.99 _a
261~350만원	3.06	2.16 _a	3.13 _a	2.99 _a
351~450만원	3.16	2.06 _a	3.21 _{ab}	3.09 _{ab}
451만원이상	3.15	1.78 _b	3.39 _b	3.20 _b
t/F	2.18	4.55**	8.76***	3.93**

주: 1) 자유(놀이) 시간: ○○는 충분한 자유(놀이) 시간을 보내고 있다.
 2) 자유롭지 못한 행동: ○○는 자유롭게 행동하지 못하고 눈치를 본다.
 3) 자유로운 의사표현: ○○는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한다.
 4) 선택권: ○○는 어떻게 시간을 보낼지 등 무언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

* $p < .05$, ** $p < .01$, *** $p < .001$.

둘째, 유아가 자유롭게 행동하지 않거나 눈치를 보는 행동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절반 이상이 유아가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롭게 행동한다고 응답하였으며, 평균은 2.06점이었다. 한편 성별 및 부모소득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여아의 평균은 2.11점으로 남아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소득에 따라서는 451만원 이상 집단은 다른 집단에 비해 자유롭게 행동하지 못하는 성향이 낮게 나타났다.

셋째, 유아가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는지에 대해서는 평균

3.13점으로 나타났다. 차이검증 결과를 살펴보면, 만4세가 만5세보다 그리고 여아가 남아보다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성차는 앞에서 살펴본 눈치를 보는 행동과는 다소 다른 양상인데, 이는 여아가 행동보다 언어로 더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부모소득에 따른 차이가 있었는데, 소득이 451만원 이상 집단에서 가장 점수가 높았는데, 소득 수준이 높은 집단일수록 유아가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유아의 무언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선택권에 대해 조사한 결과, 평균은 3.03점이었다. 부모소득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는데 소득이 451만원 이상인 집단과 351만원 이하인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어 소득이 높은 집단일수록 유아가 자신의 행동이나 시간에 대한 선택권을 더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나. 성취

성취영역에서는 자신감 및 집중력과 관련된 4문항(열심, 새로운 활동에 참여, 집중력, 과제 지속력)을 조사하였다.

〈표 IV-7-3〉 자신감 및 집중력

단위: 점

구분	열심	새로운 활동에 참여	집중력	활동지속력	계(수)
전체	3.08	3.00	3.26	2.91	100.0(1,000)
성별					
남아	3.01	2.96	3.24	2.88	51.2(512)
여아	3.15	3.05	3.28	2.94	48.8(488)
t/F	-3.84***	-2.19*	-1.29	-1.48	
연령					
만4세	3.09	2.98	3.27	2.89	50.0(500)
만5세	3.07	3.03	3.25	2.94	50.0(500)
t/F	.59	-1.19	.53	-1.28	
모취업여부					
취업	3.01 ^{ab}	2.97	3.20 ^a	2.87	35.8(358)
미취업	3.12 ^a	3.03	3.30 ^b	2.94	62.1(621)

(표 IV-7-3 계속)

구분	열심	새로운 활동에 참여	집중력	활동지속력	계(수)
해당없음	2.86 ^b	2.76	3.14 ^{ab}	2.86	21(21)
<i>t/F</i>	5.95 ^{**}	.16	3.45 [*]	1.49	
부모소득					
260만원이하	3.02 ^a	2.95 ^a	3.19 ^a	2.86 ^a	58.5(585)
261~350만원	3.08 ^{ab}	3.01 ^{ab}	3.28 ^{ab}	2.92 ^{ab}	18.9(189)
351~450만원	3.21 ^b	3.11 ^{ab}	3.43 ^b	3.08 ^b	14.1(141)
451만원이상	3.24 ^b	3.16 ^b	3.43 ^b	2.98 ^{ab}	8.2(82)
<i>t/F</i>	6.74 ^{***}	4.05 ^{**}	9.26 ^{***}	5.26 ^{**}	

주: 1) 열심: ○○는 무엇이든지 열심히 한다.

2) 새로운 활동에 참여: ○○는 새로운 활동에도 자신 있게 참여한다.

3) 집중력: ○○는 좋아하는 일을 할 때 집중을 잘 한다.

4) 활동 지속력: ○○는 다른 흥미 있는 일이 있어도, 한 번 시작한 일은 끝까지 계속한다.

* $p < .05$, ** $p < .01$, *** $p < .001$.

첫째, 유아가 어떤 일에 대해 열심히 임할 수 있는지 조사한 결과, 평균 3.08점의 수준으로 나타났다. 차이검증을 실시한 결과, 성별에 따라서는 여아가 남아보다 열심히 하는 행동 수준이 높게 나타났으며, 미취업모 가정의 유아가 다른 집단에 비해 열심 행동 수준이 높았다. 부모소득에 따라서는 소득이 351만원 이상인 집단에서 260만원 이하인 집단에 비해 점수가 유의미하게 높아서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유아의 열심 행동 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유아가 새로운 활동에 자신 있게 참여하는지 조사한 결과, 평균은 3.00점이었다. 차이검증을 실시한 결과, 성별 및 부모소득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는데, 여아인 경우 그리고 부모소득이 451만원 이상의 유아인 경우 새로운 활동에 자신 있게 참여하는 수준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셋째, 유아가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얼마나 집중을 잘 하는지에 대해 평균은 3.26점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다. 한편 차이검증 결과에 따르면, 대도시의 경우 중소도시나 읍면지역보다 점수가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어머니가 미취업 상태이거나 부모 소득이 351만원 이상일 때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넷째, 유아의 과제 지속력에 대한 조사 결과, 평균은 2.91점으로 앞에서 살펴본 성취 관련 문항들과 비교하여서는 약간 낮은 수준이었다. 한편 유아의 성별, 연령 및 모취업여부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으나 부모소득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부모소득이 260만원 이하인 경우 평균 2.86점으로 가장 낮은 수준이었고, 351~450만원인 경우 평균 3.08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두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다. 주관적 만족

주양육자가 응답한 유아의 외모 및 자기자신에 대한 만족을 살펴보고, 유아가 직접 응답한 시간 사용에 대한 만족 정도를 알아보았다.

1) 유아의 외모 및 자기자신에 대한 만족

부모가 인식한 유아의 외모에 대한 만족감을 조사한 결과, 평균 3.20점으로 비교적 긍정적으로 응답하여 대부분의 부모 혹은 주양육자는 유아가 자신의 외모에 만족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한편 차이검증을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부모소득에 의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는데, 소득이 260만원 이하인 경우 평균 3.16점으로 가장 낮았고 451만원 이상인 경우 평균 3.33점으로 가장 높게 보고되었다. 다시 말해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유아의 외모에 대한 만족감을 더 높게 평가하였다.

〈표 IV-7-4〉 외모 및 자기자신에 대한 만족(주양육자 응답)

단위: 점

구분	외모에 대한 만족		자기자신에 대한 만족	
	평균	t/F	평균	t/F
전체	3.20		3.22	
성별				
남아	3.17	-1.94	3.20	-1.29
여아	3.23		3.24	
연령				
만4세	3.22	1.76	3.25	2.50*
만5세	3.17		3.18	
모취업여부				
취업	3.19	.16	3.22	.63
미취업	3.20		3.22	
해당없음	3.14		3.10	

(표 IV-7-4 계속)

구분	외모에 대한 만족		자기자신에 대한 만족	
	평균	t/F	평균	t/F
부모소득				
260만원이하	3.16 ^a		3.17 ^a	
261~350만원	3.20 ^{ab}	4.42**	3.21 ^{ab}	7.44***
351~450만원	3.26 ^{ab}		3.33 ^{bc}	
451만원이상	3.33 ^b		3.38 ^c	

* $p < .05$, ** $p < .01$, *** $p < .001$.

다음으로, 유아의 자기 자신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감을 알아보기 위해 부모가 인지한 유아의 자기 자신에 대한 만족을 조사한 결과, 평균 3.22점이었다. 한편 연령 및 부모소득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는데, 만5세 유아에 비해 만4세 유아가 자신에 대해 더 만족하고 있었으며, 부모소득이 451만원 이상인 집단은 다른 집단에 비해 유아의 자기 자신에 대한 만족감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2) 유아의 시간 사용에 대한 만족

유아가 가족 및 친구와 함께 하는 시간 그리고 놀이 시간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는지 조사하였다. 유아가 가족과의 시간을 얼마나 보내고 있는지 확인한 결과, 유아가 인식하는 가족과의 시간은 많아요 74.3%, 적어요 25.7%로 전반적으로 많다고 느끼고 있었다. 이러한 가족과의 시간 정도는 지역규모, 모취업여부와 부모소득에 따른 차이를 나타내어 읍면지역, 미취업모와 부모소득이 351~450만원인 유아들이 가족과의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기관에 다녀온 후 친구들과 만나는 시간이 넉넉한지에 대한 물음에는 많아요 52.3%, 적어요 47.7%라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친구와의 만남 시간은 부모소득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부모소득이 351~450만원인 유아들이 친구와 보내는 시간이 더 많다고 하였다.

〈표 IV-7-5〉 유아의 시간사용에 대한 만족(유아 응답)

단위: %

구분	가족		다녀온 후 친구 만남		다녀온 후 놀이	
	적어요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전체	25.7	74.3	47.7	52.3	35.6	64.4
성별						
남아	27.9	72.1	45.5	54.5	35.0	65.0
여아	23.4	76.6	50.0	50.0	36.3	63.7
$X^2(df)$	2.73(1)		2.02(1)		.19(1)	
연령						
만4세	27.0	73.0	45.4	54.6	35.2	64.8
만5세	24.4	75.6	50.0	50.0	36.0	64.0
$X^2(df)$.89(1)		2.12(1)		.07(1)	
지역규모						
대도시	23.4	76.6	44.6	55.4	31.5	68.5
중소도시	29.0	71.0	49.9	50.1	38.9	61.1
읍면지역	7.5	92.5	52.5	47.5	37.5	62.5
$X^2(df)$	11.00(2)**		3.07(2)		5.69(2)	
모취업여부						
취업	37.4	62.6	51.7	48.3	39.4	60.6
미취업	18.4	81.6	45.2	54.8	33.7	66.3
해당없음	42.9	57.1	52.4	47.6	28.6	71.4
$X^2(df)$	46.57(2)***		3.95(2)		3.71(2)	
부모소득						
260만원이하	29.4	70.6	52.0	48.0	38.6	61.4
261~350만원	20.1	79.9	42.3	57.7	31.7	68.3
351~450만원	19.1	80.9	40.4	59.6	29.8	70.2
451만원이상	23.2	76.8	42.7	57.3	31.7	68.3
$X^2(df)$	10.75(3)*		10.27(3)*		6.19(3)	

* $p < .05$,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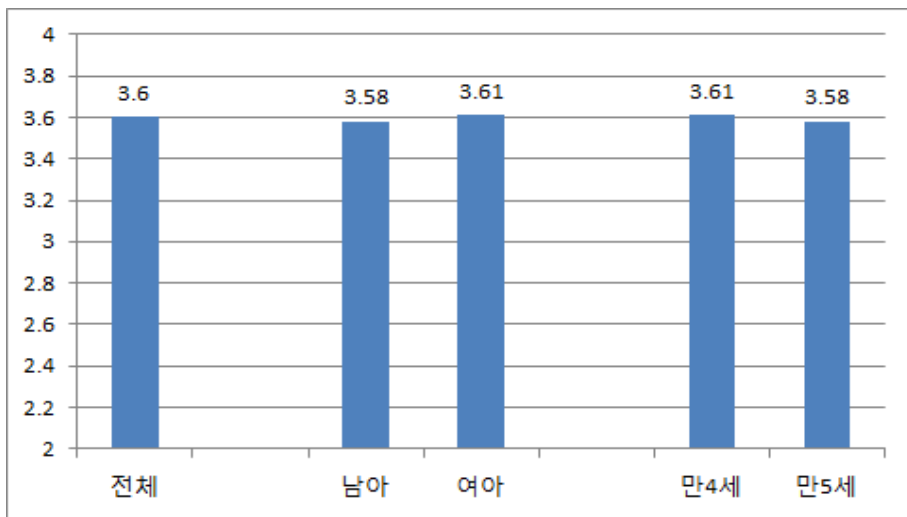
또한 기관을 다녀온 후 놀이 시간에 대해서는 많아요 64.4%, 적어요 35.6%로 응답하여 많다고 느끼는 유아가 더 많았다. 하지만 친구와의 시간이나 놀이 시간이 많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 유아의 1/3이 넘는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수치이다.

V. 유아기 행복감 관련 요소

1. 유아기 행복감 수준 및 관련 요소와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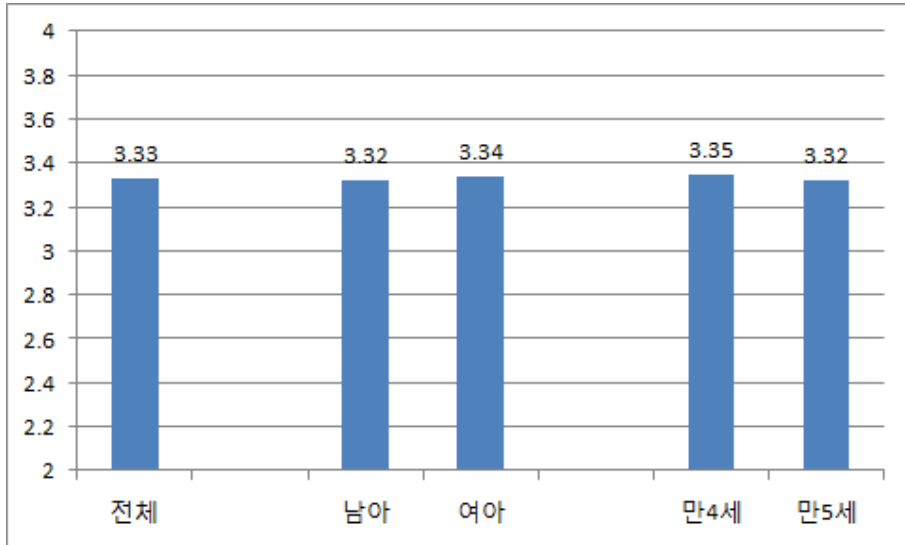
가. 유아기 행복감 수준

본 연구의 조사 대상 유아의 행복감을 알아보기 위해 유아에게 자신이 행복한 정도를 4점 척도를 제시하여 응답하게 하였다. 그 결과, 유아의 행복감 평균은 3.60점으로 남아는 3.58점, 여아는 3.61점이었으며, 만4세는 3.61점, 만5세는 3.51점이었다(그림 V-1-1 참조).



[그림 V-1-1] 유아의 행복감(유아 응답)

한편 유아의 평소 모습에 기초하여 유아의 행복감 정도를 주양육자에게 응답하게 한 결과, 주양육자가 인식한 유아의 행복감 평균은 3.33점으로 유아가 직접 응답한 값보다는 다소 낮은 수준이었으나, 전반적으로 유아가 행복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V-1-2 참조).



[그림 V-1-2] 유아의 행복감(주양육자 응답)

나. 유아기 행복감 관련 요소

유아의 행복감과 관련있는 요인을 발견하기 위해 IV장에서 살펴본 행복감 관련 요인과 유아가 응답한 행복감 수준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1) 물질적 수준

물질적 수준 지표 요소들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유아의 행복감은 가정의 평균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난 반면($r=.14, p<.001$), 가족들이 경제적 상황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할수록($r=-.21, p<.001$)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양육자가 인식하기에 유아가 자신이 가진 물건에 대해 만족할수록($r=.16, p<.001$) 유아의 행복감 수준은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V-1-1> 물질적 수준과 행복감 간의 관계

	①	②	③	④	⑤
유아의 행복감	.14***	-.01	-.07	-.21***	.16***

주: ① 가정의 평균 소득 ② 아버지 근로시간 ③ 어머니 근로시간 ④ 경제적 상황에 대한 걱정 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만족(주양육자 응답)

*** $p < .001$.

지난 6개월 동안의 활동(생일 등 특별한 일 축하/극장, 콘서트, 공연장/전시관, 박물관, 역사유적지/동물원, 수족관, 놀이공원) 경험이 많을수록($r=.11, p<.001; r=.11, p<.001; r=.16, p<.001; r=.13, p<.001$), 연령에 적절한 재화(옷/책/실내용 장난감/야외활동장비)나($t=2.47, p<.05; t=3.82, p<.001; t=4.38, p<.001; t=3.59, p<.001$) 가족 공용의 몇몇 재화(라디오, MP3등/가족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을 때($t=3.05, p<.01; t=6.69, p<.001$) 유아의 행복감은 높게 나타났다.

〈표 V-1-2〉 유아의 경험과 행복감 간의 관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유아의 행복감	.00	.11**	.06	.11**	.16**	.13**	.06	.06	.06

주: ① 친구초대 ② 특별한 일 축하 ③ 도서관 ④ 극장, 콘서트, 공연장 ⑤ 전시관, 박물관, 역사유적지 ⑥ 동물원, 수족관, 놀이공원 ⑦ 지역사회 등 행사 ⑧ 스포츠 행사 ⑨ 공원 산책
** $p < .01$.

〈표 V-1-3〉 재화 보유 여부에 따른 유아의 행복감

구분	수	평균	t
잘 맞는 신발	예	992	3.60
	아니요	8	3.38
잘 맞는 옷	예	982	3.60
	아니요	18	3.28
연령에 맞는 책	예	925	3.62
	아니요	75	3.33
연령에 맞는 실내용 장난감	예	898	3.62
	아니요	102	3.34
야외 활동 장비	예	804	3.63
	아니요	196	3.46
컴퓨터	예	940	3.60
	아니요	60	3.48
라디오,MP3 등	예	655	3.63
	아니요	345	3.52
TV	예	965	3.60
	아니요	35	3.57
전화기	예	969	3.59
	아니요	31	3.68

(표 V-1-3 계속)

구분		수	평균	t
가족 승용차	예	762	3.66	6.69***
	아니요	238	3.38	
가족 승용차	예	762	3.66	6.69***
	아니요	238	3.38	

* $p < .05$, ** $p < .01$, *** $p < .001$.

또한 지난 1년 동안 가정 소득이 감소한 경우 변화없거나 증가한 경우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F=7.92$, $p<.001$).

〈표 V-1-4〉 가정 소득의 변화에 따른 유아의 행복감

구분		수	평균	t
1년간 가정 소득의 변화	감소하였음	161	3.44 ^a	7.92***
	변화 없음	732	3.62 ^b	
	증가하였음	107	3.66 ^b	

*** $p < .001$.

2) 건강

건강 지표 요소들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유아의 행복감은 식생활과 의미 있는 상관이 있었다. 구체적으로, 일주일에 세 끼 식사하는 날이 많을수록($r=.13$, $p<.001$), 과일/야채 섭취를 자주 할수록($r=.10$, $p<.001$), 인스턴트식품은 자주 먹지 않을수록($r=-.09$, $p<.001$), 편식하지 않을수록($r=.12$, $p<.001$), 주양육자가 보기에 전반적인 건강상태가 좋을수록($r=.13$, $p<.001$) 유아의 행복감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1-5〉 유아의 건강 수준과 행복감 간의 관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유아의 행복감	.02	.05	.13**	.10**	-.09**	.12**	.13**

주: ① 하루 평균 수면시간 ② 일주일 기준 신체활동놀이 횟수 ③ 일주일 기준 세끼 식사하는 횟수 ④ 일주일 기준 과일/야채 섭취 횟수 ⑤ 일주일 기준 인스턴트식품 섭취 횟수 ⑥ 편식정도 ⑦ 전반적인 건강상태

** $p < .01$.

3) 안전

안전 요소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유아가 부모가 부재한 상황에 있는 날이 많을수록($r=-.10, p<.001$) 유아의 행복감은 낮게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주양육자가 지역사회에 자녀에게 나쁜 영향을 주는 것들이 있다고 인식하거나($r=-.13, p<.001$) 자녀를 괴롭히는 친구에 대해 걱정하는 수준이 높을수록($r=-.12, p<.01$) 유아의 행복감 수준이 낮았다. 반면 거주지역($r=.14, p<.001$)이나 유아가 다니는 기관($r=.18, p<.001$)이 안전할수록 유아의 행복감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표 V-1-6〉 가정 및 지역사회 안전과 행복감 간의 관계

	①	②	③	④	⑤	⑥
유아의 행복감	-.10**	-.03	.14**	.18**	-.13**	-.12**

주: ① 부모 부재 횟수 ② 부모 부재 시간 ③ 거주지 안전도 ④ 기관 안전도 ⑤ 자녀에게 나쁜 영향 ⑥ 자녀 괴롭힘 걱정

** $p < .01$.

4) 주거 환경

주거 환경 중 주택환경에 따라 유아의 행복감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 습기가 많고($t=-2.99, p<.01$) 어두운 주택환경($t=-3.09, p<.01$)에서 지내는 유아가 상대적으로 행복감 수준이 낮게 나타났다.

〈표 V-1-7〉 주택환경에 따른 유아의 행복감

		계(수)	평균	t
물새는 지붕	예	6	3.50	-.42
	아니요	994	3.60	
바닥, 벽 습기	예	47	3.36	-2.99**
	아니요	953	3.61	
어두움	예	70	3.40	-3.09**
	아니요	930	3.61	
목욕 시설	예	11	3.55	-3.00
	아니요	989	3.60	
공용화장실 사용	예	8	3.98	-1.14
	아니요	992	3.60	

** $p < .01$.

또한 주거 환경 중 지역 사회의 시설이나 이웃과의 관계에서, 지역사회에 운동 및 여가시설이 편리할수록($r=.07, p<.05$), 이웃이 서로 돕고 의지하며($r=.11, p<.01$) 서로의 자녀를 보살필수록($r=.11, p<.01$), 그리고 주양육자가 인식하기에 유아 자신이 사는 집에 만족할수록($r=.26, p<.001$) 유아의 행복감은 높게 나타났다.

〈표 V-1-8〉 지역사회 환경과 행복감 간의 관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유아의 행복감	.00	.07*	.00	.00	.00	.00	.00	.11**	.11**	.26***

주: ① 의료시설 ② 운동 및 여가시설 ③ 문화시설 ④ 장난감/도서 대여센터 ⑤ 갈만한 곳 ⑥ 재미있는 일 ⑦ 놀 수 있는 장소 ⑧ 이웃-서로돕고 의지함 ⑨ 이웃-서로 자녀 보살핌 ⑩ 자신이 사는 집에 대한 만족(주양육자 응답)

* $p < .05$, ** $p < .01$, *** $p < .001$.

5) 보육·교육 경험

보육·교육 경험과 유아의 행복감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기관 이외에서도 책 읽기 경험을 하거나($r=.10, p<.01$) 현재 다니는 기관을 좋아할수록($r=.21, p<.01$; $r=.51, p<.001$) 유아의 행복감 수준은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학습을 지겨워하거나($r=-.14, p<.01$) 학습으로 인한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r=-.13, p<.01$) 유아의 행복감은 낮게 나타났다.

〈표 V-1-9〉 보육·교육 경험과 행복감 간의 관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유아의 행복감	.10**	.00	.05	-.14**	-.13**	.21**	.51**

주: ① 기관 이외 장소_책읽기 횟수 ② 기관 이외 장소_학습 횟수 ③ 기관 이외 장소_특별활동 횟수 ④ 학습시간을 지겨워함 ⑤ 학습으로 스트레스 받음 ⑥ 현재 다니는 기관 만족(주양육자 응답) ⑦ 기관 만족(유아 응답)

** $p < .01$.

6) 대인 관계

유아의 대인 관계 중 가족관계 요소와 유아의 행복감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부모와 상호작용을 많이 할수록($r=.16, p<.01$), 가족들이 유아에게 칭찬($r=.21, p<.01$)과 애정표현($r=.24, p<.01$)을 많이 하고 관심($r=.22, p<.01$)과 도움($r=.16, p<.01$)을 제공하며 유아를 자랑스럽게 여길수록($r=.20, p<.01$) 유아의 행복감 수

준은 높게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어른들이 유아의 말에 귀기울여주고($r=.22, p<.01; r=.16, p<.01$), 가족 의사 결정에 유아를 참여하게 하며($r=.17, p<.01$), 가족들 간의 관계가 화목할수록($r=.23, p<.01; r=.26, p<.01; r=-.14, p<.01$) 유아는 더 행복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주양육자의 행복감이 높을수록($r=.22, p<.001$) 유아의 행복감 수준도 높았다.

〈표 V-1-10〉 가족관계와 행복감 간의 관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유아의 행복감	.16**	.21**	.24**	.20**	.22**	.16**	.22**	.16**	.17**	.23**	.26**	.14**	.22***

주: ① 부모와의 상호작용 ② 가족관계_칭찬 ③ 가족관계_애정표현 ④ 가족관계_자랑스럽게 여김 ⑤ 가족관계_관심 ⑥ 가족관계_도움 ⑦ 말에 귀 기울임 ⑧ 기분이 좋지 않을 때 이야기 들어줌 ⑨ 의사결정시 의견 수용 ⑩ 화목한 가족_즐거움 ⑪ 화목한 가족_어울림 ⑫ 화목한 가족_부모 싸움 횟수 ⑬ 주양육자 행복감

** $p < .01$, *** $p < .001$.

한편 유아가 응답한 대인관계 만족과 행복감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모두 유의미한 정적상관이 나타났는데, 아버지($r=.35, p<.001$)와 어머니($r=.32, p<.001$), 친구($r=.29, p<.001$) 그리고 교사($r=.40, p<.001$)와의 관계를 좋아할수록 유아의 행복감 수준은 높았다.

〈표 V-1-11〉 대인관계에 대한 주관적 만족과 행복감 간의 관계

	아버지	어머니	친구	교사
유아의 행복감	.35***	.32***	.29***	.40***

*** $p < .001$.

7) 자기 자신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 영역의 요소들과 유아의 행복감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유아에게 충분한 자유(놀이)시간이 주어지고($r=.16, p<.01$) 유아가 눈치 보지 않고($r=-.12, p<.01$)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r=.18, p<.01$)하거나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는($r=.18, p<.01$) 자율성과 선택권이 보장될수록 행복감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유아의 성취와 관련하여 주어진 일에 열심을 다하거나($r=.21, p<.01$) 좋아하는 일에 집중력을 보이고($r=.22, p<.01$), 새로운 일에도 잘 참여하며($r=.16, p<.01$), 주어진 과제를 끝까지 완수하는($r=.18, p<.01$) 유아일

수록 행복감 수준이 높았다.

〈표 V-1-12〉 시간/선택 및 성취요인과 행복감 간의 관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유아의 행복감	.03	.06	.16**	-.12**	.18**	.18**	.21**	.16**	.22**	.18**

주: ① 부모_행동 엄격하게 통제 ② 부모_충분한 자유 ③ 충분한 자유시간 ④ 무자연스런 행동 ⑤ 자신 생각 표현 ⑥ 선택권 있음 ⑦ 열심히 함 ⑧ 새로운 활동 참여 ⑨ 좋아하는 일 집중 잘함 ⑩ 작업완수

** $p < .01$.

또한 유아가 응답한 시간 사용에 대한 만족과 유아의 행복감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유아가 가족($t=-6.67$, $p<.001$)이나 친구($t=-3.89$, $p<.001$)와 보내는 시간이 많고 놀이 시간이 충분하다($t=4.68$, $p<.001$)고 느낄수록 유아의 행복감 수준은 높게 나타났다.

〈표 V-1-13〉 시간 사용에 대한 만족과 행복감 간의 관계

	구분	수	평균	t
가족과의 시간	적음	257	3.39	-6.67***
	많음	743	3.67	
친구와의 시간	적음	477	3.52	-3.89***
	많음	523	3.66	
놀이 시간	적음	356	3.48	-4.68***
	많음	644	3.66	

*** $p < .001$.

2. 유아기 행복감 증진을 위한 요소

가. 유아가 응답한 행복 요소

1) 가장 행복했던 장면

유아에게 지금까지 언제 가장 행복했냐고 물었다. 그리고 행복한 순간의 행동과 동반인에 대해 확인한 결과, 스포츠 및 레저 활동(29.9%), 놀이(24.0%), 교제활동(16.5%), 따라가기(10.2%) 등을 행복한 장면으로 응답하였다.

〈표 V-2-1〉 가장 행복 했던 때-행동분류(중복)

단위: %,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계(수)
전체	29.9	24.0	10.2	16.5	4.8	4.8	3.6	3.6	3.3	100.0(1,000)
성별										
남아	33.6	22.1	11.3	14.8	4.5	4.7	4.7	3.3	3.1	100.0(512)
여아	26.0	26.0	9.0	18.2	5.1	4.9	2.5	3.9	3.5	100.0(488)
연령										
만4세	27.8	25.6	9.8	15.4	6.2	5.2	4.0	4.2	3.0	100.0(500)
만5세	32.0	22.4	10.6	17.6	3.4	4.4	3.2	3.0	3.6	100.0(500)

주: 1) ① 스포츠 및 레저 활동 ② 놀이 ③ 따라가기 ④ 교제활동 ⑤ 식사 및 간식 ⑥ 관람 및 문화 행사 참여 ⑦ 미디어 이용 ⑧ 개인유지 관련 이동 ⑨ 교제 및 여가활동 관련 이동
 2) 기타응답으로는 휴식 및 개인양육, 음식 준비 및 정리, 그 외 기타 행동, 특기·적성관련 활동, 대리양육 이용 전후 이동, 기관 이용, 기타 학습활동, 학습관련 이동, 모름, 개인 관리, 기타 이동하기 등이 있었음.

또한 행복했던 순간에 함께 했던 사람을 물었을 때, 어머니 45.9%, 아버지 29.2%, 친구 16.4%, 가족 11.4% 등으로 나타났다.

〈표 V-2-2〉 가장 행복 했던 때-동반인(중복)

단위: %, 명

구분	모	부	친구	가족	불 명확	형제· 자매	혼자	기타	계(수)
전체	45.9	29.2	16.4	11.4	9.0	6.1	4.1	5.0	100.0(1,000)
성별									
남아	43.9	31.4	16.0	11.1	9.0	7.0	5.3	4.7	100.0(512)
여아	48.0	26.8	16.8	11.7	9.0	5.1	2.9	5.3	100.0(488)
연령									
만4세	47.4	31.4	15.2	9.6	9.0	7.2	4.8	4.0	100.0(500)
만5세	44.4	27.0	17.6	13.2	9.0	5.0	3.4	6.0	100.0(500)

주: 기타 응답으로는 기타, 조부모, 기관에서 같이, 선생님, 모름 등이 있었음.

2) 가정에서 더 행복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

유아에게 집에서 더 행복해지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질문한 결과, 놀이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44.3%, 교제활동이 15.9%, 식사 및 간식을 더 먹고 싶다가 10.7%, 미디어 이용을 더 하고 싶다 10.3% 등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이러한 행동이나 활동을 위해 함께 하고 싶은 사람으로는 어머니가 43.5%, 아버지 25.5%, 혼자서 하겠다가 15.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V-2-3〉 가정에서 더 행복해 지기 위해 필요한 것-행동분류(중복)

단위: %, 명

구분	놀이	교제 활동	식사 및 간식	미디어 이용	스포츠 및 레저 활동	따라 가기	휴식 및 개인 양육	기타	계(수)
전체	44.3	15.9	10.7	10.3	9.4	3.5	2.0	8.8	100.0(1,000)
성별									
남아	43.9	15.2	10.0	12.5	12.3	2.5	1.4	6.3	100.0(512)
여아	44.7	16.6	11.5	8.0	6.4	4.5	2.7	11.5	100.0(488)
연령									
만4세	43.2	16.6	11.8	9.8	8.6	3.4	2.0	9.2	100.0(500)
만5세	45.4	15.2	9.6	10.8	10.2	3.6	2.0	8.4	100.0(500)

주: 기타응답으로는 모름, 그 외 기타 행동, 기타 일상 행동, 음식 준비 및 정리, 개인관리, 기타 가정 관리, 기타 학습활동, 청소 및 정리, 수면, 의류관리, 기타 여가관련 행동, 학습지, 글자카드 활동, 관람 및 문화 행사 참여, 개인유지 관련 이동, 기타 이동하기 등이 있었음.

〈표 V-2-4〉 가정에서 더 행복해 지기 위해 필요한 것-동반인(중복)

단위: %, 명

구분	모	부	혼자	형제· 자매	가족	친구	기타	계(수)
전체	43.5	25.5	15.6	9.8	7.2	7.0	7.6	100.0(1,000)
성별								
남아	41.8	27.5	16.6	9.4	7.8	6.6	7.2	100.0(512)
여아	45.3	23.4	14.5	10.2	6.6	7.4	8.0	100.0(488)
연령								
만4세	45.2	27.2	15.0	9.4	5.8	7.0	7.4	100.0(500)
만5세	41.8	23.8	16.2	10.2	8.6	7.0	7.8	100.0(500)

주: 기타응답으로는 모름/불명확, 조부모, 기타, 선생님 등이 있었음.

3) 기관에서 더 행복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

유아에게 기관에서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조사한 결과, 놀이가 58.1%, 교제활동이 14.7%, 그 외 기타행동이 10.7%로 나타났으며, 함께 하고 싶은 동반자로는 친구 66.6%, 기관에서 같이 18.3%, 선생님 16.0% 등으로 나타났다.

〈표 V-2-5〉 기관에서 더 행복해 지기 위해 필요한 것(중복)

단위: %, 명

구분	놀이	교제 활동	그 외 기타 행동	식사 및 간식	스포츠 및 레저 활동	관람 및 문화 행사 참여	기타	계(수)
전체	58.1	14.7	10.7	6.4	5.7	2.3	7.2	100.0(1,000)
성별								
남아	57.6	14.1	9.4	8.6	7.0	2.0	5.3	100.0(512)
여아	58.6	15.4	12.1	4.1	4.3	2.7	9.2	100.0(488)
연령								
만4세	59.6	12.6	10.0	7.6	5.8	1.8	7.6	100.0(500)
만5세	56.6	16.8	11.4	5.2	5.6	2.8	6.8	100.0(500)

주: 기타응답으로는 모름, 특기, 적성관련 활동, 학습지, 글자카드 활동, 기타 학습활동, 각종 교구 이용 학습, 미디어 이용, 개인관리 등이 있었음.

〈표 V-2-6〉 기관에서 더 행복해 지기 위해 필요한 것-동반인(중복)

단위: %, 명

구분	친구	기관에 같이	선생님	기타	계(수)
전체	66.6	18.3	16.0	2.7	100.0(1,000)
성별					
남아	67.4	19.5	12.9	2.8	100.0(512)
여아	65.8	17.0	19.3	2.7	100.0(488)
연령					
만4세	64.6	19.8	15.2	3.6	100.0(500)
만5세	68.6	16.8	16.8	1.8	100.0(500)

주: 기타응답으로는 모름, 혼자, 모, 부 등이 있었음.

나. 유아의 주양육자가 보는 유아기 행복감 증진 요소

유아기 행복감 증진을 위한 요건을 알아보기 위해 부모가, 기관(교사)에서 그리고 정책적으로 더 노력해야하는 점이 무엇인지 유아의 주양육자를 통해 조사 하였다.

1) 부모의 노력

유아의 행복감 증진을 위해 부모로서 노력해야 하는 점을 질문한 결과, 1순

위는 자녀와 함께 시간보내기 38.7%, 자녀에게 귀를 기울이면서 존중하기 18.7%, 그 다음으로는 자녀에게 칭찬하기 12.8%, 자녀에게 애정표현하기 11.1%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행복감 증진을 위한 부모의 노력에 대한 항목들은 연령, 지역규모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표 V-2-7〉 행복감 증진을 위한 부모 노력(1순위)

단위: %,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계(수)	X ² (df)
전체	38.7	12.8	7.4	11.1	18.7	7.8	3.5	100.0(1,000)	
성별									
남아	41.8	11.9	6.8	10.0	17.4	7.6	4.5	100.0(512)	8.89(6)
여아	35.5	13.7	8.0	12.3	20.1	8.0	2.5	100.0(488)	
연령									
만4세	41.2	12.8	6.2	13.2	15.8	6.6	4.2	100.0(500)	15.28(6)*
만5세	36.2	12.8	8.6	9.0	21.6	9.0	2.8	100.0(500)	
지역규모									
대도시	36.1	14.5	9.7	9.9	18.2	8.3	3.4	100.0(435)	23.46(12)*
중소도시	39.4	12.2	6.1	12.2	19.4	7.6	3.0	100.0(525)	
읍면지역	57.5	2.5	0.0	10.0	15.0	5.0	10.0	100.0(40)	
모취업여부									
취업	46.6	12.8	7.3	8.1	14.5	8.4	2.2	100.0(358)	-
미취업	34.5	12.2	7.4	13.0	21.1	7.4	4.3	100.0(621)	
해당없음	28.6	28.6	9.5	4.8	19.0	9.5	0.0	100.0(21)	
부모소득									
260만원이하	36.4	14.0	8.7	11.6	16.6	8.4	4.3	100.0(585)	18.15(18)
261~350만원	42.3	10.1	6.3	10.6	22.2	6.9	1.6	100.0(189)	
351~450만원	39.0	12.1	4.3	12.8	22.0	7.1	2.8	100.0(141)	
451만원이상	46.3	12.2	6.1	6.1	19.5	6.1	3.7	100.0(82)	

주: 1) ① 자녀와 함께 시간보내기 ② 자녀에게 칭찬하기 ③ 자녀에게 균형 잡힌 식사 제공하기 ④ 자녀에게 애정표현하기(스킨십 등) ⑤ 자녀 존중하기(자녀에게 귀 기울이기 등) ⑥ 안전하고 편안한 가정환경 제공하기 ⑦ 자녀양육을 위한 지식 습득하기

* $p < .05$.

유아의 행복감 증진을 위해 부모로서 노력해야 하는 점에 대해 1, 2순위 응답을 모두 살펴보면, 자녀와 함께 시간보내기 53.0%, 자녀에게 귀를 기울이면서 존중하기 36.6%, 그 다음으로는 자녀에게 칭찬하기 34.5%, 자녀에게 애정표현하기 32.1%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1순위와 유사한 응답 결과를 보였다.

〈표 V-2-8〉 행복감 증진을 위한 부모 노력(1+2순위)

단위: %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전체	53.0	34.5	17.4	32.1	36.6	17.9	8.3	.1
성별								
남아	54.5	34.0	15.4	31.6	36.3	18.9	9.2	0.0
여아	51.4	35.0	19.5	32.6	36.9	16.8	7.4	.2
연령								
만4세	55.2	35.6	17.0	35.8	31.8	16.2	8.2	0.0
만5세	50.8	33.4	17.8	28.4	41.4	19.6	8.4	.2
지역규모								
대도시	52.9	34.3	19.3	29.9	37.2	17.2	9.0	.2
중소도시	51.6	35.0	16.6	34.3	36.4	18.7	7.2	0.0
읍면지역	72.5	30.0	7.5	27.5	32.5	15.0	15.0	0.0
모취업여부								
취업	58.9	36.0	16.8	30.2	33.8	19.6	4.5	.3
미취업	49.3	33.3	17.7	33.5	38.8	16.7	10.5	0.0
해당없음	61.9	42.9	19.0	23.8	19.0	23.8	9.5	0.0
부모소득								
260만원이하	52.3	35.0	18.3	32.6	34.2	18.6	8.5	.2
261~350만원	57.1	34.4	18.0	30.7	37.0	16.4	6.3	0.0
351~450만원	48.9	31.9	15.6	35.5	41.8	18.4	7.8	0.0
451만원이상	56.1	35.4	13.4	26.8	43.9	14.6	9.8	0.0

주: ① 자녀와 함께 시간보내기 ② 자녀에게 칭찬하기 ③ 자녀에게 균형 잡힌 식사 제공하기
 ④ 자녀에게 애정표현하기(스킨십 등) ⑤ 자녀 존중하기(자녀에게 귀 기울이기 등) ⑥ 안전하고 편안한 가정환경 제공하기 ⑦ 자녀양육을 위한 지식 습득하기 ⑧ 기타

2) 기관에서의 노력

유아의 행복감 증진을 위해 기관(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 이상 학원)에서 더 노력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질문한 결과, 1순위는 유아에 대한 존중과 수용이 49.8%로 가장 많았고, 자유로운 활동의 기회 제공이 19.1%, 다음은 충분한 신체 활동 제공이 16.5%로 나타났다. 그 외에 유아 중심의 물리적 환경 제공, 낮은 유아 대 교사 비율 유지, 과도한 특별활동 방지에 대한 의견들이 있었다.

〈표 V-2-9〉 행복감 증진을 위한 기관 노력(1순위)

구분									단위: %, 명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계(수)	$X^2(df)$	
전체	50.0	16.6	19.2	6.1	5.6	1.5	1.0	100.0(996)		
성별										
남아	52.7	15.1	19.8	5.5	4.3	1.6	1.0	100.0(510)	7.06(7)	
여아	47.1	18.1	18.5	6.8	7.0	1.4	1.0	100.0(486)		
연령										
만4세	49.2	19.1	17.9	5.4	6.8	1.2	.4	100.0(498)	12.38(7)	
만5세	50.8	14.1	20.5	6.8	4.4	1.8	1.6	100.0(498)		
지역규모										
대도시	50.1	19.1	18.6	6.4	4.1	.9	.7	100.0(435)	35.22(14)	
중소도시	49.5	14.3	19.9	6.1	6.9	2.1	1.1	100.0(523)		
읍면지역	55.3	18.4	15.8	2.6	5.3	0.0	2.6	100.0(38)		
모취업여부										
취업	54.2	15.6	16.8	6.4	4.2	1.4	1.4	100.0(358)	10.93(14)	
미취업	47.8	17.0	20.6	5.8	6.3	1.6	.8	100.0(617)		
해당없음	42.9	19.0	19.0	9.5	9.5	0.0	0.0	100.0(21)		
부모소득										
260만원이하	48.7	15.8	19.3	7.2	6.4	1.2	1.4	100.0(581)	20.99	
261~350만원	51.3	16.9	20.1	5.3	4.8	1.1	.5	100.0(189)		
351~450만원	47.5	23.4	16.3	3.5	5.7	2.8	.7	100.0(141)		
451만원이상	59.8	9.8	20.7	4.9	2.4	2.4	0.0	100.0(82)		

주: ① 유아에 대한 존중과 수용 ② 충분한 신체활동 제공 ③ 자유로운 활동(탐색)의 기회 제공
 ④ 유아중심의 물리적 환경 제공 ⑤ 낮은 유아 대 교사 비율 유지 ⑥ 과도한 특별활동 방지
 ⑦ 기관에 대한 바람직한 인식 확대

한편 1, 2순위 응답을 모두 살펴보면, 1순위와 마찬가지로 유아에 대한 존중과 수용 67.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자유로운 활동의 기회 제공 47.4%, 충분한 신체 활동 제공 41.8%, 유아 중심의 물리적 환경 제공 19.2%, 낮은 유아 대 교사 비율 유지 14.6% 등으로 나타났다.

〈표 V-2-10〉 행복감 증진을 위한 기관 노력(1+2순위)

단위: %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전체	67.6	42.0	47.6	18.2	14.6	4.1	5.4	.1
성별								
남아	69.2	40.8	48.8	17.6	13.3	4.5	5.3	0.0
여아	65.8	43.2	46.3	18.7	15.8	3.7	5.6	.2
연령								
만4세	68.1	45.6	46.2	16.7	13.7	4.2	5.2	0.0
만5세	67.1	38.4	49.0	19.7	15.5	4.0	5.6	.2
지역규모								
대도시	67.4	42.1	48.5	20.0	14.0	2.5	5.5	0.0
중소도시	66.7	42.1	46.7	17.6	15.3	5.4	5.4	.2
읍면지역	81.6	39.5	50.0	5.3	10.5	5.3	5.3	0.0
모취업여부								
취업	69.8	41.3	47.8	17.0	13.4	4.7	5.6	0.0
미취업	65.8	42.3	47.5	19.1	15.4	3.9	5.2	.2
해당없음	81.0	42.9	47.6	9.5	9.5	0.0	9.5	0.0
부모소득								
260만원이하	67.1	42.3	45.6	19.1	14.6	4.3	6.0	.2
261~350만원	67.2	41.8	50.8	18.5	14.3	1.6	5.8	0.0
351~450만원	67.4	41.1	48.9	14.2	17.0	7.1	3.5	0.0
451만원이상	72.0	42.7	51.2	17.1	11.0	2.4	3.7	0.0

주: ① 유아에 대한 존중과 수용 ② 충분한 신체활동 제공 ③ 자유로운 활동(탐색)의 기회 제공
 ④ 유아중심의 물리적 환경 제공 ⑤ 낮은 유아 대 교사 비율 유지 ⑥ 과도한 특별활동 방지
 ⑦ 기관에 대한 바람직한 인식 확대 ⑧ 기타

3) 정책에서의 노력

유아의 행복감 증진을 위해 정책적 측면에서 더 노력해야 하는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질문한 결과, 1순위로는 보육·교육기관의 질 향상(24.9%), 자녀양육을 위한 적정 근로시간 준수(23.0%), 아이(가족)중심의 문화·여가 시설 확충(19.5%),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14.5%) 순의 의견이었으며, 그 외 아이를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 형성(8.3%) 등의 의견이 있었다. 한편 이러한 응답은 지역규모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

〈표 V-2-11〉 행복감 증진을 위한 정책적 노력(1순위)

단위: %,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계(수)	$\chi^2(df)$
전체	23.0	24.9	19.5	14.5	5.0	4.7	8.3	100.0(999)	
성별									
남아	24.8	23.2	19.7	12.7	4.3	5.7	9.6	100.0(512)	11.23(7)
여아	21.1	26.6	19.3	16.4	5.7	3.7	7.0	100.0(487)	
연령									
만4세	24.2	24.0	19.4	14.4	4.4	4.8	8.6	100.0(499)	2.81(7)
만5세	21.8	25.8	19.6	14.6	5.6	4.6	8.0	100.0(500)	
지역규모									
대도시	23.0	25.5	20.2	13.6	5.1	5.3	7.4	100.0(435)	35.60(14)**
중소도시	23.4	25.0	17.9	15.4	4.8	4.0	9.5	100.0(525)	
읍면지역	17.5	17.5	32.5	12.5	7.5	7.5	2.5	100.0(39)	
모취업여부									
취업	25.7	22.9	19.6	14.0	4.2	5.0	8.7	100.0(358)	9.80(14)
미취업	21.3	26.1	19.8	14.7	5.3	4.3	8.4	100.0(620)	
해당없음	28.6	23.8	9.5	19.0	9.5	9.5	0.0	100.0(21)	
부모소득									
260만원이하	23.1	23.6	21.4	13.9	5.8	5.3	6.8	100.0(584)	-
261~350만원	21.7	27.0	16.9	16.4	5.3	4.2	8.5	100.0(189)	
351~450만원	25.5	24.1	17.7	14.2	2.1	3.5	12.8	100.0(141)	
451만원이상	20.7	31.7	14.6	15.9	3.7	3.7	9.8	100.0(82)	

주: 1) ① 자녀양육을 위한 적정 근로시간 준수 ② 보육·교육기관의 질 향상 ③ 아이(가족)중심의 문화·여가 시설 확충 ④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 ⑤ 자녀양육에 대한 정보 전달강화 ⑥ 다양한 가족지원 프로그램 제공 ⑦ 아이를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 형성 ⑧ 기타

** $p < .01$.

또한 1, 2순위 응답을 모두 살펴보면, 보육·교육기관의 질 향상 51.2%, 아이(가족)중심의 문화·여가 시설 확충 38.4%,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 35.7%, 자녀양육을 위한 적정 근로시간 준수 32.4% 순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에도 아이를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 형성(15.9%), 다양한 가족지원 프로그램 제공(14.7%), 자녀양육에 대한 정보 전달강화(11.1%) 등의 의견이 있었다.

〈표 V-2-12〉 행복감 증진을 위한 정책적 노력(1+2순위)

단위: %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전체	32.4	51.2	38.4	35.7	11.1	14.7	15.9	.1
성별								
남아	34.6	49.6	39.6	35.7	9.2	14.5	16.6	0.0
여아	30.1	52.9	37.1	35.7	13.1	15.0	15.2	.2
연령								
만4세	35.2	48.6	39.4	36.0	9.0	14.0	16.8	.2
만5세	29.6	53.8	37.4	35.4	13.2	15.4	15.0	0.0
지역규모								
대도시	33.8	52.9	39.5	35.4	10.6	13.3	14.3	0.0
중소도시	31.4	50.5	36.8	36.4	11.8	15.2	17.5	.2
읍면지역	30.0	42.5	47.5	30.0	7.5	22.5	12.5	0.0
모취업여부								
취업	36.6	47.5	39.7	36.6	9.2	13.1	17.3	0.0
미취업	30.0	53.3	38.2	35.1	12.2	15.0	15.3	.2
해당없음	33.3	52.4	23.8	38.1	9.5	33.3	9.5	0.0
부모소득								
260만원이하	31.0	52.6	39.0	34.6	12.3	15.1	14.7	.2
261~350만원	36.0	50.3	34.9	37.6	12.2	11.6	17.5	0.0
351~450만원	32.6	46.8	42.6	39.0	8.5	15.6	14.9	0.0
451만원이상	34.1	52.4	35.4	34.1	3.7	18.3	22.0	0.0

주: ① 자녀양육을 위한 적정 근로시간 준수 ② 보육·교육기관의 질 향상 ③ 아이(가족)중심의 문화·여가 시설 확충 ④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 ⑤ 자녀양육에 대한 정보 전달강화 ⑥ 다양한 가족지원 프로그램 제공 ⑦아이를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 형성 ⑧ 기타 ⑨ 모름

다. 교사와 현장전문가들이 보는 유아기 행복감 증진 요소

1) 교사와 현장전문가들이 보는 유아기 웰빙 수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사, 현장 전문가들에게 유아들의 행복감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유아들이 물질적으로 좋은 환경에서 지내고 있는지 질문한 결과, '그렇편이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78.3%, '그렇지 않은 편이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21.7%로 나타났다. 물질적 환경을 4점 척도로 질문한 결과, 평균 2.95점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응답자의 직업에 따른 교차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

가 나타났다. 교사나 원장 및 원감은 유아의 물질적 환경 정도를 높게 평가하고 있었으나 현장 전문가들은 평균 점수보다 낮게 평가하고 있었다.

〈표 V-2-13〉 유아의 물질적 환경

단위: %, 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계(수)	평균
전체	1.5	20.2	60.6	17.7	100.0(941)	2.95
직업						
교사	1.5	6.7	62.2	29.6	28.4(267)	3.20 ^a
원장 및 원감	.5	8.3	61.6	29.6	22.9(216)	3.20 ^a
현장 전문가	2.0	33.6	59.2	5.2	48.7(458)	2.68 ^b
$X^2(df)$		161.07(6) ^{***}			t/F	87.57(2) ^{***}

*** $p < .001$.

유아의 식생활 건강에 대한 의견들을 확인한 결과, 식생활로 인한 건강문제가 염려된다는 의견은 51.7%, 그렇지 않다는 의견은 48.4%로 나타났다. 이러한 의견들에 대한 교차분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어 현장 전문가들이 더 염려를 많이 하고 있었다. 한편, 염려하는 정도의 평균 점수를 보면 4 점 척도 만점에 2.47로서 평균점수도 응답자 직업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 현장 전문가들의 염려하는 정도가 더 높았다.

〈표 V-2-14〉 유아의 식생활과 신체활동

단위: %, 명, 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계(수)	평균
전체	14.6	33.8	42.1	9.6	100.0(941)	2.47
직업						
식생활						
건강						
교사	25.8	32.6	31.8	9.7	28.4(267)	2.25 ^a
원장 및 원감	19.0	42.6	28.7	9.7	22.9(216)	2.29 ^a
현장 전문가	5.9	30.3	54.4	9.4	48.7(458)	2.67 ^b
$X^2(df)$		88.84(6) ^{***}			t/F	27.42(2) ^{**}

(표 V-2-14 계속)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계(수)	평균
전체		4.5	32.1	42.7	20.7	100.0(941)	2.80
충분한 신체활 동	직업						
	교사	3.0	12.7	42.7	41.6	28.4(267)	3.23 ^a
	원장 및 원감	2.8	20.4	50.0	26.9	22.9(216)	3.01 ^b
	현장 전문가	6.1	48.9	39.3	5.7	48.7(458)	2.45 ^c
$X^2(df)$		200.13(6) ^{***}			t/F	106.68(2) ^{***}	

** $p < .01$, *** $p < .001$.

한편, 충분한 신체 활동에 대한 정도를 확인한 결과, 충분한 신체활동을 하고 있다고 느끼는 정도는 63.4%, 그렇지 않다는 정도는 48.4%였다. 신체활동에 대한 평균 점수는 4점 만점에 2.80으로, 신체활동 정도에 대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 교사, 원장 및 원감, 현장 전문가 순으로 더 신체활동이 적다고 느끼고 있었다.

〈표 V-2-15〉 유아의 또래와의 따돌림과 성인학대 여부

단위: %, 명, 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계(수)	평균
전체		19.2	44.2	34.1	2.4	100.0(941)	2.20
또래 따돌림	직업						
	교사	34.8	43.4	20.6	1.1	28.4(267)	1.88 ^a
	원장 및 원감	27.8	50.9	19.4	1.9	22.9(216)	1.95 ^a
	현장 전문가	6.1	41.5	48.9	3.5	48.7(458)	2.50 ^b
$X^2(df)$		147.55(6) ^{**}					79.81(2) ^{***}
전체		21.9	49.4	27.1	1.6	100.0(941)	2.08
성인의 학대 경험	직업						
	교사	36.0	47.9	14.6	1.5	28.4(267)	1.82 ^a
	원장 및 원감	33.8	47.7	16.2	2.3	22.9(216)	1.87 ^a
	현장 전문가	8.1	51.1	39.5	1.3	48.7(458)	2.34 ^b
$X^2(df)$		130.40(6) ^{***}			t/F	29.56(2) ^{***}	

** $p < .01$, *** $p < .001$.

유아의 또래와 따돌림의 경험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그런 경험이 있다고 느끼는 정도는 36.5%, 그렇지 않다고 느끼는 정도는 63.45로 또래와의 따돌림 경험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평균 점수는 4점 척도 만점에 2.20점으로 직업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 현장전문가는 교사나 원장 및 원감보다 유아가 또래와의 따돌림이 더 많다고 느끼고 있었다.

다음은 유아가 성인으로부터 학대 경험이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 28.7%는 그런 편이라고 하였고, 71.3%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러한 의견은 차이가 나타나 현장전문가 보다는 원장 및 원감이, 원장 및 원감보다는 교사가 그러한 경험은 적을 것으로 보였다. 또한 평균 점수는 2.08로서 직업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 현장 전문가들이 더 그런 경험을 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표 V-2-16〉 유아와 가족을 위한 충분한 장소와 동네 안전

단위: %, 명, 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계(수)	평균	
전체	10.0	52.1	31.0	6.9	100.0(941)	2.35	
직업							
충분한 장소	교사	4.9	42.7	39.0	13.5	28.4(267)	2.61 ^a
	원장 및 원감	8.3	47.7	36.1	7.9	22.9(216)	2.44 ^b
	현장 전문가	13.8	59.6	24.0	2.6	48.7(458)	2.16 ^c
	$X^2(df)$	68.05(6) ^{***}			t/F	35.18(2) ^{***}	
전체	14.8	48.6	32.1	4.6	100.0(941)	2.26	
동네의 안전함							
	교사	14.6	43.8	34.5	7.1	28.4(267)	2.34
	원장 및 원감	18.1	49.1	30.1	2.8	22.9(216)	2.18
	현장 전문가	13.3	51.1	31.7	3.9	48.7(458)	2.26
	$X^2(df)$	10.57(6)			t/F	2.81(2)	

*** $p < .001$.

유아와 가족을 위한 충분한 장소가 있는지를 문의한 결과, 37.9%만이 그렇다고 응답하였고 62.1%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의견은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 교사, 원장 및 원감, 현장 전문가 순으로 충분한 장소가 없다고 하였다. 또한 평균 점수는 2.35인데 유의미한 차이가 있어 교사는 충분한

장소가 있다고 하였다.

한편 유아의 행복을 위한 동네의 안전에 대한 의견을 물어본 결과, 36.7%는 동네가 안전하다고 하였으나 63.4%는 그렇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인식은 차이가 나타나 교사보다는 현장 전문가가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유아가 충분한 보육과 교육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를 확인한 결과, 72.9%는 그렇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27.1%는 그렇지 않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이러한 의견은 직업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 교사가 가장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한편 평균 점수도 4점 만점에 2.87점으로 평균점수도 유의한 차이가 있어 현장전문가만이 충분한 서비스를 받고 있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표 V-2-17〉 충분한 보육/교육 서비스와 과도한 조기교육

단위: %, 명, 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계(수)	평균
전체	2.0	25.1	57.1	15.8	100.0(941)	2.87
충분한 보육/교육서비스						
직업						
교사	1.1	15.7	55.1	28.1	28.4(267)	3.10 ^a
원장 및 원감	2.3	16.2	58.3	23.1	22.9(216)	3.02 ^a
현장 전문가	2.4	34.7	57.6	5.2	48.7(458)	2.66 ^b
X ² (df)		99.90(6)***			t/F	46.47(2)***
과도한 조기교육						
직업						
교사	7.5	36.3	42.7	13.5	28.4(267)	2.62 ^a
원장 및 원감	6.5	33.8	40.3	19.4	22.9(216)	2.73 ^a
현장 전문가	1.1	24.0	55.0	19.9	48.7(458)	2.94 ^b
X ² (df)		43.59(6)***			t/F	15.55(2)***

*** p < .001.

과도한 조기교육을 경험하고 있는지 확인한 결과, 66.1%는 유아들이 과도한 조기 교육을 경험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이는 교사와 원장 및 원감, 현장전문가와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또한 평균 점수도 2.80점으로 과도한 조기 교육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고, 평균 점수 또한 직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다음은 유아가 부모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을 확인한 결과, 22.3%가 그렇다고 응답했으며, 77.7%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으며, 평균 점수도 2.11점이었다. 이러한 인식의 교차분석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 평균 점수에 의한 차이도 뚜렷이 나타나 교사, 원장 및 원감, 현장전문가 간의 차이를 나타냈다.

한편 또래와의 충분한 시간을 보내는지도 조사한 결과, 유아들이 또래와 충분한 시간을 보낸다는 의견은 72.3%, 그렇지 않다는 의견은 27.7%였다. 평균점수는 4점 만점에 2.84로서 또래와의 시간은 충분하다는 의견이 높았다. 그리고 이러한 충분한 시간 정도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 평균 점수에 따른 차이도 유의미했다.

〈표 V-2-18〉 유아의 부모나 또래와의 충분한 시간

단위: %, 명, 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계(수)	평균	
전체	13.0	64.7	20.3	2.0	100.0(941)	2.11	
부모와 충분한 시간	직업						
	교사	10.9	52.4	32.6	4.1	28.4(267)	2.30 ^a
	원장 및 원감	18.1	63.4	17.1	1.4	22.9(216)	2.02 ^b
	현장 전문가	11.8	72.5	14.6	1.1	48.7(458)	2.05 ^c
	$X^2(df)$		52.66(6) ^{***}			t/F	16.80(2) ^{***}
전체	3.0	24.7	58.1	14.2	100.0(941)	2.84	
또래와 충분한 시간	직업						
	교사	1.9	11.2	59.2	27.7	28.4(267)	3.13 ^a
	원장 및 원감	2.3	12.5	64.4	20.8	22.9(216)	3.04 ^a
	현장 전문가	3.9	38.2	54.6	3.3	48.7(458)	2.57 ^b
	$X^2(df)$		151.17(6) ^{***}			t/F	76.22(2) ^{***}

*** $p < .001$.

유아의 환경 중에서 '성인으로부터 존중받고 있다'에 대한 의견들을 조사한 결과, '그런 편이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80.7%, '그렇지 않은 편이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19.3%로 나타났다. 한편, 유아가 성인으로부터 존중받는 정도의 평균 점수를 보면 4점 척도 만점에 2.95로서 평균 점수도 응답자 직업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 현장 전문가, 원장 및 원감, 교사 순으로 유아가 더 존중받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 V-2-19〉 성인으로부터 존중 정도

단위: %, 명, 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계(수)	평균
전체	.6	18.7	66.1	14.6	100.0(941)	2.95
성인으로부터 존중						
직업						
교사	0.0	6.7	62.5	30.7	28.4(267)	3.24 ^a
원장 및 원감	.5	10.2	67.6	21.8	22.9(216)	3.11 ^b
현장 전문가	1.1	29.7	67.5	1.7	48.7(458)	2.70 ^c
$X^2(df)$			-		t/F	95.63(2) ^{***}

*** $p < .001$.

한편, 유아의 환경 중에서 ‘대체로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다’에 대해 문의한 결과, ‘그런 편이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78.4%, ‘그렇지 않은 편이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21.5%로 나타났다. 유아의 행복감 정도의 평균 점수는 4점 척도 만점에 2.88이었다. 한편, 응답자 직업에 따른 평균 점수의 차이가 나타났으며 현장 전문가, 원장 및 원감, 교사 순으로 유아들이 대체로 더 행복한 생활을 한다고 느끼고 있었다.

‘앞으로도 계속 행복한 생활을 할 것이다’에 대한 의견들도 확인할 결과, ‘그런 편이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70.2%, ‘그렇지 않은 편이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29.8%로 나타났다. 유아의 향후 행복 정도의 평균 점수를 보면 4점 척도 만점에 2.79로서 현장 전문가, 원장 및 원감, 교사 순으로 유아들이 앞으로도 계속 더 행복한 생활을 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표 V-2-20〉 유아 행복한 정도

단위: %, 명, 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계(수)	평균
전체	.7	20.8	67.7	10.7	100.0(941)	2.88
유아의 행복감 정도						
직업						
교사	.4	7.9	67.0	24.7	28.4(267)	3.16 ^a
원장 및 원감	0.0	11.1	75.0	13.9	22.9(216)	3.03 ^b
현장 전문가	1.3	33.0	64.6	1.1	48.7(458)	2.66 ^c
$X^2(df)$			-		t/F	87.20(2) ^{***}

(표 V-2-20 계속)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계(수)	평균
전체	1.7	28.1	59.9	10.3	100.0(941)	2.79
유아의 직업						
향후 교사	2.2	16.5	57.3	24.0	28.4(267)	3.03 ^a
행복 원장 및 원감	.9	26.9	64.4	7.9	22.9(216)	2.79 ^b
정도 현장 전문가	1.7	35.4	59.4	3.5	48.7(458)	2.65 ^c
$X^2(df)$		94.10(6) ^{***}			t/F	32.52(2) ^{***}

*** $p < .001$.

2) 유아기 행복감과 관련한 정책의 적절성

정책의 행복 증진 정도에 대한 의견들을 조사한 결과, '정책이 유아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데 적절하다'라는 의견은 31.4%, '그렇지 않다'라는 의견은 68.7%로 나타났다. 이러한 의견들에 대한 교차분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어 교사들이 정책의 행복 증진 정도를 더 긍정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정책의 행복 증진 정도의 평균 점수를 보면 4점 척도 만점에 2.23이었으며 응답자 직업에 따른 평균 점수의 차이가 나타나 교사들이 느끼는 정책의 행복 증진 정도가 더 높았다.

한편,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의 행복 증진 정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정책이 취약 계층의 유아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데 적절하다'라는 의견은 34.9%, '그렇지 않다'라는 의견은 65.2%로 나타났다. 취약계층 행복 증진 정도를 4점 척도로 질문한 결과, 평균 2.27점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응답자의 직업에 따른 교차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 교사들이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 행복 증진 정도를 더 긍정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표 V-2-21〉 정책의 유아 행복 증진에 적절성

단위: %, 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계(수)	평균
정책의 행복						
전체	10.1	58.6	30.0	1.4	100.0(941)	2.23
직업						

(표 V-2-21 계속)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계(수)	평균
증진 정도	교사 8.6	52.1	36.3	3.0	28.4(267)	2.34 ^a
	원장 및 원감 11.1	60.2	27.3	1.4	22.9(216)	2.19 ^b
	현장 전문가 10.5	61.6	27.5	.4	48.7(458)	2.18 ^b
	$X^2(df)$ 16.64(6)*				t/F	5.72(2)**
취약계층 행복 증진정도	전체 10.0	55.2	33.2	1.7	100.0(941)	2.27
	직업					
	교사 9.4	50.2	36.3	4.1	28.4(267)	2.35
	원장 및 원감 10.6	54.2	34.7	.5	22.9(216)	2.25
	현장 전문가 10.0	58.5	30.6	.9	48.7(458)	2.22
	$X^2(df)$ 17.25(6)**				t/F	3.38(2)*

* $p < .05$, ** $p < .01$.

3) 유아기 행복감 증진 요소

한편, 유아의 행복감 증진을 위해 부모 측면에서 더 노력해야 하는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질문한 결과, '자녀와 함께 시간 보내기'가 47.1%, '안전하고 편안한 가정환경 제공하기'가 14.8%, '자녀 존중하기'가 14.5%. '자녀에게 애정표현하기'가 12.6% 순의 의견이 있었다. 한편 행복감 증진을 위한 부모의 노력에 대한 항목들은 응답자의 직업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표 V-2-22〉 유아 행복감 증진 방안: 부모 측면

단위: %, 점

구분	자녀와 안전하고 함께 편안한 시간 보내기	자녀에게 가정환경 존중하기	자녀에게 애정표현하기	자녀에게 칭찬하기	자녀양육을 위한 지식 습득하기	자녀에게 균형 잡힌 식사 제공하기	계(수)	
전체	47.1	14.8	14.5	12.6	5.4	5.2	4	100.0(941)
직업								
교사	56.6	10.5	14.6	10.1	4.5	3.4	.4	28.4(267)
원장 및 원감	47.7	19.9	9.7	8.3	4.6	8.8	.9	22.9(216)
현장 전문가	41.3	14.8	16.6	16.2	6.3	4.6	.2	48.7(458)
	$X^2(df)$ 39.91(12)***							

주: 기타의 항목 내용은 없음.

*** $p < .001$.

유아의 행복감 증진을 위해 기관에서 더 노력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조사한 결과, '유아에 대한 존중과 수용'이 47.4%로 가장 많았고, '낮은 유아 대 교사 비율 유지'가 18.4%, '자유로운 활동의 기회 제공'이 14.1%, '기관에 대한 바람직한 인식 확대'가 7.0%의 의견이 있었다.

〈표 V-2-23〉 유아 행복감 증진 방안: 기관 측면

단위: %, 명

구분	유아에 대한 존중과 수용	낮은 유아 대 교사 비율 유지	자유로운 활동의 기회 제공	기관에 대한 바람직한 인식 확대	유아중심의 물리적 환경 제공	충분한 신체 활동 제공	과도한 특별 활동 방지	기타	계(수)
전체	47.4	18.4	14.1	7.0	4.7	4.6	3.4	.4	100.0(941)
직업									
교사	45.7	26.6	11.2	7.5	3.0	3.0	3.0	0.0	28.4(267)
원장 및 원감	45.4	17.1	13.9	12.0	4.2	3.2	3.2	0.9	22.9(216)
현장 전문가	49.3	14.2	15.9	4.4	5.9	6.1	3.7	0.4	48.7(458)
$X^2(df)$				-					

주: 기타는 가정과 유치원에서 연계하는 부모교육, 교사의 인성 교육 등의 의견이 있음.

한편, 유아의 행복감 증진을 위해 정책적 측면에서 더 노력해야 하는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문의한 결과, '자녀 양육을 위한 적정 근로시간 준수'가 31.2%, '보육기관의 질 향상'이 19.0%, '아이를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 형성'이 14.8%. '아의 중심의 문화 여가 시설 확충'이 12.1%,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이 11.5% 순의 의견이었다.

〈표 V-2-24〉 유아 행복감 증진 방안: 정책적 측면

단위: %, 명

구분	자녀양육을 위한 적정 근로시간 준수	보육교육의 질 향상	아이를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 형성	아이 중심의 문화 여가 시설 확충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	다양한 가족 지원 프로그램 제공	자녀양육에 대한 정보 전달 강화	기타	계(수)
전체	31.2	19.0	14.8	12.1	11.5	7.2	3.7	.4	100.0(941)

(표 V-2-24 계속)

구분	자녀양육을 위한 적정 근로시간 준수	보육교육기관의 질 향상	아이들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 형성	아이 중심의 문화여가 시설 확충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	다양한 가족 지원 프로그램 제공	자녀양육에 대한 정보 전달 강화	기타	계(수)
직업									
교사	32.6	18.4	17.2	10.1	9.0	9.4	3.0	.4	28.4(267)
원장 및 원감	36.6	20.8	14.4	10.6	8.8	5.1	3.2	.5	22.9(216)
현장 전문가	27.9	18.6	13.5	14.0	14.2	7.0	4.4	.4	48.7(458)
$X^2(df)$	-								

주: 기타는 정부예산 확충, 기관에 대한 바람직한 인식확대 등의 의견이 있음.

다음은 취약계층의 유아기 행복감 증진을 위해 정책적으로 더 노력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본 결과,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상황 해소 30.6%,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 18.1%, 상담활동 등 심리적 건강을 위한 지원 18.1%, 다양한 교육 서비스 제공 11.5%, 다양한 가족 프로그램 제공 10.4%로 순으로 나타났다. 그 외 주거환경 개선 및 거주지 불안 해소 8.2%, 균형 잡힌 식사 등 신체적 건강을 위한 지원 4.9% 등이었다. 직업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V-2-25〉 취약 계층의 유아 행복감 증진 방안: 정책적 측면

단위: %, 명

구분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상황 해소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	상담활동 등 심리적 건강을 위한 지원	다양한 교육 서비스 제공	다양한 가족 프로그램 제공	주거환경 개선 및 거주지 불안 해소	균형 잡힌 식사 등 신체적 건강을 위한 지원	기타	계(수)
전체	30.6	18.1	15.9	11.5	10.4	8.2	4.9	.4	100.0(941)
직업									
교사	26.6	15.4	17.6	16.9	11.6	5.2	6.7	0.0	28.4(267)
원장 및 원감	38.4	15.3	14.4	13.4	5.6	10.2	2.8	0.0	22.9(216)
현장 전문가	29.3	21.0	15.7	7.4	12.0	9.0	4.8	.8	48.7(458)
$X^2(df)$	-								

주: 기타는 부모의 인식변화, 정부예산 확충, 교사의 인성 함양 등의 의견이 있음.

일반인의 행복감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대상은 교사 28.4%, 원장 및 원감 23.0%와 현장 전문가 48.6%였다. 조사에 참여한 대상의 전공은 유아교육이 43.9%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아동복지/사회복지 33.9%, 기타, 아동/아동가족 전공, 교육/심리 순이었다. 한편 조사대상자들이 근무하는 기관 유형은 어린이집, 유치원, 취약계층 지원단체,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 근무하고 있었다.

VI. 유아기 행복감 증진 방안

1. 기본 방향

최근 정부는 2014년의 업무계획(보건복지부, 2013)을 통해서 제 1차 아동정책 기본계획(2015~2019)을 수립하여 ‘아동이 행복한 나라 플랜’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하고 하반기에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아이행복플랜(안)을 수립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러한 정책 의지는 ‘아이사랑플랜’에서 한 발자국 더 아이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으로 이해가 된다.

이러한 정책 전환은 아이의 행복감 및 아동기 사회적 투자 역량을 국제적 수준으로 증진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행보이며 우리 사회 아이들의 행복감을 높이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다. 사실 그동안 공급자와 기관 중심의 정책으로서 아이의 발달적 요구와 정신적 건강이 많이 고려되지 못했다.

그러므로 아이를 사랑하고 그들의 행복감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유아기 또는 유아에 대한 이해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유아기의 특성과 발달상의 요구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한다면 유아들의 행복감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행복감을 증진시키기 위한 몇 가지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아이를 위한 균형적 양육이 필요하다. 앞서 논의했듯이 그동안 공급자와 기관 중심의 정책에서 아이들의 발달 수준을 고려하고 이에 맞는 욕구를 반영할 수 있는 보다 아동 중심의 양육을 실천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가족과의 친밀한 시간 확보를 위한 사회적 노력이 요구된다. 아이들은 무엇보다도 가족, 특히 가족 안에서의 부모, 다른 가족관계에서의 경험을 통해 성장하고 배워간다. 사회화의 기초가 되는 부모와의 관계, 가족 내 상호작용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형성하므로 안정된 부모 자녀 관계 형성이 우선되어야 한다.

둘째, 아이의 발달에 맞는 활동과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언어 표현능력이 발달하고 인지 능력이 구체화되는 시기이므로 아이로 하여금 스스로 표현을 많이 하게하고 언어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인지 능력이

발달하여 기억과 사물의 추상화가 시작되므로 이러한 메타인지 기능의 발달을 위해 오감을 이용한 경험과 학습이 제공되어야 한다.

셋째, 다양한 가족의 요구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통해 가족의 행복감을 높여야 한다.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경우는 그들의 생활주기에 맞는 서비스를 구상하여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한편 전업주부가 있는 가족을 대상으로는 그들의 요구에 맞는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넷째, 유아기 나아가 아동의 최적 발달을 위한 인프라와 지원체계가 사회적으로 형성되어야 한다. 특히 저소득층의 공평한 출발점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와 지원체계의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그리하여 지원사업의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행복한 아이를 양육하기 위한 대국민 홍보와 캠페인을 제공한다. 부모들이 생각하는 아이들의 행복보다는 아이들이 원하는 행복한 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부모, 기관과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2. 행복감 증진 방안

가. 기관과 가정에서의 균형 잡힌 양육

지금까지 영유아 보육과 교육의 정책 대부분은 실제 수요자인 아동에 대한 실질적인 욕구와 생활을 반영하기 보다는 부모의 양육 경감을 우선으로 하는 공급자와 기관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다. 이에 취업모를 위한 기관보육을 강조하고 무상보육으로 인해 국가가 아이를 키운다는 인식까지 확대되어 왔다. 그리하여 집에서 아이를 키우고 싶은 주부마저도 기관에 아이를 맡기지 않으면 손해라는 의식 속에서 양육의 선택권마저 위기에 처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급자와 기관중심의 정책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아동을 중심으로 부모와 아동의 욕구와 필요에 민감한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의 확대가 필요한 시기이다. 특히 아동의 요구와 필요가 더 반영되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 조사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유아기의 아이들은 가정, 구체적으로 부모와의 관계, 부모와 함께 하는 활동 등에서 행복감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보육정책이나 사회구조는 아이들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기관에서의 시간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가정에서 아이들과의

시간을 더 늘릴 수 있는 제도, 지원과 정책이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나. 가족과의 친밀한 시간 확보

유아에게 기분이 좋거나 행복한 때를 말하라고 했을 때 함께 했던 사람을 말하라고 하면 대부분의 유아들은 어머니와 아버지라고 한다. 이는 유아들은 부모와 시간을 함께 보내거나 활동을 하였을 때를 가장 행복한 순간으로 기억하고 있었다. 또한 자신이 행복해지기 위해 더 필요한 것도 부모와의 시간이었다. 사실상, 부모와의 관계는 영유아기를 지나면서 가장 중요한 발달 과업이다. 이 시기의 부모와의 애착 관계가 잘 형성되고 사랑을 받았다고 느끼는 것은 이시기 최고의 행복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므로 유아에게 부모는 행복의 근원이다. 물론 이를 위해 부모가 일을 포기하고 자녀와 있을 수만은 없으나 자녀와의 질적 시간을 확보하는 것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적정근로시간 준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차출근제와 패밀리 데이 실시 등을 통한 일하는 부모의 가족 시간 확보가 필수적이다.

다. 또래와 주변사람들과의 관계 증진

부모와의 친밀한 시간 제공과 더불어 필요한 것은 또래나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다. 현대사회와 같이 핵가족 시대의 또래 친구는 중요한 기쁨과 행복의 원천이다. 유아들은 기관에서의 행복한 순간은 친구와 함께 있어서라는 응답이 대단히 많았다. 그러나 실제로 친구와 보내는 시간은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한 것으로 볼 때, 친구와 보내는 시간을 할애해야 할 것이다.

또한, 유아에게 주변 사람과의 관계는 사회성을 배워가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교사와 전문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따르면 유아가 성인으로부터 존중을 받지 않는다고 응답한 결과가 적지 않았고, 기관에서 유아의 행복감을 증진하기 위해 유아에 대한 존중과 수용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유아의 의미 있는 대인관계를 위해 유아를 존중하는 어른들의 노력이 필요함을 뜻한다. 유아가 존중받고 이를 바탕으로 하는 안정적인 대인관계는 유아의 또래관계, 더 나아가 지속적인 사회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 발달에 적합한 활동과 프로그램 제공

유아들은 또래 놀이 횟수와 놀이 시간도 충분하지 않다는 응답을 하였고 일주일의 책읽기 횟수나 특별활동이 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이들이 행복한 순간의 활동들은 스포츠 및 레저 활동, 놀이, 교제활동 등으로 나타났고 학습이나 교재 사용 등은 별로 없었다. 이러한 유아의 발달과 활동 특성을 반영하여 놀이를 통해 세상을 이해하고 배워나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유아기에 적합한 활동과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마. 충분한 여가와 놀이 제공

UN의 아동권리협약 31조(유엔아동권리협약 한국NPO연대, 2006)의 여가와 놀이에 관한 사항을 보면 아동은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나이에 맞는 놀이와 오락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생활과 예술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또한 문화적, 예술적 활동에 마음껏 참여할 수 있도록 문화, 예술, 오락 및 여가활동을 위해 적절하고 균등한 기회 제공을 촉진해야 함을 주장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아동이, 특히 유아들이 적극적으로 여가와 놀이 활동에 몰입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른 나이부터 조기교육과 사교육에 내몰리고 있는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에 가족들이 손쉽게 접근가능하고 놀이를 즐길 수 있는 공원, 문화공간과 예술 체험을 할 수 있는 장소들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한 공간을 새로이 마련하기 보다는 현존하는 공간과 인프라를 활용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주민 센터는 각 동 단위로 지역별로 분포해있어 부모가 영유아기 자녀와 함께 이용하기에 접근성이 아주 뛰어나므로 주민 센터의 유휴공간을 이용하여 낮 시간동안 영유아 및 초등 저학년 아동을 위한 놀이 프로그램과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또한 현재 지역사회의 소규모 놀이시설은 대부분 취학연령의 아동·청소년이나 성인이 이용하기에 적합하게 마련되어 있다. 하지만 놀이터나 공원을 신축하거나 기존 시설을 보수할 때 지역의 인구분포를 고려하여 영유아도 이용할 수 있는 놀이시설을 설치한다면 유용할 것이다.

바. 다양한 가족에 대한 맞춤형 지원

유아의 행복감과 어머니의 행복감 수준은 지역 규모, 취업 여부와 소득수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가구의 특성에 따라 행복감의 정도를 달리함을 암시하는데, 가구 특성이 가질 수 있는 한계로 인한 행복감의 차이이므로 가구의 분명한 요구 파악이 우선되어야 한다.

가구의 특성이나 소득 수준에 따라 요구하는 제도 지원이나 양육 지원의 내용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수요 파악을 통해 지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조정해 줄 필요가 있다. 즉, 일괄적이거나 이미 충분한 서비스를 넘어서 가구의 취약성을 보완할 있는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물질적 지원뿐만 아니라 취약성으로 인한 스트레스나 낮은 심리적 웰빙 수준을 완충할 수 있는 정서적 지원 프로그램도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사. 안전한 환경

교사와 전문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유아가 성인에게 학대를 경험하거나 거주 동네에서의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기관 내에서도 유아가 또래의 따돌림을 경험하는 비율도 대상자가 유아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국외의 행복감 또는 웰빙을 연구한 지표에 안전영역이 공통적으로 연구되고 있음을 볼 때 안전은 유아의 행복감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웰빙 요건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가정, 기관,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유아를 존중하고 그들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인식과 이를 뒷받침하는 사회의 지원이 필요하다. 현재 아동지킴이집, 아동보호구역 등 유아대상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있지만 이것이 유명 무실하지는 않는지 점검해보고 보완하는 기회를 갖기를 제안한다. 성인뿐만 아니라 적어도 유아가 안전함을 걱정하지 않고 뛰어 놀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

아. 저소득층 사업 전달체계의 개편

2000년 이후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개발되어 시행되고 있지만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각 사업의 개별적 특성을 살릴 뿐만 아니라 사업들 간의 연계성을 가지고 필요한 대상에게 다가가서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한 의미에서 향후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크게 두 가지를 제안 한다.

첫째, 정부사업과 민간사업 간의 연계 강화이다. 현장을 조사하면서 정부사업이 확대되면서 지역 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한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런데 정부사업의 확대로 서비스 수혜 대상도 증가하고 사업자 측에서 관리가 어려울 만큼 사업이 성장하였으나, 수혜자의 요구의 밀착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서비스를 소개하는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한편, 이미 존재하여 수혜자의 요구에 밀착된 민간사업이 있으나 이들은 인프라 면에서 미약하고 다른 지향점으로 인해 정부사업과는 좀 더 구체적인 접근 방식을 택하고 있는 곳도 많다. 그러므로 현존하는 정부사업과 민간사업이 연계되어 수혜자들이 요구하는 하드웨어적인 것은 정부사업이, 수혜자 특성에 맞는 소프트웨어적인 요구들은 민간사업이 다가갈 수 있도록 촘촘하게 지자체를 중심으로 연계를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는 사업 전달체계에 있는 인력 지원과 처우 개선이다. 취약계층이나 사회서비스 사업이 확장되면서 많은 인력들이 정부사업이나 민간사업의 전달체계와 서비스체계에서 일을 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 당 서비스 제공 인원이 많고 항상 이동을 해야 하는 등 열악한 근무조건으로 인해 전문 인력의 확보가 쉽지 않다. 그러므로 취약계층을 접하는 종사자들의 인력 지원을 위해 근로조건의 향상이나 처우 개선을 통해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자. 대국민 홍보와 캠페인

많은 부모들은 아이들이 미래에 행복해지기 위해 어린 시절부터 경쟁사회에 맞는 인지적 능력의 확장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리하여 무엇보다 인지능력의 성장을 위한 노력을 하고 아이들을 그렇게 준비시킨다. 그리하여 유아들은 그들의 미래에 담보된 채 현재를 잃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잃어버린 아동기를 찾고 즐길 수 있도록 유아기의 행복감에 대한 기획 홍보와 이를 위한 부모 인식 전환과 교육 캠페인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조사 결과에서 보듯이 유아가 가장 행복한 순간은 가정에서 부모와 함께하는 순간이라는 사실을 인식시키고 가정에서의 유아의 보살핌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확산시켜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사랑을 잘 받은 아이들이 인지적으로, 사회·정서적으로 잘 발달한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참고문헌

- 강영욱(2009). 유아의 행복감과 행복개념에 대한 인식. *한영논총*, 13, 451-477.
- 강영하(2012). 초등학생의 자아탄력성과 학교행복 간의 관계. *학습전략중재연구*, 3(1), 107-123.
- 국립국어원(n.d.). 표준국어대사전. <http://stdweb2.korean.go.kr/search/View.jsp>에서 2014년 12월 29일 발췌.
- 권기남·성미영(2010). 유아의 행복감이 문제행동 및 대인간 문제해결 전략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과학회지*, 19(2), 257-270.
- 권연희(2013). 유아의 행복에 대한 유아의 정서성과 어머니의 우울 및 양육행동의 영향. *한국생활과학회지*, 22(4), 525-537.
- 김경훈·김형재·이은림(2013). 아버지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유아의 정서기능 및 행복감의 차이. *한국보육지원학회지*, 9(3), 5-32.
- 김도란(2008). 유아의 행복감과 부모의 행복감과의 관계.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김도란·김정원(2008). 유아의 행복감과 부모의 행복감간의 관계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13(6), 311-333.
- 김성숙(2013). 유아가 인식하는 행복의 의미 탐색. *유아교육연구*, 33(3), 377-400.
- 김세희·강순미(2008). 그림책 읽기 및 관련활동을 통한 유아의 행복에 대한 개념 확장. *어린이문학교육연구*, 9(2), 119-139.
- 김연화·강문희(2008). 아동의 성격유형 및 부모와의 의사소통 유형과 행복감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29(6), 35-54.
- 김정원·이정아(2010). 그림책을 활용한 방과 후 프로그램이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행복감 및 사회·정서 능력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31(4), 199-217.
- 김정원·이정아·이인경(2010). 초등학교 저학년 방과 후 교실 아동의 행복감과 스트레스 및 놀이성간의 관계 연구. *아동학회지*, 30(3), 37-53.

- 남덕입(2004). 어머니의 양육신념 및 양육효능감과 유아의 생활만족도 및 우울 정도와의 관계. 신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도남희·김정숙·하민경(2013). 영유아생활시간조사.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마송희(2012). 행복한 아이들과 유아교육과정의 방향. 중앙유아교육학회소식, 22, 1-3.
- 박재국·서보순·최은실·박희경(2012). 발달지체유아의 행복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 유아특수교육연구, 12(2), 79-107.
- 보건복지부(2013). 2012년도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
- 보건복지부(2013). 보건복지통계연보.
- 보건복지부(2014). 드림스타트 사업안내.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3. 12. 31). 제 2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 발표.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4. 9. 7). 제 2차 중앙보육정책위원회 개최.
- 보건복지부·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2013). 전국 지역아동센터 실태조사 보고서
- 보건복지부·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2014). 지역아동센터 운영매뉴얼
-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2). 아동 권리증진을 위한 아동정책 발전방안 연구.
-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3). 아동종합실태조사.
-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세이브더칠드런(2013). 한국 아동의 삶의 질에 관한 종합지수 연구.
- 서울특별시 보도자료(2013. 6. 20). 서울시, 7월부터 지역아동센터에 건강과일바구니 공급.
- 서은국·구재선·이동귀·정태연·최인철(2010). 한국인의 행복지수와 그 의미. 한국심리학회: 연차 학술대회 논문집, 213-232.
- 안동현(2008). 건강과 심리적 측면의 아동행복. 2008년도 한국아동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23-35.
- 안진(2009). 아동의 기질과 사회적 지지에 따른 안녕감. 인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위스타트운동본부(2012a). We Start 리플렛.

- 위스타트운동본부(2012b). 위스타트 사업소개 표준안.
- 유엔아동권리협약 한국NPO연대(2006).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선택의정서.
- 이은주(2010). 유아행복척도 개발연구: 유아교육기관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정화(2005). 초등학생의 행복감 측정을 위한 도구의 개발. 공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임미지·문혁준(2011). 아동이 지각한 행복감과 일상적 스트레스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을 대상으로. 인간발달연구, 18(2), 255-275.
- 임완섭·노대명(2013). 2013년 빈곤통계연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전미경·장재숙(2009). 아동의 행복감 발달에 대한 종단적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7(3), 103-118.
- 전은옥·최나야(2013). 어머니의 행복감과 양육효능감이 유아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양육효능감의 매개효과. 한국영유아보육학, 82, 103-126.
- 정계숙·최은아·강인설(2008). 아동의 행복 상황 판단에 대한 조사 연구: 문화적 특수성 접근. 아동학회지, 29(6), 207-223.
- 정현정·문혁준(2011). 아동의 행복감에 대한 아동이 지각한 부모-자녀관계의 사회적 자본, 자아탄력성, 사회 인구학적 변인의 영향. 한국보육지원학회지, 7(3), 21-42.
- 조경서·남기원(2011). 유아의 행복감과 자아탄력성의 관계에 대한 연구. 유아교육학논집, 15(4), 161-178.
- 조성연·신혜영·최미숙·최혜영(2009). 한국 초등학교 아동의 행복감 실태조사. 아동학회지, 30(2), 129-144.
- 질병관리본부·대한소아과학회·소아·청소년 신체발육표준치 제정위원회(2007). 2007년 소아·청소년 표준 성장도표·해설.
- 통계청(2012) 가계동향조사.
- 통계청(2013a). 2012 인구동태통계연보.
- 통계청(2013b). 2012년 사망원인통계.

- 황해익·김미진·탁정화(2013). 만 5세 유아가 인식한 행복한 상황과 행복의 조건에 관한 연구. *생태유아교육연구*, 12(4), 93-122.
- Ben-Arieh, A. (2008). Indicators and indices of children's well-being: towards a more policy-oriented perspective. *European Journal of Education*, 43(1), 37-50.
- Bradshaw, J. & Richardson, D. (2009). An Index of child well-being in Europe. *Child Indicators Research*, 23, 319-351.
- Cummins, R. A., & Lau, A. L. D. (2005). *Personal Wellbeing Index: Pre-school(3rd ed.)*. School of Psychology Deakin University.
- De Neve, J.-E., Diener, E., Tay, L., & Xuereb, C. (2013). The objective benefits of subjective well-being. In a Halliwell, J., Layard, R., & Sachs, J.(ed s.). *World happy report 2013*(pp. 54-79). New York: UN 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 Network.
- Diener, E. (1984).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95, 542-575.
- Diener, E., & Suh, E. M. (2000). *Culture and subjective well-being*. Cambridge, MA: MIT Press.
- Early Childhood Longitudinal Study Kindergarten Cohort(ECLS-K) (n.d.). Home Environment, Activities, And Cognitive Stimulation(HEQ). <http://nces.ed.gov/ecls/kinderinstruments.asp>에서 2013년 4월 1일 발췌.
- ECEC in Finland (2003). National curriculum guidelines o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in Finland. http://www.oph.fi/english/education_system/early_childhood_education에서 2014년 7월 4일 발췌.
- ECEC in Finland (2014). In Europedia. https://webgate.ec.europa.eu/fpfis/mwikis/eurydice/index.php/Finland:Early_Childhood_Education_and_Care에서 2014년 7월 4일 발췌.
- Fatoore, T., Mason, J., & Watson, E. (2009). When children are asked about their well-being: Towards a framework for guiding policy. *Child Indicators Research*, 2, 57-77.
- Groeneveld, M. G., Vermeer, H. J., van IJzendoorn, M. H., & Liting, M. (2010). Children's wellbeing and cortisol levels in home-based and center

- based child care.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25, 502-514.
- Halliwell, J., Layard, R., & Sachs, J.(eds.) (2013). *World happiness report 2013*. New York: UN 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 Network.
- Holder, M. D., & Klassen, A. (2010). Temperament and happiness in children.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11(4), 419-439.
- Keyes, C. L. M. (2006). Mental health in adolescence: Is America's youth flourishing?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76(3), 395-402.
- LaFreniere, P. J., & Dumas, J. E. (1995). *Social Competence and Behavior Evaluation: Preschool Edition*. Los Angeles, CA: Western Psychological Services.
- Land, K. C., Lamb, V. L., Meadows, S. O., & Taylor, A. (2007). Measuring Trends in Child Well-Being: An Evidence-Based Approach *Social Indicators Research*, 80, 105-132.
- Lyubomirsky, S., & Lepper, H. S. (1999). A measure of subjective happiness: Preliminary reliability and construct validation. *Social indicators research*, 46(2), 137-155.
- OECD(2009a). Child well-being. <http://stats.oecd.org>에서 2014년 2월 24일 발췌.
- OECD(2009b). Doing better for children.
- OECD(2013). OECD Guidelines on measuring subjective well-being. OECD Publishing. <http://dx.doi.org/10.1787/9789264191655-en>.
- Ryff, C. D., & Keyes, L. M. (1995). The structure of psychological well-being revisite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9(4), 719-727.
- The Children's Society(2012). The good childhood report 2012: A review of our children's well-being.
- The Children's Society(2013). The good childhood report 2013.
- UNICEF(2007). Child poverty in perspective: An overview of child well-being in rich countries.
- UNICEF(2013a). Child well-being in rich countries: A comparative overview.

- UNICEF(2013b). Children's subjective well-being in rich countries.
- U.S. Department of Education (2001). NCLB legislation. <http://www2.ed.gov/policy/elsec/leg/esea02/index.html>에서 2014년 6월 20일 발췌.
- U.S. Department of Education, Office of Planning, Evaluation and Policy Development (2010). ESEA Blueprint for Reform, Washington, D.C. <http://www2.ed.gov/policy/elsec/leg/blueprint/publicationtoc.html>에서 2014년 7월 8일 발췌.
- U.S. Department of Education, Office of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2002). No Child Left Behind: A desktop reference, Washington, D.C. <http://www2.ed.gov/policy/elsec/leg/esea02/index.html>에서 2014년 7월 10일 발췌.
-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2013). Federal program inventory. <http://www.hhs.gov/budget/2013-program-inventory/federal-program-inventory.html>에서 2014년 7월 10일 발췌.
-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n.d.). Administration for Children and Families, Child welfare information gateway. <https://www.childwelfare.gov/preventing/promoting/protectfactors/competence.cfm>에서 2014년 6월 20일 발췌.

[참고사이트]

<http://health.seoul.go.kr>, HOME > 건강증진 > 건강증진사업 > 영양 관리, 지역뉴스, 서울시, 건강과일바구니로 취약계층 어린이 영양관리에서 2014년 7월 4일 발췌.

<http://kkumsadari.sen.go.kr/index.do>

<http://westart.or.kr>

<http://www.adongcda.or>, 디딤씨앗통장 소개에서 2014년 7월 3일 발췌.

<http://www.anews.com/detail.php?number=621137&thread=09r02>, 의창구, 저소득층 아동 영양제지원 호응에서 2014년 9월 24일 발췌.

<http://www.dreamstart.go.kr>

<http://www.law.go.kr/>

<http://www.mw.go.kr>

<http://www.unicef.or.kr/education/outline>

Abstract

Enhancement Measures for Feeling of Happiness in Early Childhood

Namhee Do, Yun-Jin Bae, Jiye Kim

UN released the World Happiness Report in 2013, and Korean government is recently planning for Child Happiness Plan as a part of the Second Mid/Long-Term Childcare Plan(2015-2019), evolved from Child Love Plan. These initiatives show attention on children's happiness in children policies in Korea as well as those worldwide. Hence, this study intends to identify level of feeling of happiness in early childhood among children, analyze relationship of such finding with happiness-related factors through parents and teachers (field professionals), and propose enhancement measures for feeling of happiness in early childhood.

This study deals with a concept of feeling of happiness, analyzes happiness indicators and happiness index used in Korea and other countries to identify common elements. Then, it investigates level of happiness of Korean children based on these indicators and current policies for enhancing children's happiness. Also, it intends to propose enhancement measures for children's happiness by identifying level of happiness in early childhood and analyzing its relationship with other factors. For this, we searched for data from Korea and other countries, conducted a literature research, performed a survey among 1,000 children and mothers. Furthermore, 941 teachers and field professionals were invited to share their opinions on children's happiness. In addition, advisory meetings, discussion meetings, and intensive interviews were carried out by involving researchers and specialists on happiness research.

To sum up the study outcome, children rated their happiness as 3.6 out of 4.0 point, and mothers gave 3.3 point. Meanwhile, teachers and field professionals rated children's happiness as average 2.88 point and future happiness as 2.79 point. Children's happiness showed positive relationship with level of family wealth, experience of cultural or leisure activities, and experience of childcare and education institutions. Also, children's happiness was affected and in a high relationship with family and interpersonal relations. Specifically, children answered sports and leisure activities or play time were happier experiences than other activities, and they were happy at times with their parents.

As for things that parents should work on more to enhance children's happiness, spending time with children, and respecting and praising their children were suggested; for institutions, respecting and accepting children, and providing free activity and physical activity were listed. Lastly, as for policy to enhance children's happiness, improving quality of institutions, complying with reasonable work hours to take care children, expanding cultural/leisure facilities focused on children and families, and building a safe local community environment were suggested.

Based on these research outcomes, the following policy proposals are recommended. First, there needs more care by parents at home, other than at institutions, for a balanced nurturing. Second, social efforts are necessary to secure close family time. Third, children's happiness should be enhanced by raising family happiness through customized support fit to diverse family needs. Fourth, low-income family supporting services should be adjusted to the demands from the field. Fifth, support from transmission system of low-income service should be strengthened to build internal stability of low-income services. Sixth, nationwide PR and campaign should be carried out to provide information on family and parent education.

keywords: happiness, well-being, children

부 록

부록 1. 유아기 행복감 조사(유아용)

부록 2. 유아기 행복감 조사(부모용)

부록 3. 유아기 행복감 조사(교사 및 현장전문가용)

부록 1. 유아기 행복감 조사(유아용)

I				
D				

유아기 행복감 조사(유아)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는 육아정책연구를 보다 체계적이며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무조정실 산하 국가 정책연구기관입니다.

본 질문지는 육아정책연구소의 2014년 일반연구과제인 「유아기의 행복감 증진 방안」 연구의 일환으로 유아기 행복감 관련 요소를 파악하고 행복감 증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조사원께서는 제시된 문항들을 그대로 유아에게 질문해주시고, 유아의 응답을 정확하게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아의 응답과 개인정보 등에 관한 모든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제①항, 제②항에 의거하여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며, 그 내용은 연구 목적 외에는 어떤 용도로도 이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9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이 영

조사주관기관: 육아정책연구소

도남희 부연구위원 02-398-7707, cando@kicce.re.kr

배윤진 부연구위원 02-398-7745, byj@kicce.re.kr

조사대행기관: (주)밀워드브라운미디어리서치

김훈미 부장 02-3488-2783

윤정숙 부장 02-3488-2715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등)>

- 통계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는 통계작성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조사원은 자녀에 대한 다음 사항을 기록해 주십시오.

유아성명		생년월	200__년 __월 (2008, 2009년 생만 해당됨)
유아성별	<input type="checkbox"/> 남 <input type="checkbox"/> 여	유아가 다니는 기관 이름	
진행장소	<input type="checkbox"/> 어린이집 <input type="checkbox"/> 유아의 집	<input type="checkbox"/> 유치원 <input type="checkbox"/> 유아의 집 주변	<input type="checkbox"/> 어린이집/유치원 주변 <input type="checkbox"/> 기타 _____

[조사 시작 전 주의사항]

1. 건강이나 기분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는 진행하지 않고, 다음에 하도록 합니다.
2. 유아들이 긴장하지 않도록 밝은 미소로 대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줍니다.
3. 유아가 자신이 평가받고 있다고 느끼거나 어려운 질문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합니다.



[인사 나누기]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선생님이 ○○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할 거예요. 잘 듣고 ○○의 생각을 이야기해주면 돼요.”

[설명하기]

얼굴 표정 카드를 보여주면서 “지금부터는 이 그림을 보면서 이야기할거야.”

얼굴 표정 그림을 하나씩 손가락으로 짚으면서

“ 기분이 매우 좋은 모습이고, 이럴 때 행복하다고 이야기를 해,  기분이 좋은

(조금 행복한) 모습,  기분 좋지 않은(조금 슬퍼하는) 모습,  기분 너무 좋지 않은 (많이 슬퍼하는) 모습이야. 만약, ○○가 기분이 매우 좋다면(매우 행복함) 어느 것을 가리켜야 하지?” (유아의 대답을 확인함)

“기분이 너무 좋지 않을 때는(너무 슬픔/불행함)?” (유아의 대답을 확인함)





“기분이 조금 좋을 때는(조금 행복함)?” (유아의 대답을 확인함)

“기분이 조금 좋지 않을 때는(조금 슬픔/불행함)?” (유아의 대답을 확인함)

질문에 알맞은 그림을 가리키면 다음 문항으로 넘어가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설명합니다.





“그럼 오늘 ○○의 기분은 어때요? 4개의 카드 중에 골라볼까요?”

라고 질문하면서 유아가 그림을 이해했는지, 그리고 유아의 현재 기분상태는 어떠한지를 확인합니다.

문 항	 매우 안 좋음 (매우 불행)	 안 좋음 (조금 불행)	 좋음 (조금 행복)	 매우 좋음 (매우 행복)
○○의 현재 기분	①	②	③	④



[1단계]

다음 질문을 유아에게 물어보고, 유아가 선택하는 얼굴 표정에 해당하는 칸에 표시하십시오.

문항					해당없음
	매우 안 좋음 (매우 불행)	안 좋음 (조금 불행)	좋음 (조금 행복)	매우 좋음 (매우 행복)	
1. ○○는 엄마와 함께 있을 때 기분이 어때?	①	②	③	④	⊗
2. ○○는 아빠와 함께 있을 때 기분이 어때?	①	②	③	④	⊗
3. ○○는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 기분이 어때?	①	②	③	④	/
4. ○○는 선생님과 함께 있을 때 기분이 어때?	①	②	③	④	⊗
5. ○○는 지금 다니고 있는 곳에 오면(가면) 기분이 어때? (다니는 곳은 어린이집·유치원·반일제 이상 학원에 해당함)	①	②	③	④	⊗
6. ○○는 행복하다고 생각하니?	①	②	③	④	/

[2단계]

다음 질문을 유아에게 물어보고, 유아가 선택하는 얼굴 표정에 해당하는 칸에 표시하십시오.

문항	 적어요	 많아요
1. ○○가 가족과 보내는 시간은 어느 정도이니? (카드를 짚으며) 적어요? 많아요?	①	②
2. ○○가 유치원(어린이집)에 다녀온 후 친구들과 만나는 시간은 어느 정도이니? (카드를 짚으며) 적어요? 많아요?	①	②
3. ○○는 유치원(어린이집)에 다녀온 후 놀이 시간은 어느 정도이니? (카드를 짚으며) 적어요? 많아요?	①	②

[3단계]

다음 질문을 유아에게 물어보고, 유아의 대답을 빠짐없이 기록하십시오.

1. "지금까지 ○○는 언제 가장 행복했니?"

유아의 대답	
-----------	--

- 유아가 '행복'이라는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는 언제 가장 기분이 좋니?"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 유아의 대답에서 '누구와, 어디서, 무엇을(어떻게)'에 해당하는 요소가 모두 포함될 때까지 추가 질문합니다.

<추가질문의 예>

조사원: ○○는 언제 가장 행복하니?

유 아: 놀이터 갔을 때 좋았어요.

조사원: 놀이터에서 누구랑 무엇을 할 때 기분이 좋았니?

유 아: 엄마아빠랑 같이 놀았을 때요. 내 친구 서준이랑 미끄럼틀 탔을 때도요.

조사원: 그렇구나. ○○는 놀이터 가서 노는 걸 제일 좋아하는구나.

유 아: 네.

유아의 대답	놀이터에서 엄마아빠와 놀거나 친구와 미끄럼틀 탔을 때
--------	-------------------------------

2. 1) "○○가 집에서 더 행복해지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어떤 걸 하면 ○○가 더 행복해질까?”

유아의 대답	
-----------	--

- 유아의 대답에서 '누구와, 어디서, 무엇을(어떻게)'에 해당하는 요소가 모두 포함될 때까지 추가 질문합니다.

2) “○○가 유치원(어린이집)에서 더 행복해지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어떤 걸 하면 ○○가 더 행복해질까?”

유아의 대답	
-----------	--

- 유아의 대답에서 '누구와, 어디서, 무엇을(어떻게)'에 해당하는 요소가 모두 포함될 때까지 추가 질문합니다.

- 유아가 '행복'이라는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의 집에서/유치원에서 기분이 더 좋아지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어떤 걸 하면 ○○의 기분이 더 좋아질까?”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부록 2. 유아기 행복감 조사 (부모용)

ID				구분	
유아기 행복감 조사(부모)					
안녕하십니까?					
<p>육아정책연구소는 육아정책연구를 보다 체계적이며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 무조정실 산하 국가 정책연구기관입니다.</p> <p>본 설문지는 육아정책연구소의 2014년 연구과제인 「유아기의 행복감 증진 방안」연구의 일 환으로 유아기 행복감 관련 요소를 파악하고 행복감 증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제작되었습 니다.</p> <p>귀하께서 응답해 주신 내용은 향후 정부의 보육 및 유아교육 관련 정책 수립에 중요한 자 료로 활용되오니, 바쁘시더라도 잠시 틈을 내시어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p> <p>귀하께서 말씀해 주신 의견이나 개인정보 등에 관한 모든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통계 법 제33조(비밀의 보호) 제①항, 제②항에 의거하여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며, 그 내용은 연 구 목적 외에는 어떤 용도로도 이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오니, 정확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 랍니다. 감사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14년 9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이 영</p>					
조사주관기관: 육아정책연구소			도남희 부연구위원 02-398-7707, cando@kicce.re.kr		
			배윤진 부연구위원 02-398-7745, byj@kicce.re.kr		
조사대행기관: (주)밀워드브라운미디어리서치			김훈미 부장 02-3488-2783		
			윤정숙 부장 02-3488-2715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등)>					
1) 통계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2)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는 통계작성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조사원은 응답자에 대한 다음 사항을 기록해 주십시오.					

아동 연령 구분	<input type="checkbox"/> 6세 (2009년 1월 1일 ~ 2009년 12월 31일 생) <input type="checkbox"/> 7세 (2008년 1월 1일 ~ 2008년 12월 31일 생)				
아동 성별	<input type="checkbox"/> 남 <input type="checkbox"/> 여				
아동과의 관계	<input type="checkbox"/> 어머니 <input type="checkbox"/> 아버지 <input type="checkbox"/> 00이의 형제자매(성인) <input type="checkbox"/> 00이의 조부모 <input type="checkbox"/> 기타 친인척 <input type="checkbox"/> 대리양육자				
보호자 성명					
보호자 연락처	집전화:		핸드폰:		
	* 향후 면담조사에 응해 주실 의사가 있으십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보호자 주소	_____시(도) _____시/군/구 _____동/읍/면				
	*동/읍/면 단위까지 작성 요망				
지역 구분	<input type="checkbox"/> 대도시 <input type="checkbox"/> 중소도시 <input type="checkbox"/> 읍면지역				

- 다음은 여러분의 자녀(아동) 및 자녀를 둘러싼 환경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본 설문에서 '자녀'는 유아용 설문지를 응답하는 6~7세 조사 대상 자녀에 한정됩니다. 한 문항도 빠짐없이 성실히 응답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A. 자녀(아동)의 건강에 관한 질문입니다.

A1. ○○의 현재 몸무게(kg)와 키(cm)를 적어주십시오.

몸무게 _____ kg 키 _____ cm

A2. ○○는 출생 시 저체중(2.5kg이하)이었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요 ③ 모름

A3. 어머니께서는 ○○에게 (출생 후 최소 3개월까지) 모유수유를 하셨습니까?

- ① 모유수유 ② 혼합수유(모유+분유)
③ 분유 ④ 모름

A4. ○○는 현재까지 필수예방접종을 모두 하였습니까?

- ① 거의 하지 않음 ② 반 이상 접종 안했음 ③ 대부분 접종했음
④ 현재 연령까지 모두 접종하였음 ⑤ 모름

※ 필수예방접종 종류: 결핵, B형간염, 뇌수막염(Hib), 소아마비, 폐렴구균, DPT, 콧물백신(디프테리아 등), 수두, 홍역, 일본뇌염(생백신/사백신) 등 11종에 해당함.
인플루엔자, 장티푸스 등은 우선접종권장 대상자 및 고위험군에 한함.

A5. ○○는 현재 **3개월 이상** 약을 먹거나 치료를 받아야 하는 질병이 있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요

A6. ○○는 최근 **한 달 동안** 아파서 기관(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 이상 학원)을 빠진 날이 며칠입니까?

- ① 전혀 없음 ② 1~2일 ③ 3~5일
④ 6~10일 ⑤ 11일 이상 ⑥ 해당사항 없음(기관에 다치지 않음)

A7. 최근 **한 달 동안** 하루 평균 수면시간은 몇 시간입니까? _____ 시간

B3. ○○는 기관(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 이상 학원) 외의 장소에서 다음과 같은 경험을 얼마나 자주 합니까?

문항	전혀 안함	주 1-2일	주 3-4일	주 5일 이상
1. 책 읽기	①	②	③	④
2. 학습(학습지, 글자카드·교구 이용한 활동)	①	②	③	④
3. 특별활동(음악, 체육 등 특기·적성 활동)	①	②	③	④

B4. 문항을 읽고 해당하는 칸에 표시해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는 학습(읽기·쓰기활동, 수 연산활동, 학습지 등) 시간을 지겨워한다.	①	②	③	④
2. ○○는 학습(읽기·쓰기활동, 수 연산활동, 학습지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	①	②	③	④

B5. ○○는 지금 다니고 있는 기관(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 이상 학원)을 좋아합니까?

- ① 전혀 좋아하지 않음 ② 좋아하지 않는 편임
 ③ 좋아하는 편임 ④ 매우 좋아함 ☒ 해당사항 없음(기문에 다니지 않음)

C. 자녀의 가족, 또래 및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 관한 질문입니다.

C1. 부모님께서서는 최근 일주일 동안 ○○와 다음의 활동을 얼마나 하였습니다습니까?

문항	전혀 안함	주 1-2일	주 3-4일	주 5일 이상
1. ○○에게 책을 읽어준다.	①	②	③	⑤
2. ○○에게 이야기를 해준다.	①	②	③	⑤
3. ○○와 함께 노래를 부른다.	①	②	③	⑤
4. ○○가 미술이나 만들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①	②	③	⑤
5. 요리, 청소, 상차리기, 애완동물 돌보기와 같은 집안일을 ○○와 함께한다.	①	②	③	⑤
6. ○○와 함께 퍼즐이나 게임을 한다.	①	②	③	⑤
7. ○○와 함께 자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거나, 과학 놀이를 한다.	①	②	③	⑤
8. ○○와 함께 조립용 완구를 가지고 논다.	①	②	③	⑤
9. ○○와 함께 스포츠 또는 운동을 한다.	①	②	③	⑤

C2. ○○의 가족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항을 읽고 표시해주십시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가족은 ○○에게 칭찬을 자주 한다.	①	②	③	④
2. 우리 가족은 ○○에게 애정표현(스킨십 등)을 자주 한다.	①	②	③	④
3. 우리 가족은 ○○를 자랑스럽게 여긴다.	①	②	③	④
4. 우리 가족은 ○○가 하는 일에 관심을 가진다.	①	②	③	④
5. 우리 가족은 ○○가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준다.	①	②	③	④
6. 우리 가족은 ○○의 말에 귀 기울여준다.	①	②	③	④
7. 우리 가족은 ○○의 기분이 좋지 않을 때, ○○의 이야기를 들어 주기 위해 시간을 보낸다.	①	②	③	④
8. 우리 가족은 가족규칙이나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의 의견을 물어본다.	①	②	③	④
9. 우리 가족은 함께 집에 있는 것이 즐겁다.	①	②	③	④
10. 우리 가족은 서로 잘 어울리며 지낸다.	①	②	③	④

C3. 부모님은 얼마나 자주 말다툼이나 싸움을 합니까?

- ① 거의 안함
- ② 1달에 1~2번 정도
- ③ 1주일에 1~2번 정도
- ④ 1주일에 3~4번 정도
- ⑤ 거의 매일

C4. ○○는 일주일에 며칠 정도 또래와의 놀이를 합니까?

※ 기관(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 이상 학원)에서의 시간은 제외합니다.

- ① 거의 안함
- ② 주1~2일
- ③ 주3~4일
- ④ 주 5일 이상

C5. 부모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얼마나 좋아합니까?

문항	전혀 좋아하지 않음	좋아하지 않는 편임	좋아하는 편임	매우 좋아함	해당 없음
1. ○○는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얼마나 좋아합니까?	①	②	③	④	Ⓢ
2. ○○는 어머니와 함께 있을 때 얼마나 좋아합니까?	①	②	③	④	Ⓢ
3. ○○는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 얼마나 좋아합니까?	①	②	③	④	Ⓢ
4. ○○는 선생님이나 주변 어른들과 함께 있을 때 얼마나 좋아합니까?	①	②	③	④	Ⓢ

D. 부모님 및 자녀의 특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D1. 부모님께서서는 평소 ○○에게 어떻게 대하십니까? 문항을 읽고 표시해주시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의 행동을 엄격하게 통제하려고 한다.	①	②	③	④
2. ○○에게 충분한 자유를 준다.	①	②	③	④

D2. ○○의 평소 행동은 어떠합니까? 문항을 읽고 표시해주시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는 충분한 자유(놀이) 시간을 보내고 있다	①	②	③	④
2. ○○는 자유롭게 행동하지 못하고 눈치를 본다.	①	②	③	④
3. ○○는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한다.	①	②	③	④
4. ○○는 어떻게 시간을 보낼지 등 무언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	①	②	③	④
5. ○○는 무엇이든지 열심히 한다	①	②	③	④
6. ○○는 새로운 활동에도 자신있게 참여한다.	①	②	③	④
7. ○○는 좋아하는 일을 할 때 집중을 잘 한다.	①	②	③	④
8. ○○는 다른 흥미 있는 일이 있어도, 한 번 시작한 일은 끝까지 계속한다.	①	②	③	④

D3. 부모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는 자기 자신에 대해 얼마나 좋아합니까?

문항	전혀 좋아하지 않음	좋아하지 않는 편임	좋아하는 편임	매우 좋아함
1. ○○는 자신의 생김새에 대해 얼마나 좋아합니까?	①	②	③	④
2. ○○는 자기 자신에 대해 얼마나 좋아합니까?	①	②	③	④

D4. 부모님께서 보시기에 ○○의 **평소 모습(행복한 정도)**은 어떠합니까?

- ①  전혀 행복하지 않음 ②  행복하지 않은 편임
- ③  행복한 편임 ④  매우 행복함

D5. 다음은 설문지에 응답하고 계신 귀하(○○의 어머니/주양육자에 해당)하는 문항입니다. 자신을 가장 잘 설명한다고 생각하는 보기를 선택해주시시오.

항 목							
1. 전반적으로 나는 ...	① 매우 불행하다	②	③	④ 보통이다	⑤	⑥	⑦ 매우 행복한 사람이다
2.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나는 ...	① 전혀 행복하지 않다	②	③	④ 보통이다	⑤	⑥	⑦ 매우 행복하다
3. 어떤 사람들은 전반적으로 아주 행복하다. 무슨 일이 있어도 개의치 않고 즐겁게 지내는 편이다. 나는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③	④ 보통이다	⑤	⑥	⑦ 매우 그러하다
4. 어떤 사람들은 전반적으로 아주 불행하다. 특별히 우울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않게 보인다. 나는 ...	① 매우 그렇다	②	③	④ 보통이다	⑤	⑥	⑦ 전혀 그렇지 않다

E. 자녀의 안전에 관한 질문입니다.

E1. ○○가 집에서 부모님(또는 돌봐 주는 어른) 없이 집에 혼자 있거나 형제자매끼리만 있는 날은 **한 달에** 평균 며칠이나 됩니까?

- ① 전혀 없음
- ② 1달에 1~2일 정도
- ③ 1달에 3~4일 정도
- ④ 1달에 5일 이상(_____일)

E1-1. 있다면, **하루에** 평균 몇 시간정도 입니까?

- ① 1시간미만
- ② 1~2시간 정도
- ③ 3~4시간 정도
- ④ 4시간 이상(_____시간)

E2. 귀하의 동네는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문항을 읽고 표시해주십시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거주지역이 안전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2. 기관(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 이상 학원)이 안전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3. 자녀에게 나쁜 영향을 주는 것들이 있다.	①	②	③	④
4. 자녀를 괴롭히는 친구들이 있지는 않을까 걱정한다.	①	②	③	④

F. 주거환경 및 가정생활에 관한 질문입니다.

F1. 현재 살고 있는 집은 어떤 형태입니까?

- ① 단독주택
- ② 다세대주택
- ③ 연립주택(빌라)
- ④ 일반아파트
- ⑤ 영구임대아파트
- ⑥ 상가주택
- ⑦ 비거주용 건물(상가, 공장 등)
- ⑧ 임시 가건물(컨테이너 등)
- ⑨ 기타()

F6. 귀하의 가정에서는 ○○를 위해 다음의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문항	예	아니요
1. 잘 맞는 신발	①	②
2. 잘 맞는 옷	①	②
3. 연령(수준)에 맞는 책	①	②
4. 연령(수준)에 맞는 실내용 장난감	①	②
5. 야외 활동을 위한 장비(야외용 장난감, 자전거 등)	①	②
※ 아래 항목(6번~10번)은 가정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6. 컴퓨터(인터넷)	①	②
7. 라디오·MP3 등	①	②
8. TV(케이블·위성)	①	②
9. 전화기·휴대전화	①	②
10. 가족 승용차	①	②

F7. 최근 **6개월 동안** ○○는 다음의 활동을 얼마나 하였습니까?

문항	횟수
1. 친구 초대	_____ 회
2. 생일 등 특별한 일 축하	_____ 회
3. 도서관 가기	_____ 회
4. 극장, 콘서트, 공연장 가기	_____ 회
5. 전시관, 박물관, 역사 유적지 가기	_____ 회
6. 동물원, 수족관, 놀이 공원 가기	_____ 회
7. 지역사회, 종교단체 등에서 지원하는 행사 참여하기	_____ 회
8. 운동경기나 스포츠 행사 참여하기	_____ 회
9. 공원(동네) 산책하기	_____ 회

F8. 부모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는 가정환경에 대해 얼마나 좋아합니까?

문항	전혀 좋아하 지 않음	좋아하 지 않는 편임	좋아하 는 편임	매우 좋아함
1. ○○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얼마나 좋아합니까? (예: 옷, 장난감 등)	①	②	③	④
2. ○○는 지금 살고 있는 집에 대해 얼마나 좋아합니까?	①	②	③	④

G. 지역사회에 관한 질문입니다.

G1. 살고 계신 동네는 다음의 시설을 이용하기에 어떠합니까?

문항	매우 불편함	불편한 편임	편리한 편임	매우 편리함
1. 의료시설(병원, 보건소 등)	①	②	③	④
2. 운동 및 여가시설(놀이터, 공원, 산책로, 운동장 등)	①	②	③	④
3. 문화시설(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영화관, 공연시설 등)	①	②	③	④
4. 장난감/도서 대여센터(육아종합지원센터 등)	①	②	③	④

G2. 귀하의 동네와 이웃은 어떠합니까? 문항을 읽고 표시해주시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동네에는 아이와 갈만한 곳이 있다.	①	②	③	④
2. 우리 동네에는 재미있는 일이 많다	①	②	③	④
3. 우리 동네의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장소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4. 이웃 간에 서로 돕고 의지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5. 이웃 간에 서로의 자녀를 보살핀다.	①	②	③	④

H. 유아기 행복감 증진 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 H1~3 문항을 읽고 1순위와 2순위에 해당하는 보기를 골라서 각각 번호를 적어주시시오.

13. ○○의 형제자매는 몇 명입니까? (○○은 제외한 수)

- ① 없음 → I4로 갈 것 ② 1명 ③ 2명
 ④ 3명 ⑤ 4명 ⑥ 5명이상

13-1. 형제자매가 있다면, ○○이는 몇 째입니까?

- ① 첫째 ② 둘째 ③ 셋째
 ④ 넷째 ⑤ 막내 (형제자매가 5명이상일 때)

14. 현재 ○○와 한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은 ○○를 포함하여 모두 몇 명입니까?
 _____명

14-1. ○○는 누구와 함께 살고 있습니까? 해당되는 사람을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 ① 어머니 ② 아버지 ③ 친할머니 ④ 친할아버지
 ⑤ 외할머니 ⑥ 외할아버지 ⑦ 형제자매 ⑧ 기타()

15. 최근 **1년 동안** ○○와 함께 살고 있는 사람에게 변화가 있었습니까?

(예: 동생이 태어남, 할머니가 돌아가심, 새아버지와 함께 살게 됨)

- ① 예(→I5-1) ② 아니요

I5-1. 함께 살고 있는 사람에게 변화가 생겼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 입니까?

16. ○○의 부모님께서 태어나신 년도를 적어주십시오.

아버지 _____년도

어머니 _____년도

17. 가정의 **한 달** 평균 소득은 얼마입니까? 실수령액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가구소득 : 근로소득, 금융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이전소득, 기타소득 등을 모두 포함하여 이와 같은 소득을 모든 가구원에 대해 합산한 것을 지칭함. 단, 소득세·주민세·재산세·이자소득세 등을 비롯하여 국민연금, 의료보험료 등을 제외한 실수령액.

_____만원

18. 최근 **1년 동안** 가정 소득의 변화는 어떠합니까?

- ① 감소하였음 ② 변화 없음 ③ 증가하였음

19. ○○의 아버지는 현재 일을 하고 계십니까?

- ① 예 (→I9-1) ② 아니요 (→I9-2) ③ 해당 없음(→I10)

I9-1. 일을 하고 계시다면, 일주일에 평균 몇 시간 일하십니까?

- ① 10시간 이하 ② 11~20시간 ③ 21~30시간
④ 31~40시간 ⑤ 41~50시간 ⑥ 51시간 이상

I9-2. 일을 하시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휴직 ② 구직활동 ③ 가사·육아
④ 학업 ⑤ 심신장애 ⑥ 기타()

110. ○○의 어머니는 현재 일을 하고 계십니까?

- ① 예 (→I10-1) ② 아니요 (→I10-2) ③ 해당 없음(→I11)

I10-1. 일을 하고 계시다면, 일주일에 평균 몇 시간 일하십니까?

- ① 10시간 이하 ② 11~20시간 ③ 21~30시간
④ 31~40시간 ⑤ 41~50시간 ⑥ 51시간 이상

I10-2. 일을 하시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휴직 ② 구직활동 ③ 가사·육아
④ 학업 ⑤ 심신장애 ⑥ 기타()

111.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소유 형태는 다음 중 어느 것입니까?

- ① 자가 ② 전세 ③ 보증금 있는 월세
④ 보증금 없는 월세 ⑤ 영구임대 아파트
⑥ 가족 및 친척 소유(무상) ⑦ 가족 및 친척 소유(유상)
⑧ 기타()

기관(담임교사) 조사 동의

- 유아기 행복감 증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가 다니고 있는 기관의 담임선생님께 설문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설문지는 ○○가 다니고 있는 기관의 환경에 대해 알아보는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선생님께서 편리한 시간에 저희 조사원이 방문하여 설문지를 전달하게 됩니다. 또한 응답해주신 담임선생님께는 소정의 사례비가 지급됩니다.
- 담임선생님께서 응답해주신 내용은 본 연구에서 아주 중요하게 사용되오니 조사에 꼭 동의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① 동의합니다.

② 동의하지 않습니다.

- 동의하신다면, 아래 사항을 적어주십시오.

기관명: _____

담임선생님 성함: _____

기관의 연락처: _____

기관의 주소: _____

부록 3. 유아기 행복감 조사 (교사 및 전문가)

ID				
----	--	--	--	--

유아기 행복감 조사(교사 및 전문가)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는 육아정책연구를 보다 체계적이며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무조정실 산하 국가 정책연구기관입니다.

본 설문지는 육아정책연구소의 2014년 연구과제인 「유아기의 행복감 증진 방안」 연구의 일환으로 유아기 행복감 관련 요소를 파악하고 행복감 증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해 주신 내용은 향후 정부의 보육 및 유아교육 관련 정책 수립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오니, 바쁘시더라도 잠시 틈을 내시어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하께서 말씀해 주신 의견이나 개인정보 등에 관한 모든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제①항, 제②항에 의거하여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며, 그 내용은 연구 목적 외에는 어떤 용도로도 이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오니, 정확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10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이 영

조사주관기관: 육아정책연구소

도남희 부연구위원 02-398-7707, cando@kicce.re.kr

배윤진 부연구위원 02-398-7745, byj@kicce.re.kr

조사대행기관: ㈜밀워드브라운미디어리서치

김훈미 부장 02-3488-2783

윤정숙 부장 02-3488-2715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등)>

- 1) 통계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 2)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는 통계작성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다음은 우리나라 일반가정/취약계층 가정의 학령 전 유아(만3-5세)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한 문항도 빠짐없이 성실히 응답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취약계층이란, 저소득, 한부모, 조부모-손자녀 및 다문화가정 등을 의미합니다.

A. 유아의 환경에 관한 질문입니다.

- A. 다음의 문항을 읽고 **우리나라 유아들이 어떠하다고 생각하시는지** 해당하는 칸에 표시 해주십시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물질적 수준(경제적 상황)을 고려할 때, 아이들은 좋은 환경에서 지내고 있다.	①	②	③	④
2. 아이들의 식생활 등을 고려할 때, 건강 문제가 염려된다.	①	②	③	④
3. 일상생활에서 아이들은 건강을 위한 충분한 신체활동을 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4. 아이들은 또래로부터 신체폭력이나 따돌림을 경험한다.	①	②	③	④
5. 아이들은 성인(부모, 교사 등)으로부터 학대를 경험한다.	①	②	③	④
6. 동네마다 부모와 아이들을 위한 장소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7. 아이들이 낮 동안 동네를 자유롭게 다닐 수 있을 만큼 안전하다.	①	②	③	④
8. 아이들에게 필요한 보육·교육 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되고 있다.	①	②	③	④
9. 아이들을 대상으로 과도한 조기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10. 아이들은 부모와 충분한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다.	①	②	③	④
11. 아이들은 또래와 충분한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다.	①	②	③	④
12. 아이들은 성인(부모, 교사 등)으로부터 존중받고 있다.	①	②	③	④
13. 아이들은 대체로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14. 아이들은 앞으로도(유아기 이후의 삶) 계속 행복한 생활을 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15. 우리나라의 정책은 아이들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데 적절하다.	①	②	③	④
16. 우리나라의 정책은 취약계층 아이들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데 적절하다.	①	②	③	④

B. 유아기 행복감 증진 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B4. **취약계층 유아**의 행복감 증진을 위해 **정책(제도)적 측면에서** 더 노력해야 하는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	2순위
-----	-----

- ①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상황 해소
- ② 주거환경 개선 및 거주지 불안 해소
- ③ 균형 잡힌 식사 등 신체적 건강을 위한 지원
- ④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
- ⑤ 상담활동 등 심리적 건강을 위한 지원
- ⑥ 다양한 가족 프로그램 제공
- ⑦ 다양한 교육 서비스 제공
- ⑧ 기타()

C. 응답하신 분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C1. 귀하의 직업을 표시해주시시오.

- ① 교사 (→C2)
- ② 원장 (→C2)
- ③ 현장전문가 (→C3)
- ④ 기타()

C2. 귀하가 종사하는 기관의 유형을 표시해주시시오.

- ① 유치원 (→C2-1)
- ② 어린이집 (→C2-2)

C2-1. 종사하는 기관의 설립유형은 무엇입니까?

- ① 국립
- ② 공립 단설
- ③ 공립 병설
- ④ 사립 법인
- ⑤ 사립 개인

C2-2. 어린이집의 설립유형은 무엇입니까?

- ① 국공립
- ② 사회복지법인
- ③ 법인·단체 등
- ④ 직장
- ⑤ 민간
- ⑥ 가정
- ⑦ 부모협동

C3. 귀하가 종사하는 기관을 표시해주십시오.

- | | | |
|----------------------------|-------------|------------|
| ① 드림스타트 | ② 위스타트 | ③ 시소와 그네 |
| ④ 건강가정지원센터 | 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⑥ 육아종합지원센터 |
| ⑦ 기타() | | |

C4. 귀하의 전공은 무엇입니까?

- | | | |
|----------------------------|---------|---------------|
| ① 아동학/아동가족학 | ② 유아교육학 | ③ 아동복지학/사회복지학 |
| ④ 교육학 | ⑤ 심리학 | ⑥ 법학/행정학 |
| ⑦ 기타() | | |

연구보고 2014-21

유아기 행복감 증진 방안

발행일 2014년 12월

발행인 우남희

발행처 육아정책연구소

주 소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33 안국빌딩 7층, 8층, 10층, 11층

전화: 02) 398-7700

팩스: 02) 730-3313

<http://www.kicce.re.kr>

인쇄처 금풍 문화사 02) 2264-2306

보고서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

ISBN 978-89-97492-97-8 93330